




# 현대불교








☎ 구독신청 02)2004-8212 buddhanews.com 불기 2552년 (서기 2008년) 4월 16일(음력 3월 11일) 수요일 (주간) 제675 호


집중기획

# 특화된 기획·운영의 묘 절실

## 개관 1주년 맞은 불교중앙박물관 현황과 과제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관장 범하)이 개관 1주년을 맞았다. 2007년 3월 26일 개관 당시 조계종 중앙성보박물관으로 지역 사찰 성보박물관의 특성과 취약점을 보완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했지만, 월평균 관람객 300여명(2007년 12월 현재)이라는 초라한 성적을 내고 있어 성보박물관을 통합·관리하기는커녕 개별 박물관으로서 홀로서기도 만만치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주년을 맞은 불교중앙박물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했다.




### 공간·소장품 부족…전시 다양화 필요

불교중앙박물관은 전시시설 1,192.1㎡(약 360평), 수장고 568.2㎡(약150평)이다. 국립박물관 중 하나인 국립공주박물관의 전시실 면적 261평과 비교해도 전시실 면적은 좁은 편이 아니다. 하지만 개관 당시부터 전문가들은 "불교중앙박물관이 위치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는 박물관 시설로 설계되지 않아 박물관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박물관 시설로는 천장이 낮고 방음·방습·방제 등이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소장 문화재와 전시 문화재의 수도 문제다. 불교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성보문화재는 1372점(기탁유물 포함)으로 국립공주박물관의 7000여점에 비하면 20%수준이다. 불교중앙박물관을 찾은 관람객들이 "볼거리가 없다" "실망스럽다" 등의 반응을 보이는 것은 이러한 실정과 무관하지 않다. 불교중앙박물관이 소장한 성보문화재 중 지정문화재는 보물 등 6점에 불과하며 전체 소장 문화재의 10%인 115점만 상설 전시되고 있다.

이에 대해 관장 범하 스님은 "전시 설비는 최고 수준이지만 공간이 협소하다"며 "현재 박물관 소장 문화재에 대한 지정문화재 확장 방안은 마련돼 있지 않다. 유물을 기탁한 소장처 부터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다만 불교문화재연구소의 사찰문화재 일제조사를 통해 성보문화재 중 지정문화재 지정을 늘이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스님은 또 "후원회 구성 및 성보 되돌려 받기 운동 등을 전개해 소장유물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전보삼 회장(한국사립박물관협회)은 "한정된 공간에 선별된 문화재를 전시하는 것은 모든 박물관의 고민이다. 평면적 전시보다 IT기술을 도입해 영상과 3D 등 전시기법을 다양화해 협소한 공간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 전시는 있어도 '교육'은 없다

2007년 불교중앙박물관을 찾은 관람객은 모두 3만5000여명, 이중 유료 관람객은 1만여 명으로 이들이 낸 입장료는 전체 박물관 예산 1억6000여 만원 중 10%에 해당하는 1500여 만원이다. 그마저 박물관 매표 관리 인건비 1000여 만원을 제하면 순수익은 500만원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오는 5월부터 전국 31개 국립 중앙·지방 박물관과 현대미술관 등의 무료관람제가 실시되면 불교중앙박물관 등 사설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의 수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장 문화재 부족·상설展 외 프로그램 빈약**

**관람객수 月300여명…무료관람제 대비 필요**

범하 스님은 "입장료 수입이 박물관 수입의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다. 입장료는 박물관의 수입보다는 문화재 보호를 위한 방편"이라 설명했다. 스님은 "현재 지역사찰 성보박물관 등 불교계 성보박물관의 입장은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고 전제한 뒤 "각 박물관마다 특성을 살려 전시회를 유치하면 관람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불교중앙박물관의 2007년 한 해 전시사업은 '개관 특별 <불보>전' '석가탑 사리장엄구 특별전' 외 상설전 뿐이었다. 특별전은 개관특별전이 3월 27일~5월 24일, '석가탑 사리장엄구 특별전'이 5월 18일~24일 열려 모두 2007년 상반기에 집중됐다. 하반기에는 상설전 외 행사가 전무했다.

2008년 전시계획도 크게 다르지 않다. '개관 1주년 기념 <법보>전'이 4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준비되고, 11월 17일부터 12월 20일까지 '외길 김경호 초청 사경 전시회'가 올해 전시계획의 전부다.

연간 3개의 전시프로그램 외에는 박물관 학교 등 교육프로그램이나 문화강좌 등은 계획되어 있지 않다. 교육프로그램도 60여명의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한 것뿐이다. 지난 3월 박물관을 찾은 송석호(35, 서울 영등포구)씨는 "불상 만들기나 불화 그리기 등 체험프로그램이 없어 아쉽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불교중앙박물관 운영은 지나치게 소극적"이라고 지적하면서 "협소한 공간으로 전시 운영에 제약이 있다면,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도 있다. 연계된 문화상품 등이 하나도 없는 것은 분명한 문제"라고 말했다.

### 서비스마인드 이대로 안돼

현재 불교중앙박물관은 휴관 중이다. 4월 1일부터 28일까지 개관 1주년 기념 특별전을 준비한다는 이유다. 하지만 박물관측은 휴관 시작일 당일 매표소와 입구에 공지를 써 붙였을 뿐 사전 공지는 하지 않았다. 불교계 언론은 물론이고 조계종 홈페이지에도 휴관 공지를 하지 않은 것이다. 일일 평균 10여명의 관람객이 찾는다지만 4월 28일까지 300여명이 불교중앙박물관을 찾았다가 발길을 돌릴 것은 자명한 일이다.

〈2면에 계속〉

여수령·조동섭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비롯해 한국 불교계 관계자들과 중국불교계 관계자들이 4월 11일 중국 우민사에서 '도의조사 구법기념비' 제막식을 봉행했다. 〈사진=공동취재단〉

# 도의국사 구법기념비 제막

## 中난창 우민사에 건립…한·중불자 300명 참석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이 종조(宗祖) 도의국사(道義國師)의 구법지인 중국 장시(江西)성 난창(南昌) 우민사(옛 홍주 개원사)에 도의조사 구법기념비를 세우고 4월 11일 제막식을 봉행했다. 육조 혜능선사의 법맥을 이어받아 우리나라에 남종선을 전래한 도의국사는 조계종의 종조로 추앙받고 있다.

조계종과 중국불교교협회(회장 일성)는 11일 우민사에서 한·중 불교계 대표 및 불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계종 종조 도의조사 입당구법기념비 제막식'을 봉행했다.

지관 스님은 선양사를 통해 "조사의 구법처인 이곳에 구법기념비를 건립해 법은(法恩)에 보답코자 한다"며 "이 비문은 한국 조계종과 중국 임제종이 동근동조(同根同祖)임을 증명하는 것이며, 한중불교교류 1700년과 한중수교 15주년을 맞아 두 나라의 불교간 신뢰를 더욱 돈독히 하는 징표로 영원히 종문(宗門)의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불교협회장 일성 스님도 "조계종 도의국사입당구법기념비 제막식은 중한 양국 불교계의 일대 거사라 할 수 있으며 양국 불자들의 우의 증진에 있어 역사적 의의를 지닌 행사"라고 의의를 되새겼다.

〈관련기사 2면〉

여수령 기자

# 18대 총선 불자의원 56명 당선

## 17대 국회보다 22명 늘어

108명의 불자의원들이 출사표를 던진 18대 총선에서 지역구 의원 42명과 비례대표 14명 등 불자 국회의원 56명이 당선됐다.

이는 지난 17대 국회의 불자의원 34명에 비해 증가한 수치로, 전체 18대 국회의원 299명 가운데 18.7%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지역구 의원 245명 중 17%, 비례대표 의원 54명 중에서는 25.9%를 차지한다.

본지 조사와 불교정책기획단(단장 승원·허경만)이 4월 10일 발표한 자료를 종합하면, 18대 총선 당선자 중 불자의원은 한나라당 36명, 통합민주당 10명, 친박연대 2명, 자유선진당 2명, 무소속 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17대 국회 정각회장 이해봉 의원(무소속, 대구 달서구을)과 부회장 안홍준 의원(한나라당, 경남마산을)을 비롯해 강길부 김재경 김학송 서병수 유승민 이계진 이광재 장윤석 정갑윤 주호영 최병국 의원 등 정각회 회원 15명이 대거 재선에 성공했다.

또한 조계종 중앙신도회 고문인 이용희 의원, 지도위원인 강창일 권선택 의원 등도 포함되어 있으며, 최문순 의원(前 MBC 사장)은 현재 조계종 미디어위원을 맡고 있다. 박근혜(대구 달성군) 추미애(서울 광진구을) 박순자(안산시 단원구을) 의원을 비롯해 비례대표 김을동 정옥임 의원 등 여성불자의원 11명도 당선됐다.

한편, 18대 총선에 야심차게 출사표를 던진 종교 기반 정당들은 지역구 선거는 물론 3% 득표 정당부터 주어지는 비례대표 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하지만 기독사랑실천당(대표 최수환)은 2.59%(443,747표)의 정당 득표율을 기록하며 선전했다. 막대한 자금력으로 245개 전 지역구에 후보를 낸 평화통일가정당(총재 곽정환)은 지역구 후보를 당선시키지 못했고 정당 득표율도 1.05%(180,852표)를 얻는데 그쳤다.

〈관련기사 8면〉

여수령 기자

'허허당의 세상만사' 쉽니다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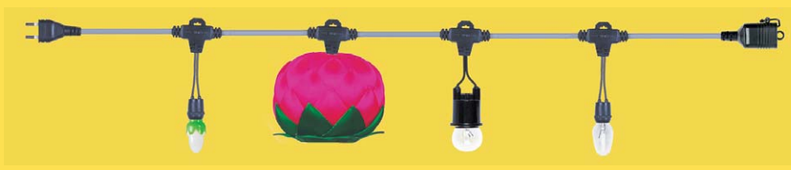
◆ 취급업무 : 민사·형사·가사·행정



서안 법률사무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7 한양월드빌 206호(평촌역 도보 5분)
전 화 | 031)387-5400 | 팩 스 031)387-5409
휴대폰 | 010-7504-4521 (강영화 변호사)
017-535-0685 (김기현 변호사)
010-4488-3740 (김택선 변호사)

#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불제 대원기업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 기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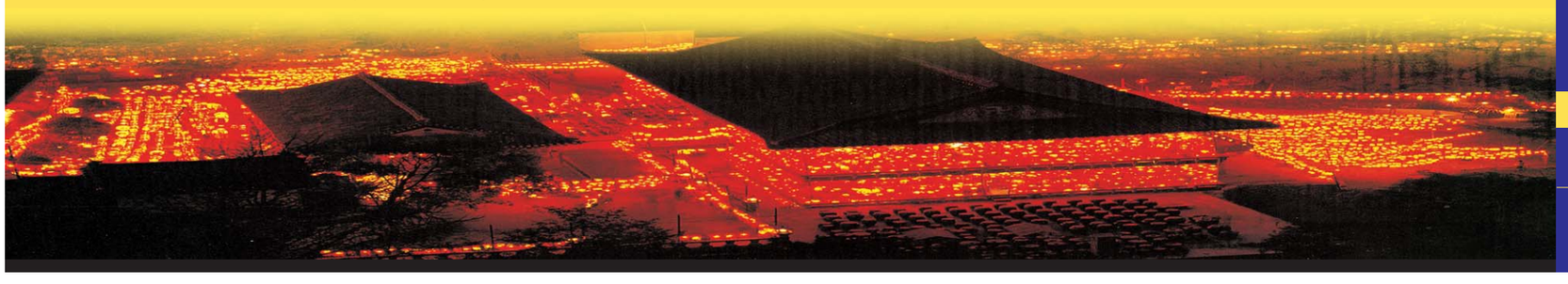
장엄용(법당) 전기초

▶화재 위험이 거의 없다.
▶그을음과 납성분의 위험이 있는 일반초와는 달리 무공해임
▶시간 조절 가능




SMD,LED전구 (국산정품)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 (02)2266-2634, 2263-2638 / 구입문의 (032) 582-6235~6 /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석모리 287-2



전 선 간 격
22cm,25cm,28cm,30cm,40cm,50cm,
1M,2M,3M,5M,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 (국산정품)
○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법당용, 외곽용
○ 휠라멘트가 아닌 반도체로 되어 반영구적이다.
○ 반도체로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없다.
○ 소켓 AC220V용으로 다용도로 사용

사찰 램프전구(정품)
○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종류: 3W, 5W, 10W
○ 특 휠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건전지용초, 방생, 탑돌이 행사용
청사초롱 및 초롱 걸이대
연등, 영가위패

연등(정품)
법당등(공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군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선시공

# “각 지역 성보박물관과 연계 강화해야”

## 관장 회의 확대 추진· 각 관별 특성개발 지원 필요

〈1면에서 계속〉조계종 총무원의 한 교역직 스님은 “사전 공지 없이 휴관하는 것은 관람객에 대한 기본 예의가 아니다. 전시실을 한 곳씩 막고 특별전 준비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전체 휴관을 감행한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개관 1년이 지나도록 홈페이지가 개설되지 않은 것도 문제다. 박물관은 올해에서야 홈페이지 제작과 관련한 예산을 배정해 6월 이후 홈페이지를 개설할 예정이다. 불교중앙박물관 이용진 팀장은 “박물관이 2007년 3월 개관했지만 정규직 발령은 2007년 7월 이후에나 이뤄져 홈페이지 등을 제작할 여력이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불교중앙박물관이 2007년 〈도록〉을 발간한 사실로 볼 때,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활동에 무심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 ▨ 지역사찰 성보박물관과 연계 요원

불교중앙박물관의 설립 취지 중 하나는 조계종 성보박물관의 허브로 전국 34개 성보박물관과 연계에 있었다.

범하 스님은 작년 12월 17일 열린 제4회 종교박물관 · 미술관 학술심포지엄에서 ‘불교중앙박물관의 전망과 과제’의 주제발표에서 “불교중앙박물관은 성보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계종 산하 성보박물관의 중앙기구로 각 성보박물관 간에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각 성보박물관이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범하 스님의 주장은 불교중앙박물관 개관 1년이 지난 지금도 원론에 머물고 있다.

불교중앙박물관의 문화재 보존처리 인력은 지류(紙類) 전문가 1인뿐이다. 목조와 석조 등 소재별 전문가가 없을뿐더러 1인으로는 불교중앙박물관만의 지류로 된 성보 관리도 벅차 보인다. 지역 성보박물관과의 네트워크 구성도 빈약하다.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성보박물관장 회의는 단 두 차례 열렸다. 범하 스님은 “2008년에는 2~3회 이상 성보박물관장 회의를 개최해 보다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몇 곳을 제외한 대다수 성보박물관의 관장이 공석인 현실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 ▨ 교계 관심과 지원 확대 절실

2007년 7월 10일 제정된 ‘성보박물관의설립및운영에관한령’에는 ▲종단 성보문화재의 전시 및 홍보 ▲종단 성보문화재의 보존관리 · 복원 ▲종단 성보문화재를 통한 포교 및 사회교육 ▲종단 내 성보박물관에 대한 지도 및 지원 등으로 불교중앙박물관의 역할을 명시했다.

그동안 조계종 문화부 일반회계였던 불교중앙박물관의 재정이 조계종 특별회계에 편입된 것도 독립기구로서 불교중앙박물관의 위상이 높아진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종령에 명시된 역할 진행에 현재의 예산과 인력은 역부족이라는 것이 교계의 중론이다. 한 전문가는 “종단 지원금에 의지해야 하는 불교중앙박물관 재정 규모는 종단의 성보문화재 인식수준을 가늠하게 한다”며 “종회의원 스님부터 성보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높이 가져 불교중앙박물관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불교중앙박물관의 인력은 교역직과 2명과 일반직 3명 등 6명이 성보문화재 관리, 보존부터 성보박물관 지도 · 교류까지 광대한 업무를 수행중이다. 예산은 교계인식 확산으로 쉽게 늘일 수 있다. 하지만 전문인력 확보는 상당한 시일을 요한다. 한 전문가는 “성보 관리의 주체는 결국 출가자일 수밖에 없다. 중앙승가대 등 승가 문화재 관리인력 양성을 확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불교중앙박물관 첫돌, 지난 1년 부진했던 활동을 반조해 이름처럼 불교 ‘중앙’ 박물관에 걸맞는 위상으로 거듭나 성보문화재를 통한 포교의 시대를 활짝 열길 기대한다.

여수령 · 조동섭 기자



제막식에 앞서 지관 스님이 도의국사 진영 앞에 헌향하고 합장 인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5m 높이 도의국사 구법기념비에

# 생애·법맥 등 4300字 새겨

〈1면에서 계속〉조계종은 그동안 종조 도의국사를 기념하는 현창 사업을 추진해 오다 지난해 2월 ‘조계종조 도의조사 입당 구법기념비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구법비 건립 입지 조사와 협약서 결 과정을 거쳐 지난해 12월 중국 장시(江西)성 난창(南昌) 우민사 동불전 앞에 구법비 건립을 완료했다.

조계종과 중국불교협회가 4월 11일 제막식을 봉행한 구법기념비는 귀부와 이수를 포함한 높이 5.16m 규모로 완공됐다. 지관 스님이 직접 작성한 비문에는 도의국사의 생애와 구법활동, 법맥 등 4300여 자(字)가 국 · 한문 혼용으로 새겨졌다.

기념비가 세워진 우민사는 도의국사가 구법을 위해 머물렀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도의국사는 건중 5년(784) 사신인 한찬 김양공을 따라 당나라로 들어가 구법을 했으며, 산서성 오대산 중대(中臺)에서 문수보살을 친견하고 광동성 광주 보단사(현재의 대범사) 계단에서 비구계를 품수했다. 이후 홍주 개원사(현재의 우민사)에서 서당 지장선사를 친견하고 활연 대오했다.

지관 스님은 “도의조사와 서당 지장선사의 후손들이 도의국사 수법의 뜻을 기리기 위해 비를 세우게 됐다”며 “조계종과 중국 임제종은 지난 1년여 간 교류를 통해 같은 법맥인 마조선사의 후손임을 다시금 확인하게 됐다”고 의의를 밝혔다. 우민사 방장 순일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기념비 건립은 도의국사가 우민사에서 서당 지장 대화상에게 구법하여 법을 받은 찬란한 역사가 기록된 증명이 될 것”이라며 “새로운 역사의 기로에서 중한 양국은 육조의 남돈조계법수와 마조 · 지장 선사의 가풍을 잇고 널리 펼치리라 굳게 믿는다”고 평했다.

원로회의장 종산 스님은 부의장 밀운 스님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저 옛날 스님께서 당나라를 찾으신 것이 조사의 선법(禪法)을 구하는 데 그 원력을 두시었듯이 오늘 비석을 세우는 일은 그냥 돌덩어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스님께서 전해주신 선법을 우뚝 세우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종회의장 자승 스님은 축사에서 “종조께서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 한국불교가 제 자리를 잡기 어려웠을 것”이라면서 “우리 종도들은 마음을 모으고 원력을 내어 종조님을 선양하고 스님의 뜻을 기리는 불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제막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원로회의 부의장 밀운 스님, 원로의원 정무 스님, 호계원장 법등 스님, 종회의장 자승 스님, 총무부장 원학 스님, 기획실장 승원 스님, 재무부장 장적 스님, 동화사 주지 허운 스님 등 한국 대표단 100여명과 중국불교협회 회장 일성 스님, 우민사 방장 순일 스님, 중국 강서성 민족종교국 시에쇼치 사무국장 등 중국 불교계 대표 20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지관 스님은 우민사 방장 순일 스님과 (주)보광석재 김한열 사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조계종은 오는 10월경에는 중국 광동성 남화선사에 도의조사 순례기념비를 세울 계획이다.

여수령 기자

## 조계종 비구니 학인스님 대운하중단 촉구 성명서

조계종 비구니 승가대학 학인스님들이 한반도대운하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4월 7일 발표했다. 동학사 · 봉녕사 · 삼선 · 운문사 · 유마사 · 청암사 승가대학 학인 일동 명의로 발표된 성명서에서는 “강물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바꾸고 함부로 개발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생태계의 파괴로 상상할 수 없는 정신적 물질적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며 “국민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운하건설을 진행하려고 하는 일을 즉각 중단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촉구했다. 여수령 기자

## 천태종 총무원장 재임 가능

### 제81차 정기종회서 종헌 개정

천태종이 총무원장의 임기를 4년, 1차에 한해 재임할 수 있도록 종헌을 개정했다.

천태종 종의회(의장 도정)는 3월 28일 단양 구인사 인광당 5층에서 제81차 정기종회 본회의를 열고 총무원장 · 감사원장 임기 제한 등 종헌개정안을 상정, 만장일치로 가결시켰다.

종헌 개정안에 따르면 ▲총무원장의 임기는 취임일로부터 4년, 1차에 한해 재임 가능(86조) ▲감사원장의 임기는 취임일로부터 4년, 1차에 한해 재임 가능(121조, 임기)하도록 했다.

천태종의 종헌에는 총무원장 임기(56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감사원장의 임기(63조,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규정돼 있었다.

이와 함께 종의회는 소의경전(제3조)에 〈법화삼부경〉 〈천태오소부〉 〈대지도론〉 등을 추가하기로 결의했다. 또 총본산 구인사에 ‘천태금강계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종헌(제23조)을 개정됐다. 여수령 기자

## “수행종가 중흥 기대”

### 지관 스님 ‘포살·결계법’ 시행 관련 담화문

“수행대중 모두가 포살의 의무와 갈마의 권리를 회복하게 되면 떳떳하고 실질의 힘을 가진 위대한 교단이 성취되고, 수행종가는 길이 중흥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176회 조계종 중앙종회에서 결의된 ‘포살및결계에관한법’ 시행을 앞두고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4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담화문을 발표했다.

‘결계와 포살을 시행하며’ 제하의 담화문에서 지관 스님은 “취임 이후 수행승가의 중흥을 제일의제(第一議題)로 삼은 뜻은 물신(物神)의 풍요 속에 고군분투하는 승가대중들의 자존(自存)과 정체(正體)를 실답게 회복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라 여겼기 때문”이라며 “승가공동체는 화쟁(和諍)과 상생(相生)의 대중공의(大衆公議)를 여법하게 이행하고 존속시킬 수 있는 특별한 공화(共和)의 유산을 전승해 왔다”고 법 시행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승가전통의 근간이며 화합승가의 기본조건은 구성원의 한계(限界)를 정해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결계(結界)와 서로 합의결속(合議結束)한 학처(學處)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포살(布薩)을 시행하게 됐다”며 “모든 대중스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포살결계법’ 제정에 종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제도보완과 홍보는 물론 대중들의 의견 또한 지속적으로 수렴하도록 하겠다”는 다짐도 덧붙였다.

법 시행 일정에 대해 총무부장 원학 스님은 “공청회는 따로 개최하지 않고 4월 16일 선원 · 법계위원회 · 교구본사 · 종회의원 스님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수령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 ·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김승호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5199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현대불교 영상사업 안내**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자서전), 단체 사찰순례, 강의, 법문, 기업성지순례, 기업동영상홍보제작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김봉환(前 KBS/동아TV촬영감독, 강원대 영상학 강사)

문의 : 02-2004-8279

# 성 명 서

**물은 우주의 근원이며 생명의 원천이다. 모든 생명은 물을 통해 태어난다.**

우리는 맑은 공기와 청정한 물이 얼마나 소중하고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다. 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한 우리의 무분별한 파괴로 자연이 그 조절 능력을 상실했을 때 입은 피해가 어떠했던지 여러 경험을 통해 절실하게 인식하고 있다.

자연은 ‘스스로 그러하다’는 말뜻처럼 그 섭리대로 놓아두었을 때 그 효과를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다. 특히 물은 흐르다 거대한 바위나 굴곡을 만났을 때 거스르지 않고 돌아가는 순리를 따른다. 강물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바꾸고 함부로 개발하려는 것은 그 구조변경 과정에서 생기는 폐해는 말할 나위도 없고 돌이킬 수 없는 생태계의 파괴로 상상할 수 없는 정신적 물질적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다.

개발시대에 필요에 의해 청계천을 복개하여 만들었던 삼일고가도로가 보여주었던 부작용을 우리는 익히 경험하지 않았던가. 새롭게 태어난 청계천이 서울시민의 사랑을 받는 것을 보는 우리는 자연을 자연 그대로 두고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인 것을 먼저 경험하지 않았던가. 세계사적으로도 훼손된 자연을 원래상태로 복구시키는 사업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현실인데 우리는 아직도 개발논리만이 살 길이라고 부르짖는 시대역행적인 파천황(破天荒)적인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는 해양교통을 활성화시키는 일이 우선인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좁은 국토에서 수많은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이며, 서울 부산 간의 이동시간이 최소 60시간이라는 비경제성, 생태계의 파괴와 공사구간에 존재하는 역사의 숨결인 문화유산들의 희생과 훼손, 홍수발생 시 배수불량으로 인한 피해, 운하의 수량유지를 위한 주변 샛강들의 물부족, 운하관리에 따른 수질오염, 준설이후 문제발생 시 완전한 환경 재복원 불가능 등등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그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합의없이 졸속으로 운하건설을 진행하려고 하는 일을 즉각 중단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운하건설은 생명을 죽이는 일이며, 인간의 탐욕으로 엄청난 재앙을 초래하는 일임을 자각하고 자연에 대해 겸손하라.

세계문화유산으로 인정받는 팔만대장경이 어떠한 인위적인 조치도 없이 조성 당시의 모습 그대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800년 세월동안 온전히 보존해 온 것을 상기하라.

불기 2552년 4월 7일

**동학사승가대학, 봉녕사승가대학, 삼선승가대학, 운문승가대학, 유마사승가대학, 청암사승가대학 일동**

# 불교미술대전 공모요강 확정

## 7월 21일부터 원서 배부…8월31일 심사결과 발표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운영위원회(위원장 지관, 조계종 총무원장)는 제23회 불교미술대전 공모요강을 4월 2일 확정 발표했다.

불교미술을 계승해 나갈 역량 있는 작가들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개최되는 불교미술대전은 지난해 운영규정을 개정해 올해부터 매년 시행하게 됐다.

운영위원회가 밝힌 공모요강에 따르면 응모원서 배부는 7월 21일부터 8월 8일까지이며, 포트폴리오 접수는 8월 11~14일까지 받는다. 이후 수상권 작품 접수(8월 19~22일)와 심사를 거쳐 8월 31일 최종 심사결과를 발표한다.

대상 1인에는 상패와 1500만원의 상금이, 최우수상 1인에는 상패와 10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시상식은 10월 15일 오후 2시 불교중앙박물관에서 열리며 작품전시회는 10월 15~21일까지 개최된다. 자세한 공모일정과 작품규격, 응시원서 등은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에서 볼 수 있다.

(02)2011-1772 여수령 기자

# 파라미타청소년協 사경공모전 개최

## 5월 7일까지 참가 접수

(사)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도후, 이하 파라미타)가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사경디자인을 공모, 청소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사경이란 불경을 한자 한자 정서(正書)하면서 수행하는 방법으로 이번 파라미타의 사경공모전은 전국 초·중·고등학생 및 파라미타 소속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다. 접수는 5월 7일까지며 참가신청서 1부와 사경시안작품을 함께 서울 수송동 소재 파라미타 중앙사무처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으로 제출하면 된다.

사경 시안은 <숫타니파타> 두 번째 품 '축복경' 또는 <법구경> '우암품'이다. 각각의 사경 시안에서 그림 디자인은 출품자가 임의로 바꿔 경전에 맞게 재구성할 수 있다.

시상은 각 학교 재량에 따라 5월 10~15일 실시하며 대상 1명에게 봉축위원장상 및 상금 30만원, 특별상 1명에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및 상금 30만원, 최우수상 2명에게 동국대학교총장상 및 상금 15만원을 각각 전달한다.

발표는 5월 9일 오후 6시에 있을 예정이며 파라미타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대회 출품을 위한 사경시안과 참가신청서는 모두 파라미타 홈페이지(www.paramita.or.kr)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02)723-6165

김강진 기자

## 종교문화행사 지원사업 공모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공동대표의장 지관, 조계종 총무원장)는 '제3회 지역 종교문화행사 지원사업' 대상을 공모한다. 지원 대상은 서울지역 외에서 3개 종교 이상의 종교단체가 연합해 개최하는 음악회, 전시회 등 순수문화행사다. 올해 7~11월에 열리는 행사에 한하며, 공모 접수는 5월 2일까지이다.

종지협은 종교간 교류 대회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종교문화행사를 촉진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행사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여수령 기자




# '부처님 오신 뜻' 빛내는 행사 풍성

## 봉축위 4월 13부터 한달간 일정 공개…시청앞 점등식 21일

올해 시청 앞 점등식은 4월 21일 오후 7시 서울시청광장에서 개최된다. 연등축제의 역사적 자취를 살펴볼 학술토론회도 4월 18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는 불기 2552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4월 13일부터 5월 12일까지 펼쳐지는 풍성한 문화행사 일정을 공개했다.

서울시청 앞에 설치될 봉축장엄물의 점등식은 4월 21일 열리고, 전통등전시회는 5월 2일 서울 봉은사에서 개막한다. 불교문화마당과 어울림마당, 제등행렬 등은 5월 4일 서울 조계사 앞 우정국로와 동대문축구장에서 각각 개최된다.

특히 4일 오후 7시 동대문축구장에서 시작되는 제등행렬은 같은 날 오후 5~7시 종로와 서울광장에서 펼쳐지는 하이서울페스티벌의 대형 거리 퍼레이드 '만민대로락'에 이어 열리게 돼 예년에 비해 참가자들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을 맞이하는 인천공항과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서울 청계천에도 연등이 내걸린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지관)는 4월 23일부터 5월 23일까지 청계천 등달기를 전개하고, 5월 1~13일에는 인천공항 불교미술축제를 개최한다.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자들에게도 부처님 오신 뜻을 알려줄 연꽃등이 전달된다. 봉축위원회와 각 병원 법당은 4월 13일부터 5월 12일까지 보훈병원, 국립의료원, 서울대병원, 고려대병원 등 전국 21개 병원불자회와 함께 환자들에게 연꽃등을 전달한다. 장애인불자예술인들이 시낭송 및 음악연주를 펼치게 될 제1회 보리수 아래 핀 연꽃들의 노래는 4월 29일 오후 7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에서 막이 오른다.

한편, 봉축법요식은 부처님오신날인 5월 12일 오전 10시 조계사를 비롯한 전국 사찰에서 봉행된다.

봉축위원회 박상희 팀장은 "올해 봉축행사 일정과 장소가 변경됨에 따라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행사도 있지만, 다채로운 행사들이 펼쳐지는 만큼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특히 서울시의 하이서울페스티벌 기간과 겹쳐 축제 참가자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 봉축행사 일정표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4/13 | 14 | 15 | 16 | 17 | 18 | 19 |
| | | | | ◆청각장애인 군부대 견학 및 체험 (전차부대/연화원) | ◆연등축제 학술토론회(2시/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조계종 총무원 문화부)<br>◆범음 범패 육법공양 시연(4시, 7시30분/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동희범음회) | ◆3000배 정진기도(4.19~20/조계사/사회복지재단)<br>◆제13회 현대불교문학상 시상식(3시/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현대불교문인협회) |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 ◆연꽃노래잔치 본선(1시/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br>◆장애인의날 기념행사(부천아인스월드/원심회) | 시청 앞 점등식<br>(7시/시청앞 광장)<br>*이웃을 위한 희망의 등 밝히기(~5.23 중앙신도회) | ◆연화 꽃꽂이 연합회(4.22~23/리베라호텔) | *청계천 등 달기 | | | |
| 27 | 28 | 29 | 30 | 5/1 | 2 | 3 |
| | ◆청소년 디지털 사진공모전 및 사진 전시회(4.28~6.16/싸이언드림갤러리, 도선사, 능인선원, 대구/불교사진연합회)<br>◆불교중앙박물관 특별전 "법보전" (4.28~6.29/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박물관) | ◆제1회 보리수 아래핀 연꽃들의 노래(7시/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보리수아래) | | ◆붓다 콘서트(7시/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좋은벗 풍경소리)<br>*인천공항불교예술축제(~5.13) | 전통등 전시회<br>(5.2~5.12/봉은사)<br>◆오세암(중앙대학교대극장/바라오페라단) | 연등놀이<br>(7시/조계사 앞길) |
| 4 | 5 | 6 | 7 | 8 | 9 | 10 |
| 연등축제<br>12:00 불교문화마당<br>15:00 어울림마당<br>19:00 제등행렬<br>21:30대동한마당(연등음악회)<br>◆청소년음악놀이페스티벌(6시/불교문화마당 무대/파라미타) | ◆불교문화체험 한마당(인사동/대불련)<br>◆전국어린이 부처님 그리기대회(목아불교박물관) | | | | | ◆불교학 연구회 춘계학술대회(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불교학연구회) |
| 11 | 12 | | | | | |
| ◆전국웅변대회(1시/광명사/웅변인협회) | 봉축법요식<br>(10시/조계사) | | | | | |



# “이웃과 더불어 즐기는 시민축제로”

## 대구봉축위, 19일부터 다채로운 봉축행사 마련

부처님오신날 대구봉축위원회(위원장 허운)가 지역민과 함께 봉축의 의미를 되새겨볼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대구봉축위는 “불교의 전통문화를 새롭게 꾸며 봉축행사를 지역민과 함께하는 시민축제로 승화시키겠다”며 “특히 올해는 불교의 미래인 어린이 · 청소년들이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통등과 장엄등을 시민들에게 보급하는 한편 청소년 댄스경연대회와 어린이 재롱잔치를 개최해 봉축 분위기를 고조시킨다는 방침이다.

올해 봉축행사는 4월 19일 오후 4시 국채보상공원에서 열리는 봉축탑 점등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펼쳐진다.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경축하기 위한 봉축탑 점등식에는 2000여 명이 참석한다. 앞서 16일 오후 2시에는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제9회 불교합창제가 개최돼 대구경북지역 불교합창단들이 실력을 겨룬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비의 손길도 이어진다. 어르신 경로잔치는 4월 24일(안일사)과 26일(맑고향기롭게), 30일(대구광역신도회), 5월 2일(원만사)에 각각 개최된다. 독거어르신과 시각장애인의 사찰 참배를 지원하는 ‘아름다운 동행’은 4월 25일 대광맹인불자회의 주관으로 펼쳐진다. 이밖에 ‘자유와 평화공존을 위한 마음으로의 여행’은 4월 20일, 청소년 댄스경연대회와 어린이 재롱잔치는 5월 3일 오후 1시 반월당에서 열린다.

봉축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연등축제는 5월 3일 오전 10시 반월당 중앙무대와 중앙로에서 열린다. 5만여 명 이상의 대구시민들이 불교체험행사, 율동공연, 장엄등 전시회 등의 식전공연에 참석한 후 제등행진을 펼친다. 제등행진은 반월당을 출발해 계산오거리, 중앙네거리, 봉산육거리를 거쳐 다시 반월당으로 돌아오는 3.2㎞ 구간에서 진행된다.(053)623-6388

손법천 대구지사장

• 행사일정

| 행사명 | 일시 | 장소 |
|---|---|---|
| 봉축창작등경연대회 | 5월 3일 | 봉축위원회 |
| 부처님오신날 봉축탑 점등식 | 4월 19일 오후 4시 | 국채보상공원 |
|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 | 5월 3일 오전 10시 | 중앙로 |
| 선덕여왕 숭모제 | 4월 20일 오전 10시 | 부인사 |
| 제9회 불교합창제 | 4월 16일 오후 2시 | 대구문화예술회관 |
| 자유와 평화공존을 위한 마음으로의 여행 | 4월 20일 오전 10시 | 국채보상공원 |
| 동구청 점등식 | 4월 23일 오후 7시 | 동구청 |
| 아름다운 동행 (독거노인·시각장애인 사찰순례) | 4월 23일 오후 7시 | 대광맹인불자회 |
| 시청점등식 | 4월 29일 오후 7시 | 시청 앞 분수대 |
| 서구청/서부경찰서 점등식 | 5월 1일 오후 7시 | 경찰서 앞마당 |
| 청소년댄스경연대회 | 5월 3일 오후 1시 | 반월당 |
| 봉축전야제 | 5월 11일 | 대성사 |
| 자비광명기원타종식 | 5월 12일 | 경상감영공원 |
| 봉축대법회 | 5월 12일 | 각 사찰 |
| 남구 어르신 경로행사 | 4월 24일 | 동화사 |
| 홀로 어르신 저녁공양 | 4월 26일 | 맑고향기롭게법당 |
| 경로잔치 | 4월 30일 | 자비의집 |
| 경로잔치 | 5월 2일 오전 11시 | 원만사 |



4월 5일 서울 전국비구니회관에서 첫선을 보인 사리순례전이 전국 순회전시에 나섰다.

# 불교 성자 사리 한국 나들이

## ‘미륵불상 심장전 사리 세계 순례’ 두번째 방한展

부처님의 10대 제자와 티베트 불교 성자들의 사리 3000여 과(顆)가 한국 불자들을 찾아왔다. 2006년에 이은 두 번째 방한 전시로, 공식 행사 명칭은 ‘미륵불상 심장전(心藏殿) 사리 세계 순례전’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성철 스님의 정골사리도 함께 선보인다. 4월 5~13일 서울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에서 첫 선을 보인 순례전은 부산 대구 전남에 이어 다시 서울에서 열린다.(www.maitreyaproject.or.kr 도표참조)

순례전은 티베트 불교 지도자 라마 조파 린포체의 서원에 따라 2001년 3월 시작돼 지금까지 전 세계 250여 곳에서 봉행됐다. 사찰에서만 아니라 박물관과 병원, 교도소, 호텔을 비롯해 가톨릭 성당 등 장소를 불문하고 법석이 펼쳐졌다. 순례전을 통해 마련되는 수익금은 인도 쿠시나가르에 높이 152m 거대 미륵상을 조성하는데 쓰인다.

미륵상은 자비와 상생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조성되는 것으로, 현재 인도 정부와 티베트가 교섭을 진행해 현재 불사가 40% 가량 진척된 상태다. 일곱 챠크라의 상징을 따라 미륵상의 심장 부분에 순례를 마친 3000여 과의 사리가 안치될 예정이다.

국내 순례전 양시찬(법명 법하) 단장은 “사리 친견 순례전에는 세상에 자비를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이 담겨있다”며 “참된 인간이 살아가기 힘든 시대에 이번 행사를 통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순수를 되찾기 바란다”고 말했다.(02)2088-2706

가연숙 기자

| 일정 | 장소 |
|---|---|
| 4월 18~23일 | 부산 반야원 |
| 4월 29일~5월 4일 | 대구 시민회관 |
| 5월 9~18일 | 전남 보성 대원사 |
| 5월 23~25일 | 서울 상원사 |

### 태고종 충남교구 종무원장

## 혜산 스님 취임법회

태고종 충남교구 14대 종무원장 혜산 스님의 취임법회가 4월 1일 아산 온양그랜드호텔에서 봉행됐다. 사부대중 4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혜산 스님은 임명장을 받았다.

혜산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종도들의 화합을 증진하고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스님은 종무행정 수행방침으로 ▲종무원 원사 건립 ▲교구 각 사암 순방 ▲년 1회 이상 교구단위 대법회 봉행 ▲분원회의를 통한 지원강화 ▲주지회의 활성화 등을 꼽았다.

총무원장 운산 스님은 “대승교화 종단인 우리 종단은 ‘1사찰 1선행’ 운동과 지역사회 이바지 등을 통해 대사회 위상을 제고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며 “새 출발하는 충남교구는 종무원장을 중심으로 화합하고 단결해 달라”고 당부했다.

종무원장 혜산 스님은 1971년 봉선사에서 영우 스님을 은사로 득도, 1994년 대호사를 창건했다. 충남교구 지방종회 의장을 재임하고 지난해 중앙종회의원에 피선됐다.

혜철 충청지사장

# 종교 벽 넘어 ‘법회의 새 場’ 연다

## 보명사 ‘53 선지식 법회’ 기독교인 한동철 교수 법석 마련

법회에서는 스님만 법문을 한다? 천안 보명사(주지 성문)가 펼치는 ‘53 선지식 법회’에서는 현대인들을 위한 새로운 개념의 법석을 만날 수 있다.

4월 6일 열린 ‘53 선지식 법회’ 24번째 법석에는 국내 ‘부자학 박사’ 1호인 한동철 교수(서울여대, 부자학연구학회장)가 법사로 나섰다. ‘부자 되는 법’이란 주제도 파격적이지만, 한 교수 자신은 “중학교 수학여행 이후 법당에 들어온 것이 두 번째”일 정도로 독실한 기독교인이다. 한 교수는 이날 “이 세상에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며 “재산은 신(神)의 소유물이니 남에게 먼저 그리고 이유 없이 베풀고 살아야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부자학 개론’을 설파했다.



4월 6일 열린 보명사 53 선지식 법회에서 ‘부자학 박사’ 한동철 교수가 법사로 나서 ‘부자되는 법’을 주제로 강의했다.

독실한 기독교인인 한 교수가 법회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법회를 기획한 성문 스님의 지론 덕분이다. 성문 스님은 “우연히 한 교수의 강의를 듣고, 부자가 되기 위한 방법이 부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을 느꼈다”며 “종교적 색채를 고집하지 않고 어떤 분야든 그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한 교수를 초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부터 매월 첫째, 셋째 주 일요일에 봉행되는 ‘53 선지식 법회’에는 스님 뿐 아니라 각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저명인사들이 연사로 초청된다. 그동안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시작으로 소설가 한승원, 삼성증권 우승택 지점장, 코미디언 백남봉, 사진작가 김중만씨 등이 강단에 섰다. 성문 스님은 “승속을 막론하고 자기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시대의 참된 스승이고 선지식”이라며 “선재동자의 구도정신을 현대에 맞게 재현해 우리 사회 각 분야의 선지식들에게 삶의 지혜를 얻도록 법회를 마련했다”고 법회 취지를 밝혔다.

지역 불자들에게 새로운 법회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선지식 법회에는 앞으로 정신과 의사 이시형 박사(4월 20일), 중앙승가대학교 총장 종범 스님(5월 4일), 프로골퍼 한명현 선수(5월 18일), 원광디지털대학교 얼굴경영학과 주선희 교수(6월 1일), 한국일보 방민준 논설위원(6월 15일) 등이 법사로 나서게 된다.

지난 1년여 간 법회를 이끌어 온 성문 스님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덕분에 사부대중의 참여가 날이 갈수록 늘고 있다”며 “53 선지식의 높은 식견과 경륜, 진솔한 삶의 지혜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므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회는 누구나 무료로 참석 가능하다.(041)522-3362

손효선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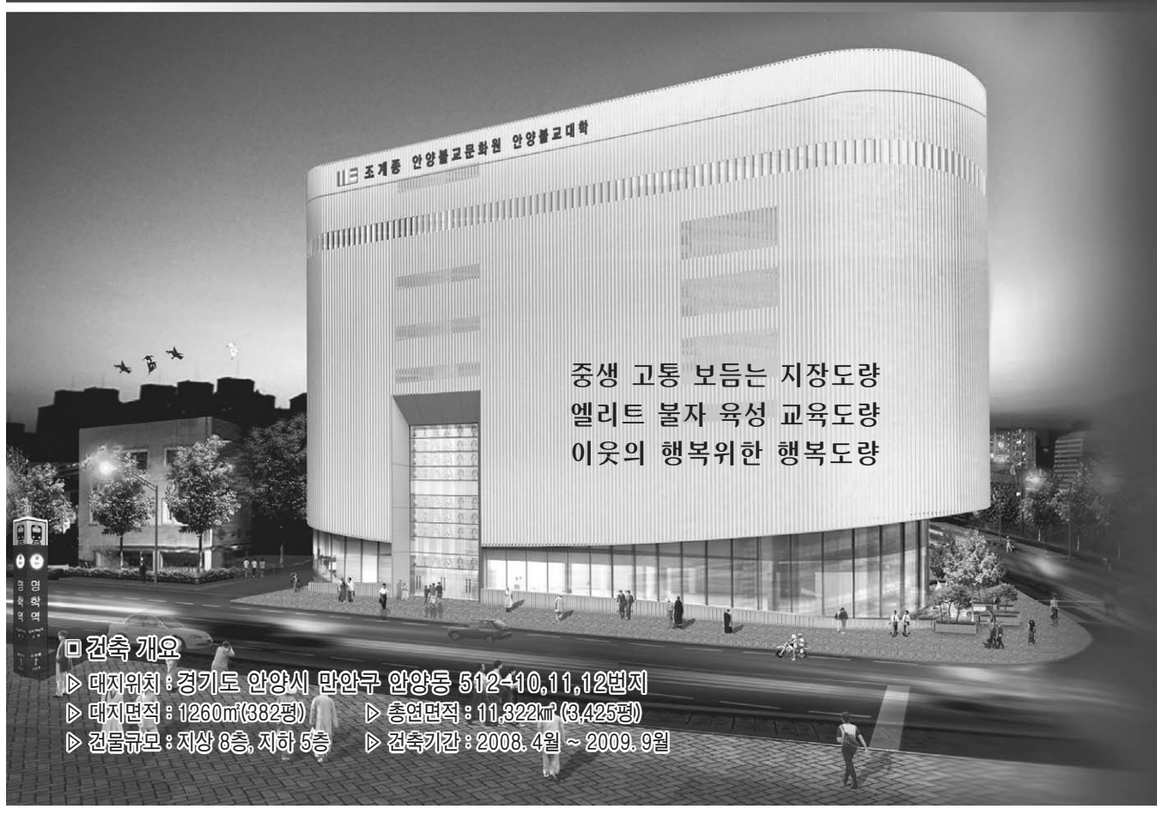
## 봉은사 ‘2008 공개특강’

서울 봉은사(주지 명진)가 역사 문화 등 사회 제반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보는 전문가 초청강연 ‘2008 공개특강’을 마련한다.

첫 번째 순서인 4월 25일 오후 7시에는 1962년 당시 숭례문 중수공사 감독관이었던 목수 신영훈씨가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주제로 강의한다. 강의는 보우당에서 진행되며 참가비용 없이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02)3218-4810

여수령 기자


# 조계종 안양불교문화원 · 안양불교대학 신축불사 안내




□ 건축 개요
▷ 대지위치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512-10,11,12번지
▷ 대지면적 : 1260㎡(382평) ▷ 총연면적 : 11,322㎡(3,425평)
▷ 건물규모 : 지상 8층, 지하 5층 ▷ 건축기간 : 2008. 4월 ~ 2009. 9월

귀의 삼보 하옵고
지장선원 · 안양불교문화원 · 안양불교대학은 불타의 혜명과 조계종 종지를 봉대하며 불타의 가르침에 대한 올바른 진법과 불자님들의 교육 및 사회 복지 사업을 위하여 신축불사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극락정토 안양국에 세워질 도심속의 전법도량 신축불사에 무루 동참하시어 무량한 복덕 지으시고 세세생생 부처님 품안에서 구경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원불봉안 및 불사에 동참하신 분들께는 돌아가신 후 영구위패를 봉안하여 사십구재와 기제사, 명절차례를 세세생생 모셔드리며 공덕비에 이름을 새겨 매일 천도 기도해 드립니다.

불자님들의 정성어린 한통의 전화로 신축불사가 이루어집니다.
■ 안양불교문화원 ARS 신축불사후원금 060-707-1032 (원·삼·하)
원불봉안, 탱화, 수미단, 닷집, 법상, 법종, 향로, 촛대, 불상 등의 불사도 가능합니다. ■ 신축불사상담 1588-1936
■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5-401-248474 안양불교문화원
국민은행 620601-01-131405 지장선원
농 협 170888-51-025398 안양불교문화원
■ 홈페이지 : www.abccenter.or.kr ■ E-mail :abccenter123@hanmail.net

조실 지관 회주 세민 주지 현호 신도회장 심정구 수석고문 이필상

# "부처님 오신 뜻, 광명의 '燈'으로"

## 5월 9일~10일 봉축, 부산시민연등축제


부산 불자들은 매년 보다 새롭게 봉축행사를 준비한다. 사진은 지난해 부산 봉축행사 모습.

부처님의 지혜광명을 상징하는 광명등이 불교수도 부산을 수놓는다.

불기 2552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부산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회장 정여)는 5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 간 문현금융단지에서 '부산시민연등축제'를 봉행한다. 지금까지 봉행해온 봉축 행사와는 달리 기간과 행사 방법, 다양한 연령층이 참가할 수 있는 부대행사 등 변화를 모색해 한 층 더 발전한 모습을 보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산시민연등축제는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불자들 뿐 아니라 부산 각 지역의 시민들과 나누고 참여자들의 정서함양을 위해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대폭 늘려 시민 축제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로 시작됐다.

9일 전야제에서는 34종 100여 마리의 동물을 준비한 신나는 이동 동물원과 전통 연날리기 및 만들기, 청소년 문예 대전 등이 지역 아동 및 청소년들을 위해 준비된다. 또한 각 사찰의 합창단들이 참여해 부산불교합창제를 개최한다. 부산불교연합회 합창단 지휘를 새롭게 맡은 정성민 교수는 "봉축 행사를 위해 모든 곡을 새롭게 준비하고 연습에 돌입했다"며 "각 사찰에서 활동하는 합창단들이 참가해 장엄하고 아름다운 찬불가가 울려 퍼질 것이다"고 말했다.

10일에는 오후 2시 식전 축하공연 및 108배 정진기도를 봉행한다.

봉축연합대법회는 오후 5시에 봉행하며 법회 후 제등행진은 문현금융단지를 출발해 불교신협 앞, 범냇골 로터리, 서면 로터리, 서면 밀리오레 앞, 전포로, 문현금융단지 순으로 순환코스거리는 약 4Km이다. 봉축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순환 코스는 부산 진시장, 평화시장 등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 요지이다"며 "제등행렬 시 관람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소요 시간은 1시간 30분 정도로 예상하며 지난 봉축행사와는 달리 제등 행렬 후 해산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연등축제 회향 공연 '다함께 하나 되어'를 오후 9시 개최해 화합의 장을 마련한다.

특히 봉축위원회는 '숭례문 등'을 가로 7m, 세로 4.5m로 제작해 대표 등으로 삼는다. 봉축위원회 관계자는 "숭례문 등을 보며 슬픔을 잊지 말고 재도약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다"고 밝혔다.

한편, 봉축점등식은 4월 29일 오후 6시 부산역 광장에서 봉행한다. (051)867-0501

하성미 기자 hdbp@hanmail.net

| 날짜 | 행 사 |
|---|---|
| 4월 29일 | 봉축점등식 |
| 5월 9일 | 전야제, 이동동물원,청소년문예대전<br>전통연날리기, 부산불교합창제 |
| 5월 10일 | 식전축하공연, 108배 정진기도<br>봉축연합대법회, 제등행진<br>시민연등축제회향<br>공연 '다함께 하나 되어' |

## "종교편향 경남일보 구독거부"

### 경남지역 불교계 16일 항의집회

지역 일간지 경남일보가 '사고(社告)'를 통해 특정 종교의 진주 중계소설치를 위한 서명운동을 펼쳐 물의를 빚은 가운데, 지역 불교계를 중심으로 대책위원회가 결성돼 경남일보 구독거부 운동에 나섰다.

대책위에는 해인사와 쌍계사 등 교구본사를 비롯해 사천 · 함양 · 합천 · 진주사암연합회, 경남불교협의회, 경남신도회, 진주불교단체협의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앞서 4월 3일 진주 연화사에서 회의를 열어 경남일보구독거부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장에 혜일 스님을 선출했다.

대책위는 "지역여론을 올바로 선도해야할 경남일보가 기독교 선교방송의 진주 중계소설치를 위한 서명운동을 주최하여 지역간, 도민간, 종교간,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며 "일간지가 본분을 저버리고 편향적으로 기독교 교세확장에 앞장서고 있다"고 구독거부 이유를 밝혔다. 대책위는 경남일보 구독거부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홍보 스티커와 플래카드 부착, 홍보물 배포 등의 활동을 펼쳐나간다는 방침이다. 4월 16일 오후 2시 항의집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경남일보는 지역 불교계에서 문제를 지적하고 강력 대처 입장을 밝힌 직후 홈페이지에 게재한 '극동방송 진주 중계소 설치 10만명 서명운동' 사고를 삭제했다. (055)743-2293 여수령 기자

## 부산·경남 인재 불사 행진


해동원효장학재단에서 4월 7일 해동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부산 경남 일대에서 인재불사 소식이 연달아 이어져 훈훈한 감동을 남기고 있다.

4월 6일 동울산사암연합회(회장 동파) '반야장학회'는 울산 동축사에서 장학금을 지급했다. 반야장학회는 사암연합회를 구성한 후 회원스님들이 고심끝에 발족한 장학재단으로 창립 이후 11년 동안 끊임없이 활동해왔다. 현재 반야장학회는 각 지역에서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12명을 선발해 매해 상 · 하반기 두 번에 걸쳐 장학금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반야장학회만이 아니다. 인재불사를 강조하며 부산에서도 장학재단 설립을 위한 새바람이 불었다.

부산 초읍 불광사(주지 보광)는 4월 6일 '장학금기금 마련 나눔장터'를 마련하고 지역민들을 초대했다. 바자회는 불광사 신도 뿐 아니라 각 지역에서 불교용품을 판매하는 참가자들과 특히 서울에서 찾아온 중국차 전문 판매점 연화정도 방문하는 등 전국 각지에서 참여해 이목을 끌었다. 또한 무료 헤어컷, 어린이 사물놀이, 먹을거리 판매 등 다양한 이벤트로 휴일 가족과 함께 방문한 참가자들의 흥을 돋우었다. 주지 보광 스님은 "올해를 기점으로 매해 장학금 마련을 위해 바자회를 개최하고 인재불사에 도움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자회를 통해 모은 장학금은 부산 초연중학교에 전달했다.

부산 경남에서 활동하는 15명의 도반스님들이 모여 해동고등학교 후원 장학재단 '해동원효장학재단'을 설립하고 4월 7일 해동고등학교 제71회 개교기념일을 맞아 장학금을 전달했다. 울산 성불사 주지 석연 스님을 비롯한 회원 15명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해동고등학교 학생 15명을 선발해 일대일 결연관계를 맺고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지원할 뿐 아니라 유발상좌와 같은 개념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한다.

하성미 기자

불국토를 찾아서

거제 마하병원

## "재활 치료 넘어 마음치료까지"

사단복지법인 내원(대표이사 정련)에서 운영하는 거제 마하병원은 푸른 숲 그대로 자연과 함께 어울려 최첨단 장비들을 가지고 환자를 위해 봉사하는 재활전문병원이다. 작년 3월 의료진이 취약했던 거제에 농어촌 사람들을 위한 전문 재활병원이 들어섰다. 거제에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농어촌 주민들을 위해 1여년을 활동한 마하병원이 이젠 가족과 같은 사랑으로 마음치료에도 나서겠다는 다짐이다. 이 같은 다짐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 환우를 위한 음악회와 봄 소풍.



마하병원은 개원 1년 및 봉축을 맞아 '점등식'과 환우들을 위한 '음악회 및 노래자랑'을 4월 17일에 오후 7시에 개최한다. 음악회에는 거제에서 일하고 있는 삼성중공업 자원봉사단 밴드부가 나서 음악회를 열어 더욱 의미가 깊다. 종교를 초월해 병마에 시달려 몸과 마음이 지친 환우들을 함께 위로하고 치료하고자 마음을 모은 것이다.

또한 5월에는 매물도 학동 해수욕장에 환우들과 함께 봄 소풍을 갈 예정이다. 지친 환우들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며 희망을 만들고 의욕이 더욱 넘쳤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다. 직원들과 자원봉사자, 환자 모두 어울려 200여명이 동참할 예정이다.

마하병원 오정림 실장은 "개원하고 일 년 동안 중풍과 장애로 고통받는 환자와 가족의 마음을 지켜보았습니다. 배려가 가장 중요한 원칙이며 자비의 마음이 우리 활동의 근본입니다. 이번 음악회와 봄 소풍은 자비 실천을 위한 작은 시작입니다."

오정림 실장은 마하병원을 설립한 이유도 존재 이유도 단호히 자비라 말한다. 자비 실천을 위한 또 하나의 시작, 환우들을 위한 봄 축제는 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었다.

"자비는 실천입니다. 마하병원의 환우들이 더욱 건강하고 밝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되어 퇴원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병원에 계시는 동안에도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픈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모두 부처님의 자비 안에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마하병원은 작년 3월 10일 개원한 교계 최초 재활전문병원으로 뇌졸중을 비롯한 머리 및 척추 손상을 입은 교통사고 환자, 산업재해근로자, 만성 노인 질환자등을 치료하고 있다. 최첨단 의료장비와 다기능 치료실, 운동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열전기 치료 등 다양한 치료 시설을 구비하고 있다. 특히 골밀도측정기, 6way X선 촬영기, CPS(집중치료실) 등을 보유해 첨단 치료시설을 자랑한다. 또한 치료실이 채광과 조망 효과를 가장 잘 살려 생명력 넘치는 병원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 거제 마하병원 개원 1주년 맞아 도약 환우들이 건강하고 밝게 사는것이 바램

하성미 기자




봉 대한불교법상종 수락산 아미타 기도도량 천문사 행

극락보전 낙성 및 아미타불 점안 대법회



모시는 글

수락산 아미타 기도도량 천문사가 사부대중의 원력을 모아 불사를 원만 회향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많은 공덕으로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자비로운 5월에 원만 회향을 축하하는 극락보전 낙성 및 아미타불 점안 대법회를 봉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공사다망 하시더라도 부루 동참하시어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천문사 주지 진성 합장

법 회 안 내

- 일 시 : 불기 2552(2008)년 5월 3일(음, 3월 28일) 토요일 오전 10시
- 장 소 : 천문사 극락보전 (서울 노원구 상계 1동 1000-7번지)
- 문 의 : 02)936-9736 / 011-307-3130




대한불교법상종 수락산 아미타 기도도량 천 문 사

## 광주 금남로 한마당

### 2008 빛고을연등축제 일정 발표

| 행사명 | 일 시 | 시 간 | 장 소 |
|---|---|---|---|
| 3보1배 | 4월25일(금) | 오후 6시 | 금남로 |
| 점등식 1 | 4월25일(금) | 오후7시 | 문화전당앞 |
| 점등식 2 | 4월28일(월) | 오후6시30분 | 광주광역시청 |
| 어울림마당 | 5월 5일(월) | 오후1시 | 광주공원 |
| 연등법회 | 5월 5일(월) | 저녁6시 | 광주공원 |
| 제등행진 | 5월 5일(월) | 저녁7시 | 분광주공원 출발 |
| 대동한마당 | 5월 5일(월) | 저녁8시20분 | 문화전당앞 |

광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정인)와 광주 · 전남봉축위원회(회장 성오)는 4월 7일, 2008 빛고을 연등축제 일정을 발표했다.

빛고을 연등축제는 4월 25일 금남로에서 3보1배 행사를 시작으로, 문화전당 앞 점등식, 28일 광주시청 앞 점등식 등 다양한 부대행사와 함께 진행된다. 연등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제등행진은 5월 5일 저녁 7시 광주공원에서 출발해 금남로를 거쳐 문화전당 앞에서 대동한마당으로 회향한다.

3보1배 정진은 2013년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와 티베트의 평화와 안식을 기원해 열린다. 문화전당 앞에서 열리는 점등식은 풍등 날리기를 비롯해 불꽃쇼와 탑돌이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자랑이다.

5월 5일 대동한마당 행사는 전통등과 장엄물의 제등행렬 도착과 함께 시작된다. 봉축 무용과 노래, 인기 가수 공연과 청소년 댄스팀 공연 등이 펼쳐지며 불꽃과 레이저쇼가 밤하늘을 장엄한 가운데 강강수월래로 마무리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군산 상주사 개금불사 점안식



군산 상주사(주지 도연)는 4월 8일 대웅전 삼존불 개금불사 점안식 및 불사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점안식 증명법사로는 원행 스님(금산사 주지)이 참석했고, 무상 스님(법주사 부주지), 도안 스님, 법담 스님(은적사), 우성 스님(불주사), 법희 스님(흥천사), 김용화 전북도의원, 안근 군산불교신도연합회장 등 사부대중 200여명이 동참했다.

원행 스님은 법어에서 "부처님의 옷은 법의라 하여 변하지 않지만 부처님 옷을 바꿔드리는 개금은 불자들 마음을 청정하게 하여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도연 스님은 "상주사를 수행과 기도와 전법의 도량으로 가꿔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빠른 대처가 천불천탑 살렸다"

### 4월 6일 화순 운주사 산불로 점검한 방재대책

4월 6일 오후 2시경, 천불천탑(千佛千塔)으로 유명한 화순 운주사(주지 정행) 인근에서 발생한 산불은 사찰 방재대책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강한 바람에 불길은 사찰 안까지 번졌지만 운주사 대중의 발빠른 대처 덕에 보물 제796호 9층 석탑, 보물 제797호 석조불감, 보물 제798호 원형다층석탑, 부부 와불 등 문화재 피해 없이 야산 5ha만을 태웠다. 운주사 대중들은 산불에서 어떻게 천불천탑을 살렸을까? 운주사 문제희 종무실장에게 당시 상황을 들었다.

산불 발생 20여분이 채 못돼 불길은 연기와 함께 운주사 입구 쪽 화장실 인근까지 번졌다. 산불 인지와 동시에 운주사 대중과 신도 등 누구 할 것 없이 119에 화재신고했다. 정행 스님으로부터 유선으로 방재 지시가 내려왔다. 우선 폭발위험이 있는 공양간과 다실의 가스 밸브를 잠그고, 가스통을 분리해 사찰 전각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텃밭에 이동시키라는 것. 정행 스님도 나서 가스통을 옮겼다. 그리고 대중은 정행 스님의 지시에 따라 사찰에 설치된 옥외 소화전 6개를 작동해 대웅전 인근 야산에 물을 뿌렸다. 처음에는 산불이 번지는 것을 막아보려 했다. 하지만 바람이 워낙 강해 역부족이었다. 대웅전 등 전각을 지켜야한다는 정행 스님의 지시에 모두 대웅전을 향해 물을 뿌렸다. 이후 우선순위에 따라 지장전, 산신각, 종무소, 다실, 객실 순으로 물뿌리기를 진행했다. 운주사 대중의 물뿌리기로 불씨는 대웅전 등 전각에 근접하지 못하고 인근 야산만 맴돌았다.



운주사 와불. 불씨가 와불 바로 앞까지 와 당시의 급박했던 상황을 보여준다.

운주사 대중이 가스통을 나르고 물 뿌리기 시작한지 30여분쯤 되 방화수로 준비된 20여톤이 거의 소진될 무렵 소방대원, 산불진화대원이 헬기 7대, 소방차 18대 등을 몰고 순차적으로 도착해 본격적인 진화작업에 나섰다.

당시 화재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운주사 대중의 발빠른 대처가 천불천탑을 살렸다고 말한다. 문 실장은 "평소 먼지가 날릴 때마다 물을 뿌렸던 경험이 화재시 소화전을 다루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운주사에서는 1년에 2회씩 방재훈련을 실시해 대중들의 방재시설 조작이 능숙한 것이 위기상황시 큰 도움이 됐다.

화순군의 공공근로 숲가꾸기도 한몫 했다. 당시 산불을 목격한 사람들은 "불씨가 강한 바람에 사찰 건물로 옮겨 붙을 태세였지만 이상하게도 불씨는 사찰을 비켜났다"고 말했다.

정행 스님은 "지난해와 올해 두차례 화순군(군수 전완준)에서 운주사 인근의 잡목과 덤불 등 탈만한 것들을 모두 제거한 탓에 불길이 다가올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 실장은 "대개 간벌한 잡목을 방치해 두는 데 지난 겨울 정행 스님의 지시로 운주사 대중들이 모두 산 아래로 치웠다"며 '공공근로 숲가꾸기'는 물론 간벌 후 주변을 정리하는 후속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라 도선 국사가 창건한 것으로 알려진 운주사, 주지 정행 스님과 대중들의 침착한 대응이 없었다면 제2의 낙산사, 숭례문이 될 뻔 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mybuda@naver.com

## 아시아인 하나된 문화나눔 잔치 열려

### 4월 5일 아시아예술인한마당 개최




아시아예술인들이 광주에 모여 나눔의 잔치를 열었다. 4월 5일 광주 인도박물관에서 인도 짚시 예술인 바울팀과 인도영화음악 볼리우드 댄스 그리고 전통타악기 얼쑤팀이 모여 교류행사를 열었다.

광주아시아문화교류재단(이사장 현장)이 주최로 아시아예술인들의 공연과 함께 전통사찰음식 시식회와 인도직물자수 전시회, 황인옥의 생활도자기 전시회 등이 열렸다.

현장스님(사진)은 "아시아문화예술인들의 교류를 통한 소통은 아시아민족이 서로 이해하고 함께 공동번영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한 팔만 뻗으면 우리는 가족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아시아문화교류재단은 25~26일 양일간 인도 예술단, 네팔, 필리핀 예술가들이 모여 '아시아문화주간' 행사를 열고 아시아 각국의 전통문화를 선보일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광주불교환경연대 창립

광주전남지역 불교환경운동을 견인할 광주불교환경연대가 4월 19일 광주 무각사에서 창립된다.

그동안 서울, 경기, 강원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불교환경연대가 광주전남 지역에 뿌리 내리게 되는 이번 광주불교환경연대 창립은 서울 불교환경연대의 지부 형태로 개설돼 전국단위의 불교환경 조직으로써 힘찬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

광주불교환경연대 준비위원장을 맡은 법일 스님(완도 신흥사 주지)은 "대운하 저지에 힘을 쏟는 것은 물론, 교육 및 실천을 통한 다양한 불교환경 사업들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062) 223-3623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우리지역 부루나 존자

익산 대원회

# "봉사 필요한곳 어디든가요"

"몸은 힘들어도, 봉사 후 돌아서는 발걸음은 새털처럼 가볍답니다."

전북 익산에는 자원봉사라면 무엇이든지 발 벗고 나서기로 유명한 봉사모임이 있다. 대원회라는 봉사모임이 그것. 대원회는 15명 작은 인원으로 전북불교회관 내 무료급식소 봉사를 시작해 탄생한지 5년여된 단체다.

설립 즈음인 2003년 5월부터 바로 익산시 자원봉사센터에 정식 등록해 자원봉사가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 열심히 봉사하는 불자 봉사단으로, 초대 백상래 회장, 2대 이순옥 회장, 3대 최영순 회장, 4대 김덕순 회장 5대 문여주 회장(사진)으로 이어지는 동안 어느덧 회원수 71명의 탄탄한 불교봉사단체로 자리 잡았다.



매월 회원 1인이 5000원씩 내는 회비로 대원회는 독거노인, 장애인 가족, 소년소녀가장 등 총 32가족에게 매월 반찬 3가지씩을 준비해 정성껏 전달한다. 전해지는 반찬은 김치를 비롯해 돼지불고기, 오징어 젓갈무침, 멸치조림 등으로 맛과 영양을 고려한 대원회의 정성이 듬뿍 담겨있다. 대원회는 군산교도소, 군부대 법당, 양로원 등도 수시로 방문해 필요한 물품 및 간식을 전한다.

대원회 회원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나서기를 꺼린다는 것. 연신 "잘한 것도 없는데…" "봉사한지 오래 되지도 않았다"며 손사래를 친다. 이와는 반대로 봉사활동에 대한 회원들의 열정과 자부심은 대단하다.

대원회의 활발한 활동은 회원들의 수상 경력으로도 증명된다. 문여주(선덕화) 회장 때인 2005년에는 익산시 자원봉사 한마음대회에서 도지사상을 수상했다. 현재 총무를 맡고 있는 박옥숙(반야심) 보살은 자원봉사 공로를 인정 받아 익산시장상을 수상했다. 4대 회장을 역임한 김덕순 보살은 자원봉사 수기 사진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 익산시 자원봉사 박람회에서는 대상을 차지하기도 했다.

대원회는 2003년 백혈병으로 사경을 헤매는 고등학생을 위해 바자회를 개최해 수익금 1000만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당시 회장이던 김덕순보살은 "회원들과 함께 직접 떡장사는 물론 각 사찰 법회 때마다 불자들에게 참기름, 양말, 차, 귤 등을 팔아 백혈병 성금을 마련했다. 골수 기증자를 쉽게 만나 이식수술 후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 학생을 보면서 가장 큰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대원회가 지역에서 이름이 알려지면서 많은 지원요청이 들어오지만 어려운 재정형편에 일일이 들어주지 못하는 것이 가장 안타깝다"는 문여주 회장은 후원자들의 후원이 이어지길 기대했다.

종교를 초월한 후원자들의 관심과 어려운 이웃을 대하는 아낌없는 대원회 회원들의 봉사는 관세음보살이 현현한 모습 그대로였다.

### 15명으로 시작 71명 탄탄한 봉사단체
### 자원봉사 공로 인정받아 각종 수상해

조동제 전북지사장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 전북지사 : (063)910-5199



# 한국 근현대 격랑을 헤친 보살



## 석주 큰스님과 한국불교

### 석주 스님 탄신 100주년 기념 학술회의

오탁악세의 말법 시대는 기본을 지킨 것만으로도 만인의 귀감이 되는 시절이다. 감기로 40도 가까운 고열에도, 갈비뼈를 다쳐 붕대를 감고도 단 하루 새벽 예불조차도 거르지 않던 석주 스님(1909~2004)은 '평상심이 도'인 것을 생활로 실천했던 선지식이었다. 정화·포교·역경·교육 불사 등 현대 한국불교의 팔방미인이었던 석주 스님의 탄신 100주년을 맞아 석주 스님의 사상과 생애 등을 학술적으로 회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008년 4월 8일 석주정일 대종사 문도회(대표 월호)와 한국불교선리연구원(원장 법진)이 한국언론재단 국제회의장에서 '석주 큰스님과 한국불교'를 주제로 학술회의를 열었다.

**# 근현대한국불교의 선지식**

송운 스님(보문사 주지)은 '석주 큰스님의 생애와 사상' 발표에서 '탄생-성장-출가-구도-오도-이타행-열반'의 승전(僧傳) 구도에 맞춰 석주 스님의 생애를 재구성했다.

송운 스님은 "석주 스님이 탄생한 1909년은 우리 민족이 정치·경제적인 고통으로 신음하던 때였다. 일제 강점기에 어린 시절을 보내며 석주 스님은 자연스럽게 애국, 애족 의식을 키웠을 것"이라며 "이때 싹튼 민족 불교 사상이 왜색 불교청산을 비롯한 정화불사, 평생 보살행으로 실현됐다"고 주장했다.

석주 스님의 학문적 열정과 서예 능력과 관련해 송운 스님은 "석주 스님이 출생한 경북 안동은 예로부터 도학과 묵향이 유명했던 곳이며, 출생지 인근 봉서사는 석주 스님에게 불교적 영향을 끼쳤다. 경북 안동이라는 공간적 배경은 학문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가지게 했다. 한학에 대한 조예는 석주 스님이 역경 불사를 일으키는데도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운 스님은 "석주 스님은 검소하고 순수한 품성으로 선학원 시절에는 절 살림을 알뜰하게 꾸렸고, 평생 청정수행 했다"며 석주 스님의 생애가 바로 한국근현대불교사임을 보였다. 한편 송운 스님은 "석주 스님의 불사를 정화 불사와 어린이·청소년 포교, 교육 불사, 역경 불사로 나눴다.

**# 종단개혁의 발아**

송운 스님은 "불교정화운동은 일제에 의해 왜곡되고 침탈된 수행풍과 사찰재산권을 회복하자는 것이다. 본격적인 의미에서 불교정화운동은 선학원 운동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홍윤식 소장(동국대 일본학연구소)은 '석주 큰스님과 종단개혁불사' 발표를 통해 "한국불교교단의 개혁정신은 석주 큰스님에 의해 발아돼 꾸준한 실천이 있어왔다"고 주장했다.

홍 소장은 주장의 근거를 "오늘날 한국 불교가 지향하는 ▲청정 출가정신 ▲대중불교 중흥 ▲불교의 자주화 등 개혁의 방향성이 석주 큰스님의 행장에 폭넓게 발견되고 있다"고 들었다.

**# 인재불사로 대표되는 보살의 화신**

송운 스님은 "1965년 칠보어린이회와 불교칠보어린이 합창단과 소년교화연합회 등 조직을 석주 스님이 창설했다. 이로부터 어린이·청소년 대상의 포교사업이 활성화됐다"고 말했다.

'석주 큰스님과 교육불사'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선근 교수(동국대)는 송운 스님의 논지에 구체적인 실증을 더했다. 김 교수는 석주 스님의 사상을 자실인의(慈室忍衣)·무상행(無相行)·화안애어(和顔愛語)·오유지족(吾唯之足)으로 설명하며, "석주 스님은 하화중생의 방편으로 교육불사를 실천한 보살"이라 칭했다. '자실인의'는 <법화경> 법사품의 교설로 '자비의 집, 인욕의 옷'을 뜻한다. 모든 생명을 자비의 마음으로 대하며, 인욕바라밀 수행을 통해 죽는 날까지 자비를 배우고 익히고 실천해야 한다는 말이다.

'무상행'은 집착함 없이 참여해 스스로 이분법의 상(相)을 여의는 행이다. <금강경>의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應無所住 而生其心)' 등에 해당한다. 김 교수는 "무상행은 마치 연꽃이 진흙에 머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 것과 같은 행위로, 석주 스님은 무상의 교설을 자신의 인격과 생활 속에 구현한 분"이라 말했다.

'화안애어'는 <금강경>의 무상(無相)한 진리로 마음과 행동을 태양처럼 밝은 마음, 밝은 얼굴, 밝은 표정으로 사랑스런 말을 하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화안애어는 보살이 중생을 대하는 표정"이라며 <화염경>이 설하는 보현행원과 같다고 설명했다.

나는 만족을 알 뿐이라는 '오유지족'은 석주 스님이 평소 휘호를 쓸 적에 자주 쓰던 말이다. 석주 스님의 '오유지족' 휘호는 '口'를 가운데 두고 위로 '吾' 아래로 '足' 오른쪽으로 '唯' 왼쪽으로 '知'를 써 독특한 배열로 구성됐다. 김 교수는 "오유지족은 수분지족으로 석주 스님의 도심세계를 보여 준다"고 말했다. 수분지족은 자기의 분수를 지키고 자기 생활에 만족하는 것을 뜻한다.

김 교수는 석주 스님의 교육불사를 ▲어린이회 육성불사 ▲청소년교화연합회 육성불사 ▲중앙승가대학 육성불사로 나눠 설명하며, "조계종의 도제양성·포교·역경의 3대사업에 가장 헌신적으로 실천하신 분이 석주 스님"이라고 역설했다.

**# 전방위적 포교활동**

인재·교육불사에 이어 석주 스님의 포교활동도 주목받았다. 고명석 연구원(조계종 포교원)은 '석주 큰스님의 포교활동' 발표에서 "석주 스님은 설법과 강의 등 직접포교 뿐 아니라 문화·복지 등을 활용한 간접포교의 중요성도 인식해 전방위적 포교를 아우른 분"이라고 말했다. 고명석 연구원은 "석주 스님의 포교영역은 각종 법회는 물론 문서포교, 교육포교, 복지포교, 어린이·청소년포교, 청년포교, 군장병·재소자 등 특수계층 포교, 문화포교, 미디어포교, 수행력을 통한 포교 등 일일이 거론하기 힘들 정도로 많다"며 석주 스님의 포교활동을 정리했다.

고 연구원은 "석주 스님의 포교원력과 역정에서 수행과 포교가 둘이 아니라는 점과 도심포교가 중요하다는 점, 포교를 위해 신명을 바치는 자세를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국불교근현대사의 주역**

법진 스님(한국불교선리연구원 원장)은 '석주 큰스님과 한국불교근현대사' 발표에서 "세수 96세로 열반한 석주 스님의 삶은 혼란과 격동기로 점철된 한국 근현대불교사의 중심에 있다"고 말했다. 법진 스님은 "석주 스님은 해방 전, 선학원에서 대승불교운동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해방 후에는 불교혁신운동에 적극 활동했다. 불교정화운동에서는 사찰 재정 공개, 종단목적불사 추진, 인사위원회 설치 등의 과제를 제시한 불교개혁의 선구자였다"며 한국 근현대사 격랑 속에 중심추로 우뚝 섰던 석주 스님의 삶을 재정리했다.

법진 스님은 "1971년, 1978년, 1984년 세차례나 총무원장을 역임하는 등 역사의 정점과 격란의 끝에서도 석주 스님은 아무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며 영명연수 선사 문집의 서문으로 끝맺었다.




석주 스님 탄신 100주년을 기념해 4월 8일 한국언론재단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학술회의에는 월호 스님(석주정일 대종사 문도회 대표)과 현해 스님(전 동국학원 이사장), 정우 스님(통도사 주지), 영담 스님(BBS이사장) 등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박재완 기자

서리와 소나무 같은 지조로 자신을 정제하고
물에 담긴 달처럼 마음을 비우고 사람을 대하라

한편 석주 스님의 탄신100주년 학술회의는 근현대한국불교의 주역으로 살았던 석주 스님의 행장을 학술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하지만 원명 법사(원명사 주지)가 송운 스님의 '석주 큰스님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논평에서 밝혔듯이 "평소 큰스님이라는 호칭도 달가워하지 않았던 석주 스님이 '석주 큰스님과 한국불교'라는 거창한 행사로 진행된 것을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의문이 남았다. 또 원로스님이 입적할 때마다 각 문도회가 세를 자랑하듯 벌이는 행사보다 종단 차원에서 공의와 공론을 통한 학술적 정리가 필요하다는 과제도 남겼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 운암 선생 공훈선양 학술강연회

### 한상도 교수 '승려에서 임시정부 요인으로' 발표



4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된 운암 김성숙 선생(태허 스님·사진)의 독립운동 활동을 살펴보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회장 이해찬)는 4월 25일 서울 서대문독립관 무궁화홀에서 '4월의 독립운동가 김성숙 선생 공훈선양학술강연회'를 개최한다.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가 주관하는 이날 학술강연회에서는 한상도 교수(건국대)가 '승려에서 임시정부 요인으로'를 주제로 발표한다. 강연회와 함께 기념사진전도 개최한다. 기념사업회는 앞서 4월 12일에는 서울 국립현충원 현충관에서 김성숙 선생 서거 39주기 추모제를 봉행했다. 추모제에는 봉선사 주지 인묵 스님과 국가보훈처 류찬수 남부보훈지청장, 광복회 김국주 회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1898년 평안북도 철산에서 출생한 운암 선생은 1916년 경기도 용문사로 출가해 월초 스님으로부터 '성숙(星淑)'이라는 법명을 받았다. 3·1운동이 일어나자 항일운동에 나서 재중국조선청년총연맹, 조선민족전선연맹 등을 조직했다. 이후 임시정부 내무차장, 국무위원을 거쳐 광복 이후 재야통합야당인 신민당의 지도위원을 역임했다. 선생의 유해는 2004년 국립묘지에 안장됐다.(02)391-9100

여수령 기자

'우리 학회는' 쉽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사리 400여과, 10대제자를 비롯한 500아라한의 사리 2,000여과, 한국의 성철 큰스님을 포함한 세계 고승들의 사리 등 총 39위(位)의 사리 3,000여과를 친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삼세 부처님의 가피와 함께_부산·경남 불자를 위한

# 부처님 진신사리 부산 전시회

2008. 4. 18~4. 23 오전 10시 ~ 오후 10시

|장 소| 대한불교조계종 범어사해운대포교원 반야원

【사리친견 개원법회】 증명법사 : 범어사 주지 정여 큰스님
2008. 4. 17 오후 3시

|주 최| 마이트레야 프로젝트 인터내셔널
(www.maitreyaproject.or.kr / www.maitreyaproject.org)
|주 관| 대한불교조계종 범어사해운대포교원 반야원
|문 의| 반야원 T. 051) 701-5655
|후 원| 부산불교연합회, 부산불교신도회, 불교TV, 부산불교방송, 불교신문, 현대불교신문, 법보신문
※ 반야원 오시는길 : 지하철 장산역 4번출구에서 도보로 2분 거리에 있습니다.

# 제18대 국회의원 불자 당선자 <가나다 順>

## 지역구 당선자



무소속 **강길부**(65세) (울산 울주)

재선
서울대 환경대학원 도시계획학 석사
제17대 정각회원



무소속 **김태환**(64세) (구미을)

재선
연세대 정치외교학
제17대 정각회원



한나라당 **신상진**(51세) (성남 중원구)

재선
서울대 의대
조계종 중앙신도회 지도위원



한나라당 **이계진**(61세) (원주시)

재선
고려대 국문과
조계종 중앙신도회 지도위원



한나라당 **장윤석**(58세) (영주시)

재선
한양대 법학박사
당인권위원장
제17대 정각회원



한나라당 **허원제**(56세) (부산 진구갑)

초선
서울대 정치학과
SBS 이사



**배은희**(48세)

초선
뉴욕주립대 세포분자 생물학 박사
벤처기업인



한나라당 **강석호**(52세) (영양 · 영덕 봉화 · 울진군)

초선
한국외대 스페인어과
삼일그룹재단 이사장



한나라당 **김학송**(55세) (진해)

3선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제17대 정각회원



한나라당 **신성범**(44세) (산청 · 함양 · 거창)

초선
서울대 인류학과
KBS 기자



민주당 **이광재**(43세) (태백시 · 영월 · 평창 · 정선)

재선
연세대 법학과
제17대 정각회원



한나라당 **정갑윤**(57세) (울산 중구)

3선
울산대 산업관리 공학석사
조계종 중앙신도회 지도위원



한나라당 **현기환**(48세) (부산 사하구갑)

초선
연세대 행정학과
한나라당 부대변인



**이은재**(56세)

초선
클레아몬트대 행정학 박사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민주당 **강창일**(56세) (제주시갑)

재선
일본 도쿄대 박사
조계종 중앙신도회 지도위원



한나라당 **김효재**(55세) (서울 성북구을)

초선
고려대 사회학과
조선일보 논설위원



한나라당 **신영수**(57세) (성남 수정)

초선
서울대 법과대 행정학과
현대건설 임원



한나라당 **이명규**(52세) (대구 북구갑)

재선
영남대 법학대학원
한나라당 원내 부대표



한나라당 **정태근**(44세) (서울 성북갑)

초선
연세대 경제학과
서울시 부시장

### 비례대표-통합민주당



**김상희**(54세)

초선
이화여대 제약학과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임동규**(63세)

초선
무학
지방자치발전 연구회장
조계종 중앙신도회 지도위원



자유선진당 **권선택**(52세) (대전 중구)

재선
대전대 대학원 행정학박사
당정책위 의장
조계종 중앙신도회 지도위원



한나라당 **박근혜**(56세) (대구 달성군)

4선
서강대 전자공학과
당대표 최고위원



한나라당 **안홍준**(57세) (마산시 을)

재선
경상대 의학박사
당대외협력위원장
조계종 중앙신도회 지도위원



민주당 **이용섭**(56세) (광주 광산을)

초선
성균관대 대학원 경제학박사
행자부 장관



무소속 **정해걸**(68세) (군위·의성 · 청송)

초선
대구대 행정학 석사
의성군수
국가균형발전위원



**박선숙**(48세)

초선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청와대 공보수석



**정옥임**(48세)

초선
고려대 정치학 박사
선문대 교수



한나라당 **권영진**(45세) (서울 노원을)

초선
고려대 대학원 정치학 박사
서울시 정무부시장



한나라당 **박순자**(49세) (안산 단원구을)

재선
고려대 경제학과
한나라당 중앙여성위원장



민주당 **유기준**(48세) (부산 서)

재선
뉴욕대 법학석사
한나라당 대변인
제17대 정각회원



민주당 **이용희**(76세) (보은·옥천·영동)

5선
대전사범대
국회부의장
조계종 중앙신도회 고문



한나라당 **주호영**(47세) (대구 수성구을)

재선
영남대 법학대학원
조계종 중앙신도회 지도위원



**정국교**(48세)

초선
단국대 경제무역학부
(주)H&T대표이사



**조문환**(48세)

초선
계명대 의학박사
의사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회장



한나라당 **김성수**(55세) (양주 · 동두천)

초선
고려대 사범대 교육학과
경기도의회 의원



민주당 **박주선**(58세) (광주 동구)

재선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한나라당 **유승민**(50세) (대구 동구을)

재선
위스콘신대 경제학박사
제17대 정각회원



무소속 **이인기**(55세) (고령·성주·칠곡)

3선
서울대 법대
제17대 정각회원



한나라당 **최병국**(66세) (울산 남구갑)

3선
서울대 법대
제17대 정각회원



**최문순**(52세)

초선
서울대 대학원 영문과
MBC 사장
조계종 미디어위원



**조윤선**(41세)

초선
서울대 외교학과
한나라당 대변인

### 비례대표-한나라당



한나라당 **김재경**(46세) (진주시을)

재선
서울대 법학대학원
제17대 정각회원



한나라당 **서병수**(56세) (부산 해운대 · 기장군갑)

3선
북일리노이주립대 경제학 박사
제17대 정각회원



한나라당 **윤두환**(53세) (울산 북구)

3선
중앙대 행정학 석사
제17대 정각회원



한나라당 **이한성**(51세) (문경 예천군)

초선
서울대 법학박사
창원지검 검사장



민주당 **최재성**(42세) (남양주시갑)

재선
동국대 행정학 박사과정
변호사
제17대 정각회원



**강성천**(60세)

초선
익산 이리중 제적
한국노총 부위원장



**김노식**(63세)

재선
경기대
한나라당 국책자문위원회위원



한나라당 **김정훈**(50세) (부산 남구갑)

재선
한양대 법학과
제17대 정각회원



한나라당 **송광호**(65세) (제천시 단양군)

3선
성균과대 경제학과
한나라당 사무부총장



한나라당 **여상규**(59세) (남해 · 하동군)

초선
서울대 법학과
서울고법판사



**이해봉**(65세) (대구 달서구을)

4선
서울대 법대
대구시장
제17대 정각회장



민주당 **추미애**(49세) (서울 광진구을)

3선
한양대 법학과
광주고등법원 판사



**김옥이**(60세)

초선
동국대 행정학 석사
재향여성군인협회장



**김을동**(63세)

초선
중앙대 정외과 중퇴
백야김좌진장군기념사업회 상임이사

화제의 당선자

## 종립능인고 동기동창
# 주호영 · 조문환 의원

제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불자 의원 가운데 지역구에서 재선에 성공한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을)과 초선으로 여의도에 입성한 한나라당 조문환 의원(비례대표)은 조계종립 능인고등학교의 동기동창이다. 1978년 능인고등학교 제34회 졸업생인 두 의원은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두 의원의 돈독한 불심도 불교계에는 잘 알려져 있다. 또 강직한 교육자 집안에서 성장한 것도 공통분모다. 주 의원의 부친은 평생 교직에 몸 담았으며 조 의원의 선친은 동양철학자로 경북대 철학과 교수를 지냈다.

무엇보다 두 의원의 공통점은 이명박 대통령과의 관계다. 주호영 의원은 언론으로부터 '왕의 남자'라는 애칭(?)을 받을 정도다. 법관 출신인 주 의원은 이 대통령이 후보시절엔 비서실장을, 당선자 시절엔 대변인을 지냈다. 조 의원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할 때부터 각별한 친분을 쌓아 왔다. 작년 대선 때는 불교특보로 활약했다. 조 의원은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회장으로서 정부와 불교계의 현안풀기에도 적극 나섰던 만큼 국회에서의 불교관련활동이 기대된다.

능인학원 재단사무국 김영현 국장(능인고 34회)은 "주호영 의원과 조문환 의원은 능인고 재학시절 절친한 사이였다"며 "깊은 불심과 침착하고 적극적인 성격으로 의정활동을 잘 해 나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 일 주 문



### 제2회 청도 유등제 봉행

청도불교사암연합회장 정광 스님은 4월 12일~16일 청도천 인근에서 제2회 청도 유등제를 봉행했다.(054)373-0308



### 대웅전 낙성 및 점안법회

청주 신흥사 주지 두현 스님(태고종 충북교구종무원 충주분원장)은 4월 25일 오전 10시 대웅전 및 요사채 낙성법회를 봉행한다.(043)256-1247



### 미디어붓다 개소식

불교인터넷매체 미디어붓다(www.mediabuddha.net) 이학종 대표는 4월 17일 오후 6시 서울 종로 수운회관 810호에서 사무실 개소식을 개최한다.(02)739-5557

## 공군사관학교 무료점심 나누기 봉사



공군사관학교 성무 호국사(주지 동광)는 4월 6일 청주 중앙공원에서 봉사모임인 관음회 회원들과 불자 생도들과 함께 무료점심 나누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봉사자들은 점심식사와 간식을 준비해 청주 청원지역 어르신 500여 명에게 대중공양을 올렸다. 혜철 충청지사장

## 구미불교신행단체 연합법회



구미불교신행단체가 4월 2일 구미 금룡사(주지 보광)에서 연합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구미거사림회(회장 김홍배)와 시청불자회, 경찰불자회, 여성불자연합회, 자비실천공덕회 등 9개 신행단체의 회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 연화정사 중창불사 및 점안식



조동종 사찰인 경기도 이천 연화정사(주지 원봉)는 4월 4일 중창불사 및 점안식을 봉행했다. 조동종 종정 덕찬 스님과 총무원장 덕우 스님을 비롯해 조병돈 이천시장 등 기관관계자 및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다. 청운경남남부지사장

## 선운사, 석전 영호 스님 추모다례재 봉행



선운사(주지 법만)는 4월 5일 선운사 대웅전과 부도전에서 사부대중 2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영호 대종사 제59주기 추모다례재'를 봉행했다. 영호 스님은 1888년 완주 위봉사에서 출가해 1895년 순창 구암사에서 '영호'라는 법호와 '석전' 시호를 받았다. 영호 스님은 동국대의 전신인 중앙불교전문학교 교장과 조선불교 교정을 맡아 불교계의 발전에 진력했다. 8 · 15 해방 후에는 조선불교 중앙총무원회의 제1대 교정으로 선출됐으며 1948년 내장사에서 법랍 60세, 세수 78세로 입적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현대불교♥구독신청 (02)2004-8200

# "스님들 위해 아헹가 요가 특강 열어요"

## 대구 청량선원장 현천 스님

인도 전통 요가를 현대인에 맞게 구성하여 세계요가계의 주류를 형성한 아헹가 요가. 일본을 거쳐 유입된 국내의 요가들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아헹가 요가를 연구해 온 현천 스님이 스님들을 위한 특강을 마련했다. 4월 13일부터 18일까지 비구스님들을 위한 강좌를 개설한 스님은 27일부터 5월 2일까지 비구니스님들을 위한 특강을 연다.

현천 스님은 "단기간 집중 지도를 하는 이번 특강에서는 정확한 자세와 호흡법, 올바르게 조정된 아사나(자세)의 순서, 적절한 아사나의 지속시간, 도구의 사용, 메디칼 요가, 행위 속의 명상 등이 이론과 실습으로 학습된다"고 밝혔다. 스님은 "아헹가 요가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육체를 단련시키는 하타요가로써 나이와 건강 상태에 상관없이 수련할 수 있다"며 "젊은 사람에게는 휘트니스에 알맞다"고 소개했다.

아헹가 요가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현천 스님은 인도의 아헹가 요가 연구소에서 6차례 최고급 과정을 수료했다. <요가 디피카> <아헹가 요가> <아헹가 요가 행법>의 저서로 국내에 아헹가 요가를 소개하기도 했다. (053) 981-3553 임연태 기자

# “사찰, 장애인과의 접근성 높여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기 하루 전인 4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앞에서 장애인들은 자신들의 사회활동이 어떤 이유로도 제약받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교계도 장차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일 때가 됐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불교계 어떤 준비를?

장애인복지시설에서 기거하고 있는 지체장애인 A(45 · 여)씨는 최근 황당한 경험을 했다. 자원봉사자들이 A씨의 허락도 받지 않고 목욕 장면을 사진촬영 한 것. A씨는 불쾌감을 느꼈지만 어쩔 수 없이 참아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사건이 묵인될 수 없게 됐다. 제28회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을 앞두고 장애인들에게 의미 있는 법령이 4월 11일 시행됐기 때문이다. 바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이다.

장차법은 총 50조에 3개의 부칙으로 이뤄져 있는데 장애인 차별을 폭넓게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그리고 차별의 영역을 ▲고용 ▲교육 ▲재화 ·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 · 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 · 부성권, 성 등 가족 · 가정 ▲복지시설 및 건강권 등의 여섯 가지 영역으로 규정해 생활상 ‘실질적인’ 차별을 금지토록 했다. 앞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과 법무부의 시정명령을 거쳐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악의적으로 차별행위를 할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고발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장차법이 시행되기까지는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의 노력이 컸다. 2002년부터 장애인들과 함께 시민사회단체, 법조인 등이 협력해 만든 이 단체는 긴 투쟁끝에 2007년 3월 장차법 제정을 국회에 통과 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를 비롯한 장애인단체들은 법령 시행 하루 전인 4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이유는 ‘장차법의 실효성 쟁취’를 위해서였다. 이들에 따르면 “장차법이 시행될 경우 주 업무기관이 보건복지가족부와 국가인권위원회인데 인권위는 장차법 시행 하루 전까지도 당초 약속했던 행정인력 20명을 충원하지 않고 있고, 보건복지가족부는 시행 하루 전날임에도 (확정된) 시행령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게다가 이들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당초 우리가 요구했던 조항이 상당부분 가위질 당한 것”이라며 분노했다.

### 종단 차원서 구체적 금지 조항 내용 조사 필요
### 사찰·총무원 ‘장애인의무고용문제’ 논의 시급

법이 시행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 가장 큰 문제는 일반인이 장차법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것은 물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법의 시행 의미가 사회 속에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차별당해 온 장애인들이 온전히 자신의 권리를 되찾도록 하기 위함이라면 당연히 이 법에 대해 주지하고 있어야 실질적 집행이 가능하다.

또 다른 문제는 생활 속에서 어디까지가 장애인차별인지 그 확실한 경계가 없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앞으로 사례 수집 등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차별금지연대에서도 4월 21일까지 ‘진정인단’을 모집해, 실제 사회에서 어떠한 차별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그 심각성을 고발할 예정이다.

이 법이 시행될 경우 불교계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우선, 장차법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금지하고 있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종단 차원에서 장차법이 무엇인지 면밀히 조사해 각 시설은 물론 종무원 및 사찰 종사자들에게도 알려야 한다. 왜냐하면 장차법에서 논의하고 있는 장애인 차별의 영역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위법행위로 간주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사찰에서 특히 신경써야 할 부분은 장애인들의 ‘접근성’ 문제다. 이는 물리적 접근성과 심리적 접근성 모두 해당된다. 장애인들이 사찰을 찾고자 할 때 사찰에 경사로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는 경우, 법회에서 수화 등의 장애인 통역이 없는 경우도 장애인차별이라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장애인협회 제도개선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북장애인복지관 조석영 사무국장은 “이용시설의 경우는 시행령이 발표되면서 지침서가 내려오고 내부적으로도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지만 생활시설의 경우,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할지 모른다”면서 “장애인 당사자가 만들어낸 법이라 엄청난 효과가 클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그는 “불교계에서 당장 시급한 문제는 장애인의무고용문제로 장차법을 바라보았을 때 개별 사찰, 총무원 등이 여기 걸릴 수 있다”며 “불교계 전체에서 이에 대한 연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글·사진=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 ‘장차법’ 시행으로 바뀌는 것들

**1. 공공기관 주최 · 주관 행사(법 제21조 2항)**
장애인이 행사 개최 7일 전까지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수화통역사, 문자통역사, 음성통역사 또는 보청기기 등 의사소통에 필요한 수단을 제공받을 수 있음

**2. 사법 · 행정서비스(법 제26조)**
공공기관에서 사법 ·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시, 장애인은 사법 · 행정절차 및 서비스의 이용과 참여를 위해 보조인력, 점자자료, 인쇄물음성출력기기, 수화통역, 대독, 음성지원시스템, 컴퓨터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사법기관은 장애인이 인신구금 · 구속상태에서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3. 참정권의 보장(법 제27조)**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시설 ·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 정보전달, 장애 유형이 고려된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4. 고용(법 제11조~12조)**
기존 장애인고용촉진법상 규정(채용, 승진 등)에 추가적으로 정년 · 퇴직 · 해고 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 또한 채용 전 장애인 여부 조사를 위한 의학적 검사를 받지 않으며, 직무상 필요한 의학적 검사시에는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5. 재화 · 용역 제공의 차별금지(법 제15조)**
재화 · 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안 되고, 장애인이 해당 재화 · 용역을 이용해 이익을 얻을 기회 박탈를 박탈할 수 없음.

**6. 토지 및 건물 매매 · 임대의 차별금지(법 제16조)**
토지 및 건물의 소유 · 관리자는 매매, 임대, 입주, 사용 등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 · 배제 · 분리 · 거부 금지함.

**7. 금융상품 · 서비스 제공의 차별금지(법 제17조)**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 · 배제 · 분리 · 거부할 수 없다.

**8. 시설물 이용, 이동 및 교통수단(법 제18~19조)**
보조견 및 장애인 보조기구와 함께 시설물에 진입하고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음. 또한 장애인은 이동 및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보조견 · 장애보조기구를 반입 · 이용할 수 있고 그를 이유로 불리한 요금을 적용받지 않음.

**9. 정보통신 · 의사소통(법 제21조 3항)**
방송사업자 등은 제작물과 서비스 접근권 보장을 위해 자막, 수화, 점자 및 점자변환, 보청기, 큰 문자, 화면읽기 · 해설 · 확대프로그램,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음성서비스, 전화 등 통신중계서비스를 제공해야함.

**10. 가족 · 가정 · 복지시설 차별금지(법 30조)**
장애인이란 이유로 양육권, 친권을 제한 · 박탈하지 않아야 하고 입양기관은 장애를 이유로 입양할 수 있는 자격 제한을 할 수 없다. 복지시설 등은 장애인의 시설 입소를 조건으로 친권포기각서를 요구하거나, 시설 생활 중 외부와의 소통권 제한을 하지 않아야 한다.




어떤 직업이든 오랜 시간 한 곳에서 일해 ‘베테랑’이 되면 존경을 받게 마련이다. 특히 사회복지사의 경우 그 존경심은 더해지기 마련이다. 사회복지현장에서 오래 일하기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기에. 불교사회복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이나 귀하다. 부산 개금종합사회복지관 박용하(50·사진) 관장은 그런 의미에서 불교사회복지의 소중한 존재다.

# “불교사회복지 전문인 될 것”

⑲ 개금종합사회복지관 박용하 관장



“우리 선배님들도 좋은 분들이 너무 많은데, 이거 부끄럽습니다.”

쑥스러운 한 마디가 괜히 던지는 것 같지 않다.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불교사회복지를 이끌어온 당당함이 있다. 지난해 말,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시상식에서 불교사회복지대상을 수상한 바 있는 박 관장이다.

박 관장이 불교사회복지에 뜻을 두게 된 것은 청소년기부터 이어졌던 부산 영주암 회주 정관 스님과의 인연이 크게 작용했다.

“누구나 청소년 시절에는 정체성 문제로 고민하죠. 저는 그 때 정관 스님을 모시고 불교 공부를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해소시켰어요.”

박 관장이 대학을 다니던 시절, 불교청년회에서 활동하다보니 사회적으로도 불교계에서도 혼란기가 찾아왔다. 그 때 그는 불교가 현대사회에 희망을 주는 종교가 되기 위해서는 참여할 수 있는 불교, 각자의 역할을 다하는 종교가 돼야한다 생각하게 됐다.

### 불교사회복지 연구·강의 여건 필요
### ‘1 사찰 1 사회복지기관 연계’ 시급

박 관장의 첫 불교사회복지활동은 어린이분야였다. 정관 스님을 대표이사로 사단법인 불국토가 1990년 설립되면서 어린이청소년 포교에 적극적으로 투자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1994년 사회복지법인 불국토가 만들어지고 불국토가 개금종합사회복지관을 수탁하면서 그는 본격적으로 불교사회복지에 투신하게 된다. 그렇게 살아온 것이 몇 해 던가. 세월이 흐르다보니 지금보다 더 좋은 불교사회복지를 만들기 위한 그의 고민도 깊어졌다.

“불교사회복지를 현대사회와 미래를 위해 학문적으로 연구 · 강의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합니다. 또 제가 지방에 있다 보니 지방 특색에 맞는 사업 개발을 위해서는 불교사회복지정보센터를 광역시단위로 설치하는 것이 맞겠단 생각이 들어요. ‘1사찰 1사회복지기관 연계’는 당장 시행돼야 하고요.”

참 진지하게 고민했는지 구체적인 대답이 즉각 나온다. 그는 여기에다 “학교법인에서 교법사제도가 있듯이 불교사회복지법인에도 법사실을 운영해 직원들의 신행생활을 돕고 불교사회복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싶다”고 말한다. 역시 현장전문가는 다르구나 싶다.

그가 이렇게까지 불교사회복지를 좋아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역시, 그도 불자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사회복지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현대사회에서 한 역할을 하는 것도 좋고 업무를 통해 무수히 맺게 되는 인연을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것도 좋다”고 말한다.

불교사회복지를 위해 지금까지 일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일할 것이 틀림없는 박 관장. 그가 말한다, 불교사회복지인이란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

“불교사회복지인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히며 실천하고 끊임없이 수행한다는 마음가짐이 바탕이 된 사람을 말하는 것 아닐까요. 신행생활을 기반으로 해서 끊임없이 역량강화와 자기계발을 해야만 불교사회복지 전문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전문인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글=김강진 기자, 사진=하성미 기자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중생교육을 위한 맞춤 교육
카이로프락틱 · 전생 · 빙의 치유법
지도자 모집
교과목 • 카이로프락틱 – 경추, 흉추, 요추, 골반, 선추 이론및 실기
• 골격학, 근육학, 운동처방학
• 최면술, 전생 · 미래체험, 빙의 퇴치법, 집중력 강화, 정신질환, 불면증 해소
기 간 • 2급과정 (2개월) • 1급과정 (1개월)
미국 팔머대학 교재직강, 2년 전문대 교육 과정을 108 시간 집약완성
• 최면 이론실기 8회
장 소 • 지하철 1호선 구일역에서 도보로 5분, SK주유소 뒤, 기숙사 이용 무료
입학일시 • 2008년 5월 1일
세계불교 해동화엄종 부설 교육연수원
서울 · 구로구 구로1동 658-201 천인빌딩 5F
본원 교학과 Tel : 02-853-6010~1
원장 우혜안 스님

에너지 방사능력과 투과력이 탁원한
희담석 매트용 패드
◆1인용 : 35만원 ◆2인용 : 60만원 (2인용은 주문 제작)
▣ 제품 사양
· 내용물 : 희담석 60%, 제오라이트(Zeolite) 40%
· 겉재질 : 모노망사, 황토면
· 크 기 : 1000mm x 2000mm · 무 게 : 11kg
[사용처]
돌침대, 매트리스, 전기매트, 요 위에 올려 놓고 사용하시면희담석의 에너지가 고객님의 건강을 증진시켜 드립니다.(뒷면의 미끄럼 방지 도트 처리로 밀리지 않습니다.)
▣ 제품 설명
희담석의 가장 큰 특징은 상온에서의 탁월한 에너지 방사능력이며, 제오라이트(Zeolite) 또한 생명의 돌이라는 별칭이 있을 만큼 에너지 및 탈취 효과가 뛰어난 원석입니다. 희담원석 중에서도 최고의 재료만을 엄선하여 만든 희담석 매트용 패드는 수면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를 충분히 보충해 드리며 언제 어디서든 수맥파로부터 고객님을 보호할 것입니다.
희담석의 에너지가 숙면을 도와드립니다
희담석 베개용 패드
◆가격 : 25,000원
아침에 일어나서도 개운하지 않은 분
스트레스로 인해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분
두뇌 활동이 많은 학생 등
[사용방법]
베개위에 올려놓거나 베개커버를 벗겨서 패드를 올린후 다시 커버를 씌우고 사용함. (뒷면 미끄럼 방지 도트처리로 밀리지 않습니다.)
정신 집중이 잘 되고 머리가 상쾌해지는 방석을 원하세요?
희담석 방석
◆가격 : 45,000원 ◆크기 : 45cm x 45cm
[사용처]
좌선용, 학생 및 사무용 의자, 소파, 차량 등에 사용하십시오.
희담석 방석은 오랫동안 앉아서 생활해야 하는 운전자, 학생, 사무원, 스님 등 수련하시는 분들께 매우 유익합니다.(오래 앉아 있어도 땀이 차지 않습니다.)
자원넷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8-4 금구빌딩 204호 T. 02)3476-2335
인터넷 www.jawonet.com 에서도 구입가능 (카드결제 3개월 무이자 할부) ▶제품상담 : 011-9230-2335

# 문화적 열정+자아성찰= '붓스터'

해외불교칼럼



미국에서 최근 만들어진 '붓스터'란 말은 불자와 힙스터가 합쳐진 것이다. 사진은 미국 비보이들의 공연 장면.

미국의 명문대학 집단인 아이비리그에서 1950년대 후반 태동한 '비트 불교'는 마르틴 루터가 점화한 종교개혁이 그러했듯 '총체적 사회개혁운동'의 기폭제가 된다. 그 후 이어져오는 '달라이 라마 르네상스'는 냉엄한 신의 지배를 벗어나 포근한 인간 중심의 삶을 되찾자는 정신문화적 신조류다. 붓다세존께서는 이미 2500년 전 즈음 가혹한 신권통치와 무자비한 계급질서를 혁신하려던 계몽사상가자 인본주의의 선구자였다.

현대 서구인들은 달라이 라마를 통해 붓다세존의 '가없이 너른 사랑'을 새삼 떠올리는지도 모른다. 주지하듯, 르네상스(Renaissance)란 본디 '다시 태어남'을 뜻하며 때론 '전성기'로도 함께 쓰인다. 달라이 라마 르네상스에 즈음하여 교육수준과 경제력, 사회적 지명도가 평균치를 웃돌면서도 인종차별과 종교편견 등 '보이지 않는 벽'을 실감하던 특히 유태계(Jewish) 미국인 중 불자(Buddhist)의 수가 어언 백만 명에 이른다.

그러자 그들을 통칭하는 주부(Jew-Bu, JUBU)란 신조어가 생겨났다. 주부 가운데 영화배우로는 스티븐 시걸과 올랜도 불름 거사, 골디 혼 보살 등이 있고 대니얼 콜먼 거사와 같은 심리학자 겸 유명작가, 또 '미국내관참선협회'의 공동창시자인 잭 콘필드 및 조셉 골드스타인 선사와 샤론 잘츠버그 보살 등도 있다. 또 영화 '리틀 붓다'를 만든 이탈리아 출신의 베르톨루치 감독 등은 가톨릭배경이지만 새로이 불연을 맺어 부톨릭(Butholic)이라 하며, 감리교신자면서 불법을 따르는 영화 '스타워즈'의 조지 루커스 감독은 자칭 '감리교적 불교도'다.

그럼 이젠 더욱 최근에 나타난 붓스터(Buddster)라는 신조어를 살펴보자. 붓스터란 얼핏 서로 어울려 보이지 않은 불자(Buddhist)와 힙스터(hipster)가 합쳐진 것이다. 우리말로 바꾸자면, '청소년 힙합불자'쯤 되겠다. 요즘 우리나라의 '비 보이'들의 폭발적인 열정과 불교적 자아성찰의 합성, 또는 동(動)과 정(靜)의 어우름으로 이해해도 될 것이다.

붓스터 현상은 리키 마틴, 애덤 요크, 마이클 스타입 거사, 앨라니스 모리세트 보살 등 할리우드 불자 가수들이 미국 청소년층을 상대로 전개하는 대 홍법흥행(Grand Dharma-Spread Show)의 다른 모습이기도 하다. 즉, 불자 메가 스타들이 청소년 힙합 팬과의 상호연대감을 통해 안정된 정서를 유도하는 것이다. 또 그들에게 술, 마약, 담배 등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각종 청소년 범죄의 유혹을 떨치도록 격려한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청소년들에게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책임감 있는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붓스터 현상은 비트, 히피와 유사한 문화사회적 흐름이며, 하버드 대학 부설 '다원문화공존기획'의 종교적 다양성 주제 중 하나로 다뤄지기도 했다. 붓스터는 대개 이렇게 생겨난다. 먼저 할리우드의 록 스타들이 불교적 주제가 함축된 자유분방한 음악과 율동을 제공한다. 그리고 이 새로운 동서퓨전문화는 최신동영상시스템 등을 통해 거의 동시간대에 미국 전역에 전달된다. 그 리듬과 율동을 보내준 할리우드의 불교 스타들의 삶을 알고자 좀 더 다가간 청소년들은 그들의 전혀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예를 들어, 쓰나미로 생지옥이 되어버린 동남아 지역을 수차례 찾아가고 구호기금 모금, 자선공연 등을 펼치고 조립식 주택들도 희사하는 가수 리키 마틴, 그를 보면서 청소년들은 아름다운 자비의 눈물을 함께 나눈다. 또 마이클 스타입 등 할리우드 도반들이 재난지역을 위로방문하고 거액의 재활자금 등을 아낌없이 희사하는 걸 보면서 청소년들은 스스로 되돌아보는 자아성찰의 계기를 얻는다. 흥청망청 호사스럽게만 여겼던 할리우드 도반들의 내면세계를 통해 그 진지한 생활태도와 따스한 인간애에 대한 신선한 충격을 느낀다.

이윽고 붓스터들은 할리우드 도반들이 제공하는 대중예술을 즐기는 가운데 불법이 가르치는 '자아해방',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식'을 함께 익힌다. 그들은 나를 사랑하고 너를 감싸 안는 참된 자유인(自由人), 곧 이상적인 불자가 되어가고 있다. 청소년 붓스터는 잿빛 도심의 분수대에 이제 막 피어나는 진홍빛 연꽃송이와도 같다.

성휴 스님

출처: Jubu Heroes, 하버드, 컬럼비아대학 학보, Belief Net, 기타

## FWBO 웹사이트 러시아어 추가

국제전법기구인 서방불교우의회(FWBO)는 주로 서부유럽의 언어들로 제작되어온 자체 웹사이트에 동부유럽의 폴란드어에 이어 러시아어를 추가한다고 3월 30일 발표했다.

최근까지 영어, 더치어, 핀란드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중국어로 불교 기초와 참선수행 지도 등 적극적인 사이버전법과 더불어 다양한 국제 불교회합 및 세미나를 개최해온 동 기구는 급증하는 러시아의 불자와 현실 실정에 적합한 별도의 프로그램도 기획 중이다.

출처: BCTV, ABN

## 佛 아미타 불교협회 7월 하계정진

프랑스 아미타 불교협회는 동안거를 마치고 5월 중순부터 자체 시설개보수, 진입로정비, 그리고 임간 독거수행토굴 등을 설치, 7월 10일부터 30일까지 하계정진세미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다마비드야와 프라사다 선사가 3일 동안 지도하게 될 '7월 안거수행'에는 12개 정규강좌를 비롯해 정토수련법회, 교도소 재소자 대상 불교교화 등 각종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전문교육도 포함되며, 임간 자유토론회와 다채로운 국제친목행사도 계획되어 있다.

출처: FAB

# "참선할 땐, 생각을 멈춰라"

월드 스타 불심도 스타

필 잭슨 ❻

농구코트의 대선사란 별명을 지닌 필 잭슨의 본업은 프로 스포츠다. 하지만 그는 선수지도뿐만 아니라 팀의 각종 기획수립, 또 임원진과 후보 선수들의 운영도 직접 코칭을 한다. 이를테면 그는 북도 치고 창검도 휘두르는 참모 형 야전사령관이다. 그를 지켜보자면 현대 경영실무 가운데 총체적 품질관리(total quality management)란 게 떠오른다.

이는 제품의 품질관리는 물론 제품을 창출하는 인적자원관리까지 포함한다. 인적자원관리는 인사관리와 다르다. 이는 조직 관리는 물론 조직구성원의 자기관리, 대인관계관리, 심지어 언론 및 경쟁상대의 관리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포괄개념이다. 필 잭슨 특유의 인적자원관리는 불교철학에서 응용한 신 개념의 원융, 즉 '나'를 뛰어넘는 '우리'를 바탕으로 한다.

"팀의 일체감 조성은 리더의 자기 확신에서 출발한다. 나는 팀을 이끄는 코치다. 따라서 나는 내가 하는 일에 확고한 믿음을 지녀야한다. 또한 나는 나의 생각을 파는 세일즈맨이 되어야 한다."

늘 그렇듯, 그는 여기서도 팀 리더인 나 자신의 책무부터 강조한다. 과도한 개인주의와 개별분업화의 틀에 갇힌 서구인들은 '나'부터 먼저 깨우쳐야 한다는 상구보리(上求菩提)의 사고를 필 잭슨도반처럼 불교를 통해 배운다. 이어 그는 '우리', 즉 자신의 동료인 선수들을 가르치고 이끈다.

"우리가 농구 코트에서 거두는 승리가 우리가 만드는 생산제품이다. 우리 모든 선수, 특히 주전 멤버들은 정예 세일즈맨으로서 확고한 신념을 지녀야한다." 이것이 곧 상구보리에 이은 현실적인 하화중생(下化衆生)이 아니겠는가? 이런 까닭에 미국의 여러 캠퍼스에서 필 잭슨을 불교적 경영(Buddhist Management)의 대표적 연구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그는 선수들이 할 일이 뭔지 가르치기보다는 그들 스스로 묻게 하는 일종의 화두를 던진다.

"나는 몸과 마음이 고통스러운 이 스포츠를 왜 하나?" 그리곤 그 화두마저 리바운드를 친다. "명예와 돈, 그리고 승리의 쾌감을 빼고 나면 프로스포츠란 무엇인가?" 이어 노련한 승부사답게 선수들의 공격인자를 툭 건드린다.

"게임은 승리보다 참가에 의의가 있다고? 그런 헛소리를 믿는 신사숙녀들이 아직도 계실까?" 그러면서 그는 선수들을 점차 일심동체의 전사들로 만들어간다. 시카고 불즈 팀이 NBA의 한 시즌에서 70승이라는 경이적인 신기록을 이뤄 그는 농구 역사상 최고 지도자로 불린다. 명장 밑에 졸개 없다고 했듯 시카고 불즈의 간판스타이자 공중곡예의 신기를 보여준 마이클 조던, 스카티 피펀, 데니스 로드먼 등이 바로 그의 휘하를 스쳐간 역전의 전사들이다. 그는 선수들에게 욕지거리, 주먹질, 발길질 따위를 하는 기본함량 미달의 얼치기 코치가 아니다.

하지만 특히 어려운 게임에서 이긴 경우, 그는 선수들을 무섭게 다그친다. 기자가 묻는다. "오늘 게임에서 최강의 적수를 처리했으니 이젠 한숨 돌리시겠네요?" 그의 대답이다. "승리의 맛은 달죠. 그렇다고 해서 그 단맛이 다음 게임을 조금도 느긋하게 해주진 않아요." 이 말 역시 인터뷰에 응하는 척하며 실은 자기 선수들에게 전하는 강력한 메시지다. 즉, 최적의 긴장감(optimal tension)을 조성하는 것이다. 스트레스란 일종의 필요악이다.

장난감 글라이더의 고무줄처럼 너무 조이면 끊어져버리고 또 너무 느슨하면 글라이더가 뜨질 못한다. 개인감정처럼 조직운용에서도 스트레스관리는 필수다. 그는 선수라는 '물'을 다룬다. 상황에 따라 팔팔 끓어오르게도 할 수 있고 얼음처럼 꽁꽁 굳혀버릴 수도 있다. 그런가하면, 자신과 선수들이 함께 수행하는 참선을 통해 명경지수처럼 미동도 하지 않는 무념무상의 삼매경으로 이끌어가기도 한다. 이는 글라이더를 갖고 놀지 않을 땐 고무줄을 완전히 풀어두는 것과 같은 이치다.

"참선은 완벽한 휴식이다. 참선으로 뭔가를 이루려 말라. 그저 생각을 멈춰라." 역시 대선사다운 간단명료한 수행지침이다. 마치 카멜레온처럼 주변 환경에 따라 색깔을 바꾸는 그의 야릇한 능청이다. "스포츠란 오르가즘을 좇아가는 것, 즉 인간의 본능이죠. 멋지게 끝내주고 싶나요? 하하, 그렇다면 생각을 멈추세요."

성휴 스님

## '나' 아닌 '우리' 바탕으로 인적관리

## 가르치기 보단 화두 제시하는 경영

ABC 생활영어로 읽는 불교

## We are not supposed to talk, are we?

### 우린 절대로 말하면 안돼요. 안 그래요?



Four monks decided to meditate without speaking for half a month. By nightfall on the first day, the candle began to flicker and then went out. The first monk murmured, "Oh, no! The candle is out." The second monk grumbled, "We are not supposed to talk, are we?" The third monk scolded them, "Why have you two already broken the silence?" The fourth monk joyfully giggled, "Ha! I'm the only one who didn't speak."

스님 넷이 보름 동안 묵언수행을 하기로 했다. 그 첫날밤이 될 무렵, 켜둔 촛불이 깜박거리다 꺼져버렸다. 그러자 첫 번째 스님이 중얼거렸다. "오매, 촛불이 꺼져부렀네!" 그 말을 들은 두 번째 스님이 투덜댔다. "우리 절대로 말하믄 안돼유, 안 그려유?" 곧이어 세 번째 스님이 꾸짖었다. "두 스님들께선 어이하여 벌써 묵언정진을 작파하시오?" 그러자 네 번째 스님이 신나게 킬킬댔다. "히히, 나만 암말 안했다카이!"

번안: 성휴 스님 / 그림: 이태수


# 소원성취 원불봉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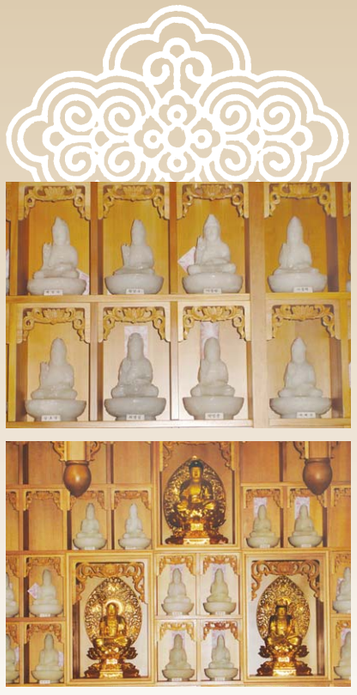
천불전에 백옥 원불을 봉안하시어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수불사에서는 원불을 봉안하는 모든 불자님들이 반드시
소원을 성취하도록 매일 정성껏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 자녀들의 입시 합격발원
-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합격발원
- 공무원시험 합격발원
- 입사, 취직, 승진시험 합격발원
- 사업성공 발원
- 건강발원
- 조상 영가 극락왕생 발원

수불사 주지 해광스님 집전으로 매일매일 지극정성
기도발원하여 꼭 소원성취하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원불봉안불자는 [대한민국 운명록], [운명비결], [불가비의]
[속을 보이는 사람들] 저자인 해광스님을 친견하여
운명상담을 받고, 성취하는 기도법과 모든 필요한 방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불사 · 금강불교대학

☎ 032)665-8472 (카페: 다음[해광스님]) • 주소: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3동 533-7
1. 외곽순환도로 중동 IC 라일락마을 앞
2. 상동신도시 사거리 비잔티움 뒤 상 3동 사무소, 119소방센타 맞은 편



옥불제작 : 옥예원 011-347-00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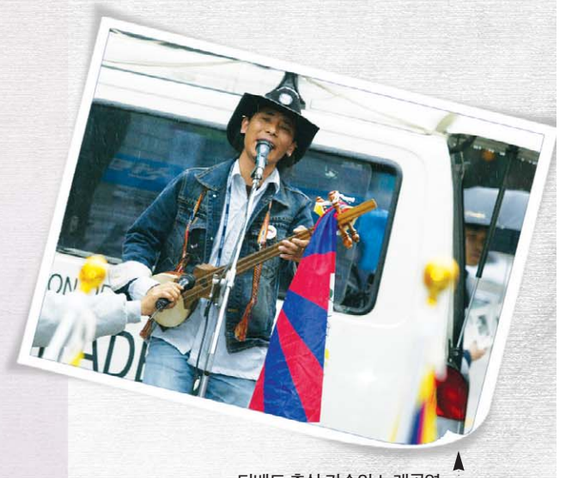




티베트평화연대-아시아인연대 집회 현장



비가 오는 집회현장을 끝까지 지켰던 비구니 학인 스님들.



티베트 출신 가수의 노래공연.

# 티베트인들의 평화는 반드시…

온 세계 사람들에게 정신적 지주의 표상이 된 티베트. 1956년 중국에 '시짱(西藏)자치구'라는 이름으로 편성된 후에도 티베트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국가의 일부가 아니라 그 자체로 존재해왔다. 그런 티베트에서 날아오는 요즘 소식, 우울하기 그지없다. 3월 14일 티베트 수도 라싸 라모체사원에서 스님과 시민 수천 명이 중국정부로부터의 독립을 요구하며 시위했으나 중국정부는 티베트인들을 무력으로 진압했다. 최근까지 티베트인들이 유혈사태의 소용돌이 속에서 희생됐다는 외신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올림픽 개최 자질 논란, 성화 봉송 저지, 티베트의 자유를 촉구하는 시위가 세계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50여개의 종교·시민사회단체들이 '티베트평화연대'를 조직, 티베트인들의 자유와 독립을 향한 열망에 조금이나마 부응하기 위해 힘을 보태고 있다. 4월 9일 제18대 국회의원 총선이 있던 날, 티베트평화연대는 서울 명동거리에서 집회를 열었다.



"티베트에 자유를! 인권을! 평화를!"

명동 중심가에서는 살짝 벗어난 명동지하철역 3번 출구 앞. 임시휴일을 맞아 오후 3시에 시작된 연대행사에 사람들이 조금씩 모여들었다. 참여대열에서 중앙승가대 학인 스님들과 수녀님들이 눈에 띄었다. 이들을 비롯한 150여명의 참여자 손에 '티베트에 평화를' 문구가 새겨진 풍선 또는 티베트의 깃발이 쥐어져 있었다.

이날 티베트평화연대 모임의 또 다른 이름은 '티베트 평화를 위한 아시아인의 연대'였다.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아시아의 타 국가인들도 함께 이날 행사에 참여, 티베트인들에 힘을 보태겠다는 뜻인 셈.

먼저 티베트평화연대 정웅기 대변인이 이날 모임의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티베트로 가는 도로 등이 모두 봉쇄돼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지난 한달 동안 중국정부는 모든 일을 공식적으로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관심을 갖고 티베트로 들어가 조사할 수 있기를 요구해야 합니다."

이어 네팔에서 온 티베트인 뻰징씨, 방글라데시인 로넬씨, 미얀마인 조모아씨가 차례로 왜 이 모임에 참여하게 됐는지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뻰징씨는 조국이 고립돼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호소하기 위해, 로넬씨는 수많은 민족이 힘의 논리에 의해 세계 곳곳에서 억압받고 있다는 사실을 되새기려, 조모아씨는 '버마 민주화운동'과 티베트의 자유화에 대해 함께 이야기 하고 싶어 집회에 참석했다.

"중국의 한쪽에서는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또 다른 한쪽에서는 티베트인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중국에 평화가 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한국분들, 한국에서 누리고 있는 평화를 조금만 나눠주세요. 다른 아시아국가의 평화에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다소 서툰 한국말이지만 이들의 진정성은 충분히 통하고도 남았다. 다들 절박한 상황 속에서 발언을 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들이 발언하는 동안 빗방울이 듣기 시작했다. 그러나 모인 사람들의 집중력은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것은 티베트 출신 가수 까락씨의 문화공연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티베트 전통악기 '다녠(기타와 비슷함)'을 연주하며 'Free Tibet(프리 티베트)'를 부르는 그의 목소리는 저 멀리 고향에서 고통 받고 있는 동포들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모인 사람들도 뜨거운 박수로 티베트인들을 향한 응원의 마음을 보냈다.

이날 행사에는 또 영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임순례 감독도 참석, 티베트의 자유와 독립을 외치기도 했다.

모임 중간중간에는 현재 티베트의 상황과 한국 위정자들의 티베트 사태에 대한 대처 등을 알리는 시간도 여러 차례 있었다. 중국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발표도 내놓지 않은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컸다.

집회가 어느 정도 갈무리되자, 이들은 중국 영사관 쪽으로 걷기명상 시간을 가졌다. 조용하게, 그러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이들은 한걸음씩 내디뎠다. 희생된 티베트인들을 추모하고 세계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며.

이들의 행진에 효과가 있었던 모양이다. 주민들이 비가 오는 중에도 이날 행사를 지켜보고 있었으니 말이다. 어떤 어머니는 초등학생 딸에게 "티베트가 중국에 흡수돼 나라를 잃었다. 우리도 한 때는 나라를 뺏겼던 경험이 있으니 이런 행진을 관심 있게 지켜봐야한다"고 가르쳐주기도 했다.

이들의 모임은 티베트의 자유를 외칠 때를 제외하고는 매우 조용하게 진행됐다. 마치 티베트인들이 지금까지 그래왔듯, 평화를 원하면서 폭력을 반대해온 그들이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자는 취지가 그대로 살아있었다. 이날 행사는 단지 눈으로 보여주기 위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이 하나의 세계에서 함께 살기 위한 몸짓이었다는 것을 참석자들은 알고 있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의 외침은 공허하지 않았다.

"티베트를 티베트인들에게 돌려주세요!"

글=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사진=박재완 기자 jwpark@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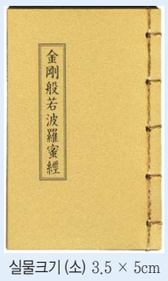
## 티베트평화연대의 4월 일정

**#4월 16일 오후 7시~9시 서울 조계사 극락전에서 '티베트 평화를 위한 기도회'** 가 열린다. 불교·개신교·천주교·원불교 4개 종교 성직자와 신도들이 모여 티베트 희생자를 위로하고, 평화를 기원하는 기도회다. 기도회는 각 종교 고유 의식에 대한 설명과 기도(종교별 10분), 티베트 스님들과 함께하는 기도회로 각각 진행된다.

**#4월 23일 오후 7시 광화문 교보문고 앞 촛불문화제** 지금도 월~금요일 7시에 티베트인과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촛불시위를 펼치고 있는데 티베트평화연대도 이날 이들과 함께 할 예정이다.

**#4월 27 티베트 평화를 위한 '평화의 성화 봉송'** 서울에서 베이징올림픽 성화가 봉송되는 이날 티베트평화연대와 평화를 사랑하는 단체 및 시민들이 연합, 평화의 성화를 별도로 봉송한다.(장소, 시간 미정)

인터넷에서 티베트인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다면? 씽크티벳(http://thinktibet.cyworld.com)에 접속


실물크기 (소) 3.5 × 5cm
(중) 5 × 7cm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복장의 식 불량 식사 소재 영장 가천 도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불경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소 병 풍
(관세음보살 보문품)
(지장보살본원경)
크기 : 가로, 세로 74Cm



달마액자
(중)35 × 50cm
(대)42 × 65cm



옴마니반메훔족자
60 × 20cm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8mm×10mm×12mm

흑단무늬목염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26×16×16cm ~~155,000원~~
→ 할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물시에도 사용합니다.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 1143-12-049474 송명화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온열뜸기 의료기인증. 의료용전자기발생기 전기용품 안정인증. LIG 배상보험 가입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실용실안출원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원적외선 "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앓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불교의식의 현대화를 위한 '렉쳐(Lecture) 콘서트'

# 의식 찬불가의 '새 모델' 한 번 들어 보세요

지난 40여 년 간 불자의 마음속에 귀의와 발심 그리고 서원을 심어주었던 찬불가의 과감한 변신을 모색한 콘서트가 열린다. 불교의식을 연구해 온 윤소희(동국대 강사)씨가 새로운 형태의 의식 찬불가를 내놓는다. 작곡한 곡들을 해설과 함께 소개하는 '렉쳐(Lecture) 콘서트' 형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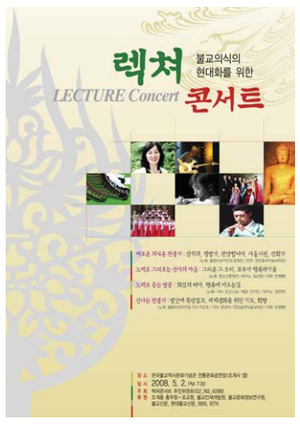
5월 2일 오후 7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펼쳐질 공연은 '삼귀의' '청법가' '사홍서원' 등 기존 의식용 찬불가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 이날 '렉쳐 콘서트'는 예술적 크로스오버(CrossOver)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실험적이다. 완성도 높은 의식 찬불가로 법회 현장에서 활용될 가능성 또한 엿 볼 수 있다.

1부는 '새로운 의식용 찬불가'와 '노래로 그려보는 산사의 마음'이라는 레파토리로 진행된다. 보다 대중친화적인 표현 방식을 도입한 새로운 의식용 찬불가를 개발하고 그 쓰임의 가능성을 선보인다. 윤소희씨가 새로 발표하는 '삼귀의' '청법가' '사홍서원' 등 의식 찬불가는 국악의 장단을 수용한 장중하면서도 경쾌 · 우아한 선율을 특징으로 한다. 70명의 연합 합창단이 노래하는 '마음의 등'은 정적이고 엄숙한 찬불가에서 벗어나 피아노, 목탁, 장구 등 타악기 반주에 율동을 가미했다.

2부는 '노래로 듣는 법문'과 '신나는 찬불가'라는 레파토리로 진행된다. <티베트 라마가 전하는 행복에 이르는 길>의 저자 라마 쇠바 린포체의 글에 해금과 피아노 연주에 맞춰 도신 스님이 노래한다. 굿거리 장단의 흥겨운 리듬에 맞춰 수행의 길을 신명나게 표현한 '방갓에 죽장짚고'와, 종교, 인종, 국가의 벽을 넘어 온 인류가 평화의 바다에서 하나 됨을 노래한 '세계 평화를 위한 기도'는 LMB싱어즈와 비로자나 합창단이 함께한다.

국악은 물론 일렉트릭 밴드가 합연하고 합창과 비보이 댄스가 어울리는 이번 음악마당은 완성도 높은 의식용 찬불가의 개발과 보급에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02)742-4288

가연숙 기자 omflower@daum.net




좋은벗 풍경소리 부처님 오신날 기념 음악회 열어

# 부처님 오신날 신나는 음악축제

"부처님 오신 날, 신나는 음악으로 함께해요!"

음악으로 부처님 법을 전달해 온 좋은벗 풍경소리(회장 성행)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신나는 기념음악회를 준비했다. 음악회는 서울과 영주에서 각각 진행된다.

먼저 서울에서 열리는 음악회는 '붓다콘서트'라는 이름으로 5월 1일 오후 7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진행된다. '붓다콘서트'에는 뉴트리팝스오케스트라(지휘 이종만)와 정태옥(오페라가수) · 순야타(불교 래퍼) · 강혜윤(찬불 가수) · 정유탁(풍경소리 작사작곡가) · 은수정(재즈 싱어)씨 등이 참여해 열띤 무대를 펼치게 될 예정이다.

붓다콘서트에서 연주될 곡은 뉴트리팝스오케스트라의 'Cinema paradiso(시네마천국)' '베토벤 운명 팝스' 'Wonderland(원더랜드)' 등의 경쾌한 세미클래식 곡들과 랩곡 '반야심경', 찬불가요 '연꽃이 피었어요' '봄바람 꽃바람' '육환장' '당신에게 자비를' '오늘은 좋은날' '너와 나' 등이다.

좋은벗 풍경소리 이종만 기획실장은 "이번 콘서트에서는 클래식과 찬불가요를 적절히 배합해 불자들이 불교의식 또는 찬불가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고리타분'하다는 편견을 깨려한다"면서 불자들이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했다.

서울에 이어 영주에서 열리는 음악회는 '청량 봉축음악회'로 차별성을 가진다. 5월 9일 오후 7시 영주시민회관에서 열리는 이 행사는 인근지역인 봉화 · 문경시민들도 참여, 부처님 오신날을 기념하는 잔치마당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영주 마하합창단 음성공양과 이종만밴드의 공연으로 알차게 채워진다. (02)723-9836 김강진 기자



##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존재를 사색하라



명상에 잠긴 불상의 머리에 전투기가 날아와 푹 박혔다. 이 민망하고 참혹한 광경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 2001년 미국에서 일어난 9.11 테러의 모티브를 불상이라는 절대가치에 '충돌'시킨 작품은 조각가 서영배씨의 '무시무종(無始無終)' 시리즈의 하나다.

출가 경험이 있는 작가이기 때문에 불상에 천착한 것일까?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우리' 즉 더불어 사는 삶 속에서 무엇을 나눌 것인가?" 삶의 근원을 역설하는 작가의 진지함에서 관람객들은 시작도 끝도 없는 대답을 듣는다.

전시 주제 '무시무종-이미 오래 전 예견된 일들'에서도 오늘의 우리가 반드시 오늘의 우리일수만은 없음을 일깨운다. 작가는 "대결구도가 만연한 현대문명 속에서 나와 너, 차이와 소통에 대해 사색해 보는 시간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서울 인사동 쌈지길 갤러리 쌈지에서 4월 9일 시작된 전시는 27일까지 계속된다.(02)736-0008 임연태 기자

## 종교와 예술의 만남

불기 2552년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여 (사)동희범음회(東熙梵音會 대표 동희 스님)가 4월 18일 2회(오후4시, 7시 30분)에 걸쳐 서울 조계사 내에 위치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미주 순회 귀국공연'을 연다.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전수교육보조자인 동희 스님을 중심으로 범패와 작법을 오랜 시간 수련한 범음회 소속 스님들이 펼치는 불교 예술의 진수이다.

동희 스님은 비구니 어장(魚丈)으로 대어장 박송암 스님(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초대보유자) 문하에서 본격적인 범패를 전수 받은 제자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명발, 육법공양, 향화게, 법고무, 기경작법, 화청 등이 시연된다. 입장료는 R석 5만원. S석 3만원. (02)923-8180(자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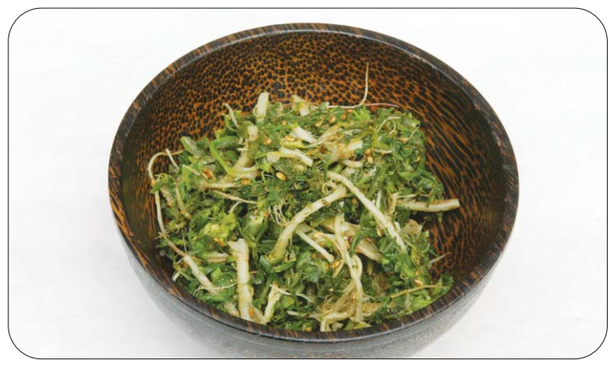
가연숙 기자



사찰음식의 모든 것

정산 스님 산촌 대표 · 동산불교대 사찰음식학과장

35 냉이나물



## 나물보다 약초로 많이 이용되 제채라고 불려
## 봄철 기운없을 때 죽에 넣어먹으면 기력 되찾아

냉이는 제채(薺菜)라고 부르는데, 예로부터 나물보다는 약초로 많이 이용돼 왔습니다.

<본초강목>에서는 냉이가 "경기하는데 좋고 뱃속을 고르게 하며 오장에 이롭다"고 했으며 또 겨울에도 냉이죽을 먹으면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간을 도와서 눈이 밝게 해준다고 합니다. 민간요법으로는 냉이의 줄기와 잎을 태운 재를 이질에 사용하였고, 뿌리를 다려 먹으면 눈병을 낫게 한다고 합니다. 특히 냉이는 자궁의 출혈, 폐출혈의 지혈제로서 이용되었는데 이뇨, 해열, 지열의 효과가 뛰어납니다.

또한 냉이는 간을 튼튼하게 하고 눈을 밝게 하며 기운을 나게 하고 위를 튼튼하게 하며 소화를 잘 되게 하고 소변을 잘 나오게 하며 출혈을 멎게 하는 데 매우 좋은 효력을 지닌 약초입니다.

이른 봄철 몸이 나른하고 기운이 없고 밥맛이 없을 때 냉이를 잘게 썰어서 죽에 넣어 끓여 먹으면 곧 밥맛이 좋아지고 기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냉이에 포함된 단백질, 비타민, 회분, 섬유질, 탄수화물, 칼슘, 인 등의 영양성분 덕분입니다.

냉이는 눈을 밝게 하는 데도 좋습니다. 줄기와 뿌리를 달여서 차 마시듯 오래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눈병에 잘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눈이 까칠하고 통증이 약간 나지만 며칠 지나 면 통증이 없어지고 군살이 삭아 없어집니다. 눈이 충혈되고 아프며 꺼칠꺼칠한 느낌이 들 때는 냉이를 짓찧은 다음 곱게 걸러서 눈에 한 방울씩 넣으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냉이는 음력 4월 8일에 채취해 그늘에 말린 것은 풍독사기를 없애는 효과가 있고 눈이 아파 눈물이 흐를 때, 눈이 잘 보이지 않을 때 약효가 있다고 전해집니다. 청나라 때 육식을 하는 사람은 냉이를 먹으면 위장을 씻어 준다고 하여 정장초(淨腸草)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현대인의 식생활이 육식으로 바뀌고 있으므로 냉이를 섭취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습니다.

### 냉이나물 재료: 냉이, 참기름, 간장, 깨소금

**만드는 법**

①냉이는 뒤집어서 잎과 뿌리가 닿는 부분을 깨끗이 손질한 후 한 입크기로 잘라둔다.
②냉이를 끓는 물에 살짝 데쳐낸 후 바로 차가운 물에 담갔다가 소쿠리에 건져 둔다. 이때 데치는 물에 소금을 약간 넣으면 파랗게 데쳐 진다.
③데친 냉이를 꼭 짠 다음 간장과 깨소금을 넣고 손으로 털듯이 간이 고르게 배게 무친다.
④ 마지막으로 참기름을 넣고 털듯이 버무려 낸다.

사찰,법당 영상음향 설비공사
음향설비, 설치공사 · 앰프 · 마이크 · 스피커 · 무선마이크
투윈미디어의 특허품
국내최초 전기가 없는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음향기기
"엠파워 플러스"(400W급)
AC전원 USB충전 스피커 배터리 충전 유선 마이크 무선 마이크 소형IT제품군 재생 차량 점퍼
휴대용 충전식(방생) 유무선 마이크 겸용 포터블 앰프 시스템
TV, 컴퓨터 모니터로 사용하면서 녹화기능까지.. (야간에도 녹화 가능함)
4분할
사찰 CCTV 설치
사찰 하이파이 앰프
투윈미디어 Twin Media 방송 · 음향 · 영상설비전문업체 www.twinsound.co.kr
서울 종로구 종로3가 175-4 세운상가 가동 가열 107호 代表 최유창
Tel 02)2265-4288, 2275-8079, H·P 010-8705-4288
• 계좌번호 : 신한은행 011-229-849384 최유창
고객님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완벽한 A/S보장 · 100% 환불보장

세계로 가는 서병후의 불경영어 · 천수경
수리수리마하수리
THE THOUSAND HANDS SUTRA
Mystical Gateway to Happiness and Enlightenment
책1권, 오디오테이프 3개포함
20,000원 → ₩ 14,000원
저자 서병후 | 156쪽 | A5
출판사 : 도레미음악출판사
보다 활발한 한국 불교의 해외 포교, 그리고 신세대 지식인들에 의한 넓은 시야의 불교 공부와 수행을 위한 기본적 불경 영어 가이드로서 기획된 이 책은 천수경을 첫 텍스트로 했습니다.
영어화된 산스크리트어는 영어로 다루고, 그 표기도 표준적 국제 시스템에 따랐습니다.
자비와 깨달음의 감로를 내려주시는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의 구원의 염원이 담긴 천수경의 신비스런 비밀공식이 우리들 앞에 펼쳐집니다.
오랫동안 국내외에서 불교를 연구해 왔고, 풍부한 영어교육경험을 갖춘 필자가 선사하는 최초의 영어완역 천수경과 현대적 시각의 주해, 통쾌할 정도로 행간을 꿰뚫는 새로운 해석은 우리들을 감동케 할것입니다.
온라인 책방 여시아문
02)737-0695

# 하늘과 땅 위에 오직 나홀로 존귀하도다!



함께가요~ 강의실로!

강사 : 권기현(위덕대학교 불교문화학부 교수)
주최 :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불교인재개발원
후원 :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일시 : 2008년 4월 2일
장소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

'부처님오신날' 기념 대중강좌 '붓다의 생애와 가르침' ②

## 부처님 일대기를 통해서 배우는 불자 신행



### 붓다의 탄생게 불교의 자비와 깨우침 담겨있어
### 문학적으로 아름답게 각색된 붓다의 일생담

과연 우리는 붓다를 어떻게 바라보아야하는가. 불타관(佛陀觀)의 문제입니다. 붓다는 최고의 인격적 존재입니다. 나라고 하는 문제와 주관과 객관, 나와 세상의 관계를 문제 삼아 보십시오. 불교는 하나라고도 하지 않고, 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인도의 '아드바이따(Advaita)' 개념으로 '不二'입니다. 불과 물이 섞이는 관념의 세계와 같습니다. 둘도 하나도 아닌 세계를 용수보살(Ngrjuna)은 <팔부중도(八不中道)>에서 연기(緣起)와 공(空)의 관계로 해명했지요.

저는 문화해석학적 입장에서 이해하는 방식으로 풀고자 합니다. 다름과 차이에 대한 이해는 내 사고를 확대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사고의 폭이 확장되고 반대되는 문화의 사고에 계속 노출될 때 큰 이해가 가능해집니다. 인도인의 사고 틀은 큰 생각의 틀까지도 없애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이즘(ism)이 아닙니다. 붓다왓짜나(붓다의 말씀), 붓다데싸나(붓다의 가르침)로 불교인 것입니다. 이런 인도문화 속에서 붓타의 탄생은 가능했습니다.

인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전기의 서술방식은 조상의 가계족보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인도에서는 윤회사상에 입각해 나 자신의 전생이야기가 가계사보다 앞섭니다. 인도에서는 부자집의 문지기로 땀 흘리며 일해도 부자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전생의 업을 믿기 때문입니다. 현재를 열심히 땀 흘려 살면 내생에는 오늘의 선업으로 과보를 받을 것이라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반영된 것입니다. 깨달음이란 문화의 훈습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인도는 원융적 사고의 다양성과 오랜 시간의 믿음 체계를 지녔기 때문에 사회 저변으로 그것이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불교적 깨달음의 세계로 접근하는 방법도 이러합니다. 인도에서 전생이란 보편적인 개념입니다.

전생이야기는 <자타카(Jataka)>라고 하여 총 574개가 있습니다. 붓다 생전부터 이어져 내려왔고, 붓다 시대에 상당히 보편화 됐으며, 인도에 흩어진 이야기를 다 채록했습니다. 500<자타카> 혹은 550<자타카>라고 하며 한국에서는 <본생경(本生經)>이라는 이름으로 동국역경원에서 발행했습니다. 산스크리트어본으로는 빠알리<자타카> 이후에 흥미로운 것만 모아 묶은 <아바다아나(Avadana)>가 있습니다. 붓다의 일생담은 상당히 갈고 닦아 있었습니다. 문학적으로 각색이 되었고, 아름답게 좋은 은율로 만들어졌습니다. 경전을 불전문학으로 여기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소설을 쓸 때 복선이 있듯이 성언량(聖言量)이라고 하지요. 해석이 가능할 때는 그 뜻을 다시 생각하며 경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붓다의 탄생과 위신력이 다양하게 비춰집니다.

천상천하(天上天下) 유아독존(唯我獨尊) 삼계개고(三界皆苦) 오당안지(吾當安之). 고타마붓다의 탄생게에 내재된 붓다의 삶과 가르침이 지닌 복선을 깊이 통찰해봅시다. 마야부인은 여섯 상아를 지닌 코끼리가 잉태되는 태몽을 꿉니다. 관상가 수약야를 불러서 꿈을 점치니 "성스러운 분이 태안에 내려오셨다는 징후입니다. 탄생한 아들이 집에 있으면 장차 전륜성왕이 될 것이요. 도를 배우면 장차 붓다가 되어 시방을 제도할 것입니다." 불탑신앙에 의한 조각물인 중인도의 산치대탑에서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기록을 확인합니다.

네팔 국경선에 있지만 인도 문화권인 룸비니에서 친정으로 향하던 마야부인은 산기를 느낍니다. 현재 이곳에는 아쇼카왕이 세운 석주가 붓다의 탄생 성지임을 증명해줍니다. 붓다 열반 200년 후에 아쇼카왕이 방문하여 '신들로부터 사랑받는 덕있는 왕은 즉위 관정 후 20년에 스스로 여기에 와서 참배를 드렸다. 여기서 고타마붓다가 탄생하였기 때문이다. 돌담을 만들고 돌기둥을 세우게 했다. 세존께서 여기서 탄생하였기에 룸비니 마을은 세금을 면제받고 또 생산의 8분의 1만 내어도 된다.' 는 비문을 세깁니다. 이 석주는 인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고학적인 위치상의 표적이 됩니다. 2300년 이상을 저 자리에서 지켜주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확인 가능한 것입니다.

마야부인은 오른손으로 무우수 가지를 잡고 오른쪽 옆구리로 태자가 탄생합니다. 범천 브라만이 붓다를 받고, 땅에 내리셔서 동서남북으로 '7보'를 걷습니다. 그 자국마다 연꽃이 피어났습니다. 오른 손으로 하늘을 왼손으로 땅을 가리켜 천지수인을 합니다. 인도력으로 웨샤크달인 4월 보름입니다. 인도의 쟈이나에서도 그렇고 성인은 대부분 웨샤크달에 탄생합니다. 인도의 시간관념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갓난아이가 옆구리로 태어나 울지 않고 스스로 걸어 나아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걸을 수 없는 상황에서의 걸음과 고함이 지닌 문학적 특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협탄생이란, 인도에서의 4성계급과 관련 있습니다. 브라흐만은 머리 크샤트리아는 옆구리 베이샤는 다리 수드라는 발바닥에서 태어난다는 상징적 비유입니다. 붓다는 크샤트리아 왕족이었기 때문에 옆구리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불교에서 '6'이라는 법수가 지닌 상징성은 다양합니다. 붓다의 일곱 걸음은 윤회의 세계를 벗어남의 상징이자 붓다 일생의 복선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생명의 존엄성을 일깨워 편안케 하신 성인의 탄생 이야기가 문학적으로 승화된 것입니다. 진흙 속에 살더라고 깨달음을 성취하여 결코 더럽혀지지 않는 청청한 지혜를 상징하는 대목입니다. 붓다의 탄생게에는 불교의 자비와 모든 깨우침이 담겨있습니다. 불교의 두 가지 목표인 깨달음과 자비의 표현입니다. 브라만 도인인 아시타 선인이 붓다의 탄생을 알고 직접 뵙고자 합니다. 아시타가 태자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 태자의 발에 정례를 합니다. 미간에 연꽃합장을 하고 지혜를 상징하는 제3의 눈(깔라챠크라)에 경례합니다. 처음으로 붓다의 생애를 예언하는 상황입니다.

어머니의 죽음을 경험하고 학습기가 지나 궁중생활을 하던 태자는 아버지인 국왕을 따라 파종을 하는 농경제에 참석합니다. 염부수 나무 아래에서 약육강식의 세계를 보고 삶의 고통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초선에 드시니 염부수나무가 지닌 상징적인 의미를 통해 알 수 있듯 염부제 세계에서의 세속적 깨달음을 얻습니다. 마야부인이 룸비니에서

잡은 나무도 무우수 나뭇가

지입니다. 후에 성도하실 때

에는 보리수나무에서 정각을 이룹니다. 농경제에서의 초선이 의미하는 바는 붓다가 지닌 선천적인 능력의 확인입니다. 아쇼다라 공주와의 결혼 그리고 아들 라훌라의 탄생은 태자의 출가 결심을 굳힙니다. '모두가 무덤이요. 온갖 모양이 마치 허깨비와 같고 꿈과 같구나.' 태자는 시종 찬다카를 불러 말 칸다카를 타고 말합니다. '모두가 공(空)으로 돌아가거늘 어리석은 이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구나.'

고타마 붓다의 위대한 출가는 2천600여년이 지난 오늘 날까지도 전 세계의 구도자들이 인도로 향하게 하는 나침표가 됩니다. 인간적인 붓다의 생애는 진실함으로 다가옵니다. 길에서 나서, 길에서 깨달음을 이루고, 길에서 다섯 제자와 더불어 설법을 하시고, 마지막마저도 귀향하지 못하시고 길에서 돌아가신 고타마붓다. 붓다께서 남기신 말씀의 상징성을 교리적인 입장에서 맞추고 나면 우리와 가장 닮은 인간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불교의 생명력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인간적 문제가 불교의 종교적, 본질적 문제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신 분. 유훈으로 남기신 '자등명' '법등명'은 분명히 드러냅니다. '유아독존'의 의미를 냉정하리만큼 강조합니다. 결국 종교는 진실성의 문제입니다. 나와 세계의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 먼저 그 길을 가신 인간 붓다이신 것입니다.

글=가연숙 기자 omflower@daum.net
사진=박재완 기자 jwpark@buddhapia.com

Tip

부처님의 일대기를 중심으로 그 의미를 되새겨보는 이번 대중강좌는 3월 26일부터 5월 21일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진행된다.

▶ 문의 및 접수 : 불교인재개발원 (02)735-2428

이제 사찰도 화재보험 가입할 수 있다!

현존 대부분의 사찰은 전통적인 목조건물로 축조되어 있고, 초 · 향 · 장작등에 노출되어 있어 항상 화재 위험이 상존합니다. 또 대부분 산지에 위치하는 관계로 화재발생 시 초기진화가 어려워 막대한 재산손실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불의의 사고에 대한 대비책은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비단 화재뿐만 아니라 사찰을 운영하며 교화표교활동을 벌이다 보면 온갖 사고와 자연재해, 신도들의 인적 물적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찰도 합리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 사찰 종합 보험 상품 안내 ◈

담보내용

| 구분 | 화 재 | 화 재 | 상 해 |
|---|---|---|---|
| 기본 담보 | 화재손해 | 시설소유 배상책임 | 24시간 상해 |
| 선택 담보 | 구내폭발손해<br>풍수재해손해<br>지진손해<br>악의적인 파괴행위 손해<br>협정보험가액 | 물질손해확장담보<br>구내치료비<br>주차장배상책임<br>생산물(음식물)<br>배상책임 | 교통상해<br>간병비<br>질병사망<br>수술비용 |

유의사항
보험회사의 현장위험 실사(실측)후 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시 필요자료
◆각 건축물의 건축(증개축)년도 및 면적
◆각 보험목적물의 종류 및 수용장소
◆각 보험목적물의 구입년도 및 단가

가입 및 상담 문의 011-648-1203 / 010-9996-7700 동부화재 서일석(無着) 합장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206호




불상, 석탑, 석등 사찰공사 전문업체 일심석재
대한민국 석공예명장의 이름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등석 : 황등석은 색상이 아름답고 천 년의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아 절분이 많고 쉽게 부식되는 중국산 수입 돌과는 차원이 다른, 석질이 우수한 익산에서만 생산되는 무절분 화강암입니다.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931-1
전화 063)836-0231 팩스 836-7527
011-673-7527



김옥수 석공예명장

·대한민국 석공예명장
·전라북도 무형문화재(제36호)
·대한명인(06-122호)
·現 일심석재/일심산업 대표이사
·전국기능올림픽 석공예 2위
·대한불교조계종 금산정사 공로패 수상
·원광대학교 대학원 한국사상과정수료
·대한광업진흥공사 석공예기능 훈련강사 역임
·전국 기능경기대회 심사위원 역임
·노동부장관 표창
·대구기능대학교 명예교수
·사)돌문화보존회 이사장
·제9회 돌문화축제위원회 위원장

인터넷에 「김옥수」 또는 「일심석재」를 검색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 보살계 무슨 마음으로 받을까?




**보살계를 받는 길**
영명연수 지음|무비 풀어씀
염화실 펴냄|7000원

"앉아서 받고 서서 파하더라도 그 복이 한량이 없다."

보살계를 설하는 계사들이 수계 대중들을 향해 빠뜨리지 않고 하는 말이다. 보살계를 받는 그 순간의 발심만으로도 복이 한량없다면 생활 속에서 계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마음에는 얼마나 큰 복을 쌓겠는가? 보살계는 우리나라 불자들이 승속을 따지지 않고 가장 많이 받는 대승계다. 그러나 이 보살계를 받고 설하는 근본정신을 이해할 수 있는 안내서는 그리 많지 않다. 보살계를 설하는 필수교재인 <범망경>의 해설서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중적인 이해를 돕는 데는 한계가 있다.

송나라 영명연수 선사의 '수보살계법서(受菩薩戒法序)'는 보살계를 설하는 사람이나 받아 지니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지녀야 하는가를 아주 간절하게 가르치는 명문이다. 영명연수 선사는 <종경록> 100권과 <만선동귀집> 등의 저서로도 이름이 났으며 '유심송' '정혜상자가' '경문' 등 정토에 관계된 글들을 많이 남겼다. 그런 영명연수 선사가 남긴 '수보살계법서'는 우리나라에 전문이 번역 출간된 적이 없고 게사들이 간헐적으로 인용을 하고 있을 뿐이다. "앉아서 받고…"라는 말도 '수보살계법서'에서 인용되고 있다.

영명연수 선사가 말하는 보살계의 근본은 중생이 바로 부처임을 깨닫고 부처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만약 자신을 범부라고 집착하여 문수보살이나 보현보살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곧 일불승의 종자를 말살하는 일이다. 그렇다면 옛 성인은 결코 '많고 많은 번뇌와 업과 미혹들이 모두 다 보현보살의 참다운 진리의 세계다'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중생을 집착하여 부처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곧 시방의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코 <화엄경>에서 '부처와 마음과 중생, 이 셋이 차별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한 대목만으로도 보살계의 대의와 영명연수 선사의 뜻이 충분히 짐작 된다. 임연태 기자

###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 순위 | 도서명 | 저자 | 출판사 |
|---|---|---|---|
| 1 |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 월호 | 마음의 숲 |
| 2 | 나를 깨우는 108배 | 구본일 | 김영사 |
| 3 | 아발로키테슈와라, 당신은 나의 연인 | 월호 | 운주사 |
| 4 |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 월호 | 불광출판사 |
| 5 | 절을 기차게 잘하는 법 | 청견 | 붓다의 마을 |
| 6 | 아름다운 인생은 얼굴에 남는다 | 원철 | 뜰 |
| 7 | 살아 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 법정 | 조화로운 삶 |
| 8 | 하루 108배 내몸을 살리는 10분의 기적 | 김재성 | 아롬미디어 |
| 9 | 고맙습니다 관세음보살 | 이미령 | 불교시대사 |
| 10 | 사찰, 어느 것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다 | 목경찬 | 조계종출판사 |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 길고 긴 '돈점 논쟁' 한 눈에 파악




**돈오선** 월암 스님 지음
클리어마인드 펴냄|2만원

불교의 오랜 논쟁 테마인 돈점(頓漸). 단박에 닦고 단박에 깨달을 것인가, 점차 닦고 점차 깨달을 것인가 하는 문제다.

깨달음을 얻는데 있어 단박이냐 점차냐를 두고 오랜 세월 논쟁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논쟁에 종지부를 찍을 해답은 영영 없는 것일까? 사실 이러한 물음 자체도 또 다른 논쟁의 길을 여는데 불과하다. 돈점논쟁은 그 자체가 시비의 테마가 아니라 수행의 이론이고 실행방법이라는 생각까지 하게 만든다.

돈점의 연원은 멀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교설에서부터 시작됐다. 남전 <상응니까야>나 북전 <아함경>에서 사성제설(四聖諦說)의 고 집 멸 도의 각지(各支)를 낱낱으로 현관하는 점현관과 하나의 지(支)를 보면 나머지 셋의 지를 동시에 보게되는 돈현관을 주장했던 것이다.

당대(唐代)에 이르러 신회에 의해 전개된 '남북돈점' 논쟁은 돈점의 수증방법과 함께 법통논쟁을 포함하기도 했다. '남북돈점'은 신수와 혜능의 가풍을 돈점의 측면에서 나눔으로 역대 조사의 법통이 어느 곳으로 이어졌느냐는 논쟁으로까지 확대된 것이다. 794년 티베트 쌈예대승원에서 중국 선종의 마하연 스님과 인도의 까마실라 스님 사이에 벌어진 돈점논쟁도 유명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려시대 보조 지눌 스님에 의해 돈점 수증론이 제기되었다. 돈오점수적 입장을 견지하는 보조지눌의 돈점론은 반론을 받지 않으며 긴 세월 전승되어 왔다. 그러나 1980년대 초 성철 스님이 <선문정로>를 통해 돈오점수를 비판하고 돈오돈수가 선문의 전통 수증론이라고 주장 함으로써 새로운 돈점 논쟁의 불씨를 당겼다. 물론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큼 치열한 논쟁이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돈점문제를 세상에 보여주고 긴 '화두'를 드러낸 성과는 적지 않다.

돈점 논쟁은 자칫 언어의 유희로 흐르기 쉽다. 수행과 깨달음은 철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데 언어로 전개되는 논쟁은 논점을 흐릴 수 있는 것이다.

종교적 실천의 담보 없이 돈점논쟁을 '즐기는' 무리들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염려는 승속이 공유한다.

월암 스님(사진)은 <돈오선>을 통해 돈점논쟁의 연원을 포괄적으로 고찰하고 정확한 개념 정립을 통해 전체 수증론의 유기성과 회통성을 종합적으로 조망하고 있다. 돈점논쟁의 물밑에는 돈오선이라는 거대한 사상적 모토가 자리하고 있다.



돈오선의 근원적 가치를 인식할 때 돈점논쟁의 뿌리와 곁가지를 함께 파악할 수 있다는 인식, 그것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수행하고 어떻게 깨달을 것인가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이기도 하다.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 자녀 다루는 '비법'은 없다




**부모를 위한 달라이라마 자녀교육법**
슈테판 리스 • 안네 베르벨 퀼레 지음
박규호 옮김|현문미디어 펴냄|1만원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다. 또한 아이의 눈에 부모는 마치 절대자와 같다. 반면 아이는 부모에게 미지의 세계를 선물한다. 아이에게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형성의 첫 시작은 부모로부터 비롯된다. 그런 의미에서 달라이라마가 제안하는 가정교육법이 요즘 시대에 더욱 소중한 가치를 지닌다.

'사성제'의 네 가지 근본 진리를 바탕으로 하여 전반적인 삶의 관리와 문제 해결 방법을 설명한다. 기존 육아 교육서와의 차별 점은 여유로운 마음을 준비할 것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아이를 다루는 비법이란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달라이라마의 생각이다.

부모가 된 이상 아이를 잘 보살필 능력을 갖춰야 한다. 아이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 동시에 부모는 변화하는 아이들의 인성을 통해 함께 하는 삶의 기쁨을 맛보게 된다. 보편적인 가정교육 원리의 지침을 실행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의 영혼 안에 숨은 우주와 조우하게 될 것이다.

가연숙 기자

## 삶의 지혜 하나로 엮어




**꽃향기를 훔친 스님**
퇴휴 지음|사유수 펴냄
1만원

흔들림 없이 걸어온 출가의 길 40년. 퇴휴스님이 법장사의 월간 사보(寺報) <영산회상>에 연재된 지상설법을 묶었다. 퇴휴 스님이 직접 불자들과 함께 호흡하며 나눈 정법(正法) 정도(正道)의 현장이 책 속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경전의 말씀과 일상의 사건을 연관 지어보면서 편안하게 읽고 공감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꽃향기를 훔친 스님'은 사람에 따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도덕적 잣대가 차별 있음을 비유로써 풀어 보인다.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고독원에 계실 적에 한 수행승이 눈병에 걸렸다. 치료를 위해 연꽃의 향기를 맡고 계셨다. 그 때 주지 않은 것을 취함에 대한 천신의 궤변이 이어졌다. 어질고 슬기로운 사람은 작은 허물에도 세간의 이목을 끈다는 비유이다.' <잡아함>50권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 비록 일관성 없는 세상의 평가이지만 지도자의 도덕성과 책임 의식은 강조되어야 한다는 대목이다.

불자가 지녀야 할 신행 생활의 이모저모는 물론 올바른 불자로서의 삶의 방식은 어떠해야 하는가 궁금했던 독자라면 한 번 쯤 읽어 봐야 할 책이다. 가연숙 기자

## 월간 '불광' 2008우수전문잡지 선정




월간 <불광>이 '2008 우수전문잡지'에 선정됐다.

한국잡지협회(회장 노영현)는 4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선정한 우수잡지 중 42종을 우수전문잡지로 선정했다. 심사에는 이광재 명예교수(경희대), 성도경 심의위원(간행물윤리위원회), 박상건 연구위원(신문발전위원회), 주은수 소장(미디어경영연구소) 등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월간 <불광>은 1974년 11월, 광덕 스님이 창간해 쉬운 교리와 유익한 정보 등으로 불자들의 지적 욕구와 소통을 충족시키며 불교잡지의 전형이 됐다. 1994년 '제3회 문공부 선정 우수잡지' 선정, 1997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 특별상' '2005년 조계종 포교사단 감사패'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현재 불교잡지 중 최대 발행부수를 자랑하는 월간 <불광>은 정기구독자 외에 전국의 교도소, 군부대,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에도 발행부수의 20%이상을 꾸준히 보내며 소외된 이웃들과도 함께 해왔다. '2008 우수전문잡지'에 선정된 월간 <불광>은 2008년 한 해 동안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도서관, 군부대 봉사관 등 44개 처에 확대 보급된다. 조동섭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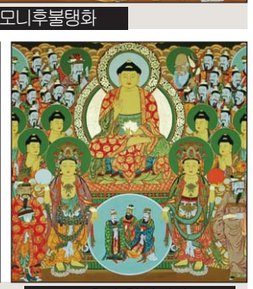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저
바로보인 무문관 / 바로보인 벽암록 / 바로보인 천부경
바로보인 금강경 / 바로보인 신심명 / 바로보인 증도가
바로보인 반야심경 / 바로보인 선가귀감 / 바로보인 전등록 전5권
영원한 현실 / 주머니 속의 심경 / 바로보인 법융선사 심명
선을 묻는 그대에게 1, 2권 /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5권
세월을 북채로 세상을 북삼아 / 앞뜰에 국화꽃 곱고 북산에 첫눈 희다
바로보인 선문염송 전30권 중 11권 ***

법회 안내
매월 첫째 일요일 서울 육조정맥선원 선가귀감 법문 02-3494-0122
매월 둘째 일요일 국제 육조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31-531-8805
매월 셋째 일요일 광주 육조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62-944-4088
매월 넷째 일요일 부산 육조정맥선원 반야심경 법문 051-503-6460
02-3494-0122 www.zenparadise.com


보은사 석가모니후불탱화

보은사 신중탱화

보은사 칠성탱화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6-219-7180/011-743-51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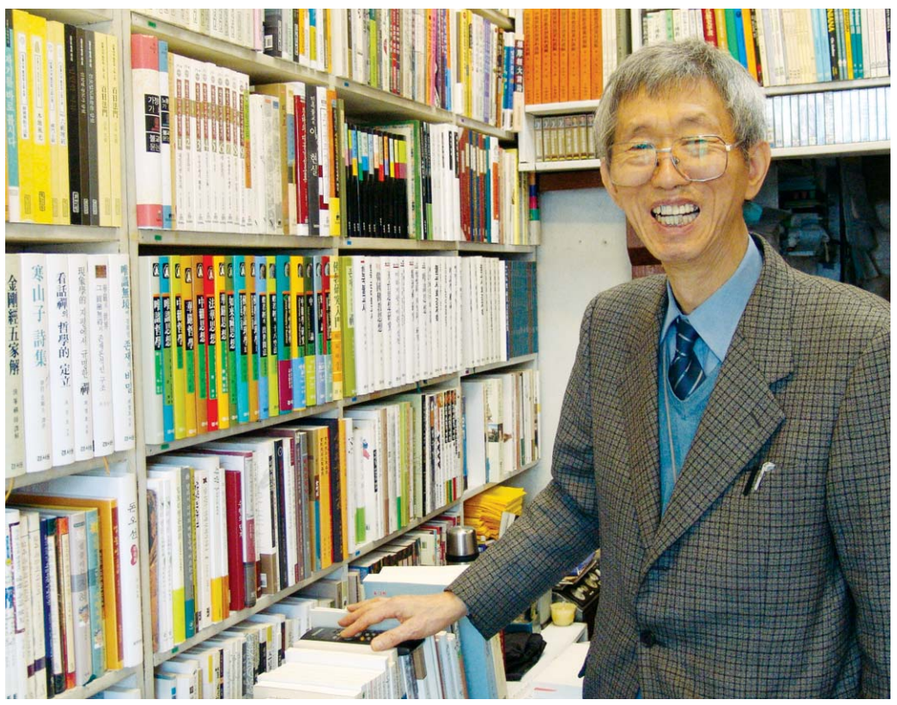
사단법인 대한호국 불교 소림선종
입종안내
달마조사께서 주석 하셨던 중국 숭산소림사의 달마조사 33대제자 석영신방장 큰 스님으로부터 대한호국불교 소림선종 총무원장 덕산 석연화 큰 스님과 10여명의 소림선종의 스님들이 달마조사 34대제자로 중국 숭산소림사 큰 법당에서 소림 1600년사에 외국스님들에게는 최초로 금년 1월 23일 수계법회가 여법히 거행되었음을 중국언론에서 특종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를 기념하는 행사로 중국 숭산소림사 석영신방장 일행 23명의 소림스님들이 서울 인사동 소재 중국 숭산소림사 한국문화원본부 현판식 참석 및 소림무술 공연 행사를 (2월 18일~2월 21일) 서울 신촌 봉원사와 원주 소림선종 본찰 용화사, 부산 해동용궁사에서 거행하였고 그리고 본 종단의 숙원 사업인 소림승가대학과 소림중앙선원 소림무술학교 건립불사를 시행하여 본 종단의 면모를 여법히 갖추고져 합니다. 이에 때를 같이하여 뜻을 함께하실 대덕큰스님과 종도 및 행자님을 모시고져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중국소림사에서 달마조사의 제자로 수·도계첩 수여(입종비:15만원)
◇입종시 : 사찰등록증, 주지 임명장, 승려증부여
◇입종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2통, 승려증사본 2통, 이력서 1통, 여권사진 5매
소림문화원 개원에 따른 수강생 모집
(개강일 4월 1일)
■ 명상수행 : 새벽반, 오후반(무료)
■ 서화(동양화) : 주 3회 2시간 청곡 이한동선생(3개월 10만원)
■ 서 예 : 주 3회 2시간 석천 김기섭 선생
■ 소림무술 : 소림무술스님 : 석연체스님, 석연탁스님(소림사 석영신방장님제자), 스님 무료(입종스님에 한함)
■ 대상 : 스님, 일반인, 학생
중국 숭산 소림사 한국문화원
소림선종 총무원 :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170번지 동일빌딩 6층
전화 02)720-6363 / 팩스 02)720-6340 / 담당 010-6438-3561
인터넷 동영상 : (야후) 연합불교방송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안녕하세요
크신 은혜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 드리며
2008년은 더욱 크신 기도의 보시공덕으로 가정이 늘
번창 하시고 행복 하시기 기원 드리겠습니다.
처음처럼 늘
의지의 열정을 갖고
일 하겠습니다.
좋은 인연 좋은 만남의
행복한 성혼을 이루 십시요.
2008년은
새로운 도약의 해로
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大卒, 초 · 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
1호선 영등포역 3번출구
신세계 백화점 맞은편
금강약국 200m지점
※ 전화 상담 후 방문약속
현대결혼연구원에서 좋은 느낌, 좋은 인연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원장 이영숙(법명 : 無生子)
사무실 : 02)2677-5442
휴대폰 : 011)288-2944
현대결혼연구원

# “한 권만 팔려도 공부하는 이에 도움된다면…”

불서를 만드는 사람들

**경서원** 수필가 윤오영 선생의 수필집 〈곶감과 수필〉에 수록된 ‘방망이 깎던 노인’은 국어 교과서에도 실렸을 정도로 빼어난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윤오영 선생은 무뚝뚝하지만 묵묵히 전통 방식으로 방망이를 깎던 노인의 장인정신을 아름답게 그려냈다. 더불어 ‘시대의 변화’에 대한 아련함, 애달픔도 함께 섞어놓았다. 서울 조계사에서 바로 조금만 길거리로 나오면 ‘경서원(대표 이규택 · 사진)’이라는 간판을 발견할 수 있다. 유심히 보지 않으면 그냥 지나칠 정도로 아담한, 3평이나 될까하는 책방이다. 간판은 너무 오래 돼서 그 원래 색이 무엇이었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다. ‘옛날 책방은 이랬다더라’ 싶어서 기웃거리다 보면 ‘책방 경서원’은 꼭 시간 여행의 통로처럼 느껴진다.



### #30년 한자리 지키며 ‘양서’ 고집

책방 경서원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3면의 벽에 4000권의 불서가 빽빽하게 꽂혀있다. 그 속에서 가게 안쪽으로 딱 하나 놓여있는 책상에 늘 앉아있는 사람을 어렵잖게 발견해 낼 수 있다. 그가 바로 책방 경서원의 사장이자 도서출판 경서원을 이끌고 있는 이규택 대표다.

책방이 곧 출판사 편집 작업실인지라 이 대표와의 인터뷰는 약속 시간도 별로 필요치 않았다. 그저 책방에 한 번 들르라는 말 뿐이었다. 그렇게 찾아갔건만 이 대표는 요즘 나올 책을 만드느라 바쁜 모양이었다. 대화를 나누기 위해 곁에 다가가 “바쁘세요?”라고 물으면 무뚝뚝한 경상도 억양으로 “예”라고 딱 한 마디 할 뿐 눈은 컴퓨터 모니터에서 뗄 줄을 모른다. 요즘 〈신회어록〉(정유진 저)을 만드느라, 예전에 출판됐던 세로본 간행물들을 재출간 하느라 바쁘긴 할 터였다.

경서원에 대해 옛 이야기를 들을 요량으로 역사와 전통에 대해 물어보자 그는 또 뜻밖에도 선선이 이야기를 해준다. 가끔은 추억에 잠긴 듯 허공을 보면서, 또 가끔은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머금으면서. 그 이야기 속에서 거의 30년간 한 자리를 지킨 이 대표의 고집과 정성, 그리고 책에 대한 자신감을 엿볼 수 있었다. 거기 녹아 있는 이 대표의 모습은 고집스레 ‘방망이를 깎던’ 윤오영 선생의 ‘노인’과 오버랩 된다.

경서원은 어쩌면 개인출판사로는 불교계에서 가장 오래된 곳일 것이다. 이규택 사장이 지금 경서원 자리에 들어온 것은 1978년, 도서출판 일을 시작한 것은 1965년이었다니 말이다.

이 대표가 경서원을 설립해 맨 처음 펴낸 책은 지금은 절판돼 구할 수 없는 〈반야심경 강의〉(한길로 지음, 1965)였다. 1965년이면 출판 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때라 ‘가리방(줄판)’이라 불렸던, 얇은 기름종이(등사원지)에 철필이나 수동 타자기로 글씨를 새긴 뒤 등사판에 대고 롤러로 밀어 책을 펴내야 하던 시기였다. 이 대표는 “(등사하기 위해) 연탄불 때가며 책 조판하느라 힘깨나 들었다”면서 “요즘은 그 때 비하면 책 하나 만드는 거 금방”이라 말한다. 그렇게 그는 등사로 책을 찍어내던 시절부터 컴퓨터 편집 · 조판 시대를 꿰뚫어 불교서적의 명맥을 이어온 것이다.

### #세상이 바뀌어도 지켜야할 가치

“사명감, 뭐 이런 이야기하는데 처음부터 꼭 이쪽에서 일해야겠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출판도 하다가 쉬고를 반복하기도 했고…. 어쩌다 보니 이렇게 오래됐네요.”

머쓱하게 웃으면서 꾸밈없이 말하는 이 대표. 손님들도 그와 닮았는지 가끔 책방에 들러서는 반갑단 말 대신 “아직도 출판 하느냐”고 말한단다. 물론 그 속에는 ‘격변하는 시대 속에서 아직도 자리를 지켜줘서 고맙다’는 말이 숨어있을 테지만.

경서원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도서가 오경웅(John C.H.Woo)이 엮고 류시화가 번역한 〈선(禪)의 황금시대〉다. 저자 오경웅이 중국 선사들의 일화를 엮어 선(禪)의 정신을 알린 이 책은 1986년 초판을 발행했고 2005년 재간행, 10만부의 판매고를 올렸다. 이 책에 대한 이 대표의 애정도 특별하다.

“한번은 저자 오경웅씨의 딸이 우리 책방에 찾아왔어요. 아버지 책을 만들어줘서 고맙다면서 표지를 유심히 살펴보더라고요. 원본에 쓰였던 그림을 표지에 그대로 살려 썼다면서, 그걸 또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사실 경서원에서 출판한 책 250여종의 목록을 보면 〈선의 황금시대〉는 좀 쉬운 편에 속한다. 일본 · 인도 · 티벳 불교 서적 번역본에서부터 학술서적을 주로 만들어내는 출판사다 보니, 선택된 독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다가가는 출판사가 아닌가 싶다. 이 대표에게는 그러나, 나름대로 이렇게 출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

“처음 책 만들 때, 공부하는 불자들이 많아졌을 했어요. 불교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불자 지식인들을 많이 키워야겠다 싶었고요. 그래서 학술 서적을 많이 만들어냈지요.”

학술서적들의 판매고는 썩 좋은 편이 아니다. 이 대표는 “어떤 책은 300권 찍어 10년도 더 팔고 있다”고 털어놓는다. 하지만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래도 어째, 만들어야지.”

그렇다고 이 대표가 ‘쉬운 불서’를 싫어하는 것은 아니다. 쉬운 책부터 어려운 책까지 다양하게 출판 돼 각양각색의 취향을 가진 독자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다만 그의 고집은 ‘불교 학술서적’ 내는 작업의 한 축을 맡겠다는 것이다. 그것이 팔리는 책이든 아니든. 누군가는 사서 두고두고 볼 책을 만드는 것이 그의 출판 목적이기 때문이다.

### #“며느리에게 물려주기로 했지”

이 대표는 요즘 출판 일을 혼자서 모두 맡고 있다. 사실은 인근 대형 서점에서 책 주문이 들어오면 그 배달까지 함께 하고 있다. 힘들지 않냐고 물으면 “취미생활 삼아 생각하면 힘들 것 없다”는 반응이다.

이 대표는 5개월 전부터 이렇게 혼자 해 온 일들을 며느리 김현희씨에게 조금씩 전수하고 있다. 그의 책상 앞에 빼곡히 붙은 연락처, 전표, 출판기획서들이 이제 대를 물려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사람들은 3대, 4대 가업을 잇는 경우가 많던데 그게 참 부러웠어요. 특히 이 책방과 출판사를 꼭 대를 이어 하고 싶다했는데, 며느리가 뜻을 이어받게 됐어요.”

그는 정말 즐거운 듯 활짝 웃어보였다. 오랫동안 한 자리를 지킨 이 대표의 의지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에, 학인 스님과 경서원의 향수를 공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서원의 이름이 남을 수 있다는 것에 그는 진심으로 기뻐하는 듯 했다.

“경서원은 조금씩 조금씩 성장해왔습니다. 만약 떠벌리면서 일을 해왔다면 결코 이렇게 오랫동안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조용하게 책방과 출판사를 지켜가도록 하겠습니다.”

글 · 사진=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

한 권의 불서 성불의 씨앗

불서 읽기 캠페인

내 인생의 불서 한 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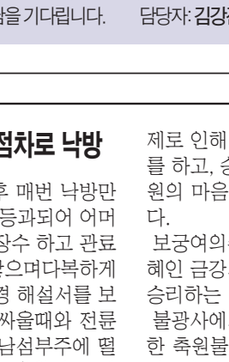
서양의 붓다

헤라클레이토스 강론 · 오쇼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태일출판사|1999

조계종 포교사단 임희웅 전문포교사

## “심리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해”

불자라면 누구나 깨달음에 이르고자 할 것이다. 나 역시 그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찾기 위해 많이 헤매고 있으며, 많은 경전들과 선학 및 조사님들의 어록들을 들추면서 그 때 그 때 자신을 채찍질해보지만 너무나 막연하고 자꾸 더 안개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행여나 하고 책방을 찾곤 한다. 어느 날 책방 책꽂이에서 〈서양의 붓다〉를 발견하고 몇 장을 들추다가 머리에 신선한 스침을 느끼게 하는 구절들을 발견하고 집에 돌아와 탐독하면서 나의 불교 공부에 많은 것을 이론적으로 개념화 하는데 도움을 받았음은 물론 평상시 나의 생각의 틀을 바꾸고 신행생활을 체계화 하였으며, 포교 활동과 교육활동에도 많은 도움과 확신을 준 좋은 길잡이가 되어준 책이기에 소개하고 싶다.



### 깨달음 찾아 헤매고 있을때 신선하게 다가와 포교 · 교육활동에 많은 도움과 길잡이 역할

책에 나오는 몇 구절을 소개하면 이렇다. ‘자신이 먼저 변해야 한다’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신성하다, 이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교회에 가고 절에 가도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변화가 필요한 것은 그대이지 상황이 아니다. 상황은 똑 같다. 절 밖에도 절 안에도 부처(원문에는 신으로 표기되어 있음)는 있다. 부처는 어디에나 있다. 그런데 그대는 이것을 보지 못하고 장소를 바꾼다. 그대는 집을 떠나 절에 가서 부처를 찾는다. 내적인 변형이 필요하다. 상황을 바꾸는 것은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심리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사물을 보는 새로운 눈이 필요하다. 그러면 돌연 세상 전체가 절이 된다. 절 이외에 아무 것도 없다”고 말한다. 이어 ‘만들어진 신’에서는 “신은 우리가 만들어 낸 것이지 신이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이제 나는 이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한 신(하나님)에게 기도할 수 있다. 그가 나를 도와 줄 것이다.” 이것은 속임수다. 나를 도울 사람은 나 자신밖에 없다. “기도란 자연과 보조를 맞춘 것이다.” 그대가 자연과 보조를 맞춘다면 자연도 그대와 보조를 맞춘다. 다른 기도는 아무 소용도 없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유일한 기도다. 그대의 기도를 듣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대가 우주와 보조를 맞춘다면 우주 또한 그대에게 협조한다. 그 외에 다른 기도는 없다.

또, “주인공(마음)이 집을 비우고 어딘가에 가서 방황하고 있다”는 말도 있다. 고대 티베트의 경전에 나오는 말이다. 신(진리)이 아무리 그대를 찾아와도 그대가 어디에 있는지 발견하지 못 한다는 것이다. 신이 그대의 문을 두들긴다. 하지만 집주인이 외출 중이다. 그는 항상 다른 곳에 가 있다. 신을 찾아갈 필요가 없다. 그저 집에 앉아서 기다리면 그가 올 것이다. 신이 그대를 발견할 것이다. 그대가 신을 찾듯이 신 또한 그대를 찾고 있다. 집에 머물러라, 그래서 신이 왔을 때 그대를 볼 수 있게 하라. 신은 수 없이 그대를 찾아와 문을 두드리고 기다렸다. 그런데 그대는 집이 아닌 다른 곳에 가 있다.

‘내인생의 불서 한권’은 불서를 통해 삶의 지혜를 얻거나 행복을 새롭게 발견한 체험담을 싣는 코너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생생한 체험담을 기다립니다. 담당자: 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장사 성공의 법구 금강삼고저

안되는 장사, 안되는 사업, 산재 사고도 예방



경기가 너무없어, 장사가 너무안되, 문을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않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풍수학적으로 보면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다.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

**개업 선물로도 품격! 사업 성공의 선물로도 품격!**

**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법구인 금강삼고저는 밀교법구로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가 보기만 해도 도망가고 화로부터 사업장의 안전을 지키며 사업장의 성공을 위해 동서사방에서 인연의 귀인들을 불러드리는 영험의 법구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경제대국 일본의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수있다. 불심사에서 장사흥왕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문안쪽 위에 걸어 놓으면 금니로 제작해 품위도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보시가격: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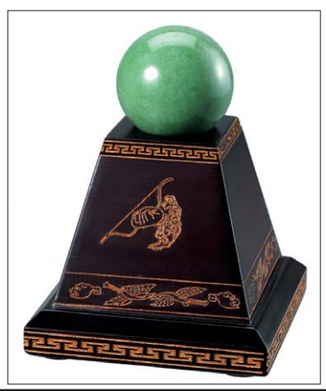
장사와 사업 흥왕의 비방 법구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타,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상,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영험의 구슬

보궁여의주

필승합격과 승진의 영험



여의주는 글자 그대로 원하는것이 이루워 진다는 구슬이다.

전설에 따르면 아들형제를 데리고 어렵게 살아가는 어머니가 남섬부주 바닷가에 떨어져 있는 구슬두개를 너무나 아름답고 신비해 집에 가져왔다.

집에는 관료가 되어 어머니를 편히 모시겠다는 형제가 시험만 보면 번번이 낙방을 하며 세월만 보내고 있었다. 아들에게 집에 오는길에 예쁜 구슬을 주었다고 보여주었다. 구슬을 본 형제는 참 신비한 구슬 갖어요, 어머니는 아들 형제에게 하나씩 주었다. 그후 매번 낙방만 하던 형제가 그해 관료에 등과되어 어머니는 소원을 이루고 건강장수 하고 관료가된 형제는 큰 공덕을 쌓으며다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각종 불경 해설서를 보면 제석천왕과 아수라가 싸울때와 전륜성왕이 바위를 부술때에 남섬부주에 떨어져 변한것이라고도하고 용왕의 몸에서 나와 사람이 여의주를 집안에 두고만 있어도 독이 헤칠수 없고 불속에 있어도 타지않고 권세와 명예를 얻는 공덕이 있는 구슬로 사갈라 용궁에도 있고 여의륜관세음부처님 두손에도 들고있어 중생들이 뜻한바가 이루워지는 비방의 법구로 삼고 있다. 시험을 보고나면 꼭 1~2점차로 낙방을 한다. 수험생들은 한두문제로 인해 1년을 또 고통속에 시험 준비를 하고, 승진시험도 승진심사날 심사위원의 마음이 누구에게 가느냐에 달려있다.

■시험을 보면 꼭 1~2점차로 낙방

보궁여의주는 수험생에게 부처님의 지혜인 금강의 지혜를 주고 부처님 가피로 승리하는 비방의 법구다.

불광사에서 필승합격과 필승 승진을 위한 축원불공을 마친 보궁여의주는 길상원목으로 품위있게 제작하고 수험생의 필승합격을 위해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 축원불공을 해드리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준다. (신용카드분할가)

보시가격:95,000원

문의(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원하는 계획이 성취되는 영험



남성용금나노반지갑

여성용은나노장지갑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소중한 남편과 자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닿지 못하고 법구가 무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역시 연이되면 돈이 동서 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 않고 고통만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점안불공과 축원불공을 마친 大다라니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돈이 들어오게 하는 비방의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 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고급소가죽에 금나노, 은나노 처리 까지한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불광사에서 지갑 사용하실 분 의 물질의 소원과 원대한 계획이 성공되게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 축원불공을 해드린다. 남성용 금나노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은나노장지갑95,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송찬우 교수의
수습지관좌선법요 <31>
(修習止觀坐禪法要)

제4장 조화(調和)③

# 몸과 호흡과 마음 하나로 조화를

二調睡眠者 夫眠是無明惑覆 不可縱之 若其眠寐過多 非唯廢修聖法 亦復喪失功夫 而能令心闇昧 善根沈沒 當覺悟無常 調伏睡眠 令神氣淸白 念心明淨 如是乃可棲心聖境 三昧現前 故經云 初夜後夜 亦勿有廢 無以睡眠因緣 令一生空過 無所得也 當念無常之火 燒諸世間 早求自度勿睡眠也

두 번째로는 수면을 적당하게 조절해야 한다. 만일 지나치게 수면을 취하면 마음이 혼침에 빠지고 너무 적게 자면 몸에 손상이 오기 때문에 반드시 이를 알맞게 조화해야만 한다.

수면은 무명의 깜깜한 법이어서 우리의 신령하게 밝은 본성을 미혹으로 덮어버리기 때문에 절대로 멋대로 수면을 취해서는 안 된다. 사람이 수면에 들기 이전에는 정신이 분명하고 역력하지만 한번 수면에 빠지면 의식이 껌껌해져 육정(六情)이 어둡게 닫히게 된다.

그러므로 지나치게 수면에 빠지면 성스러운 법에 대한 수행이 중지될 뿐만 아니라 세월도 부질없이 보내게 되어 공부에 손실을 입게 된다.

결국에는 마음이 껌껌하게 어두워져 일체 선근을 미혹하기 때문에 이로부터 번뇌생사에 침몰하게 된다. 때문에 수행자라면 방종하게 수면을 취해서는 안 된다.

수면을 취하려고 누울 경우에는 무상한 이치를 맹렬하게 살피고 깨달아서 일찍부터 자신을 제도할 일을 생각해야 한다. 수면을 반드시 조복받아 항상 정신과 기운을 맑게 하면 마음에 자연스럽게 고요한 지혜 광명이 일어날 것이다. 이와 같이 수행해야만 부처님 경지에 마음이 머물면서 삼매가 목전에 환하게 나타날 것이다.

경전에서는 말하기를 "저녁이 되어도 수행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정진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초저녁 잠 들기 전에만 성성적적하게 마음을 쓸 뿐만 아니라 한 밤중 몸이 한가할 때라도 신령하고 어둡지 않는 마음을 명료하고 맑게 관조하면서 오늘 하루가 지났으니 수명도 역시 따라서 하루가 감소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만 한다.

이것은 마치 언제 마를 줄 모르는 작은 물속에 사는 물고기와도 같은데, 여기에서 무슨 즐거움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러한 점을 생각한다면 수면의 인연 때문에 부질없이 일생을 보내면서 전혀 깨달은 바가 없는 일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또 현재 무상이라는 불이 모든 세간을 태운다고 생각해야만 된다. 이것은 법화경에서 말한 "삼계가 불안한 것이 마치 불타는 집과 같다"라고 하였듯이 이 무상한 세간은 온갖 고통이 충만하여 매우 공포스럽기만 하다.

**수면을 적당히 조절해야 수행이 성취되고**
**몸을 알맞게 조화해야 선정에 들기 쉬워**

따라서 일찍부터 삼계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추구하여 수면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또 인생무상에 대해서 옛 큰스님은 "이 몸을 금생에 제도하지 않는다면 다시 어느 생에 제도하랴" 라고 하였다.

이 게송이야말로 진실하고 분명한 훈계인데, 수행자라면 이 뜻을 살펴 맹렬하게 수면을 조복받고 용맹 정진해야만 할 것이다.

三調身 四調息 五調心 此三應合用 不得別說 但有初中後方法不同 是則入住出相有異也

외적조건에서 조화하는 수면과 음식에 대한 설명은 끝내고 이제부터 내적으로 반드시 조화해야 할 몸의 조화, 호흡의 조화, 마음의 조화 등 세 종류에 관해 설명하겠다.

그러나 이 세 종류를 반드시 일시에 합해서 조화해야 하는 이유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어서 서로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그 요점을 말해본다면 몸을 조화하는데 있어서는 너무 느긋하게 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급하게 해서도 안 되며, 호흡을 조화하는 문제는 거칠어도 안 되고 매끄러워서도 안 되며, 마음의 조화는 너무 가라앉아서도 안 되고 들떠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단지 몸의 조화, 호흡의 조화, 마음의 조화 등 이 세 가지가 방법이 같지 않을 뿐이다. 처음에는 반드시 몸을 조화해야 하고 그 다음으로는 호흡을 조화해야 되며 마지막으로는 마음을 조화해야만 한다.

이를 조화하는데 있어서는 들어갈 때와 머물 때와 나올 때의 모습에서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해 선정에 들어갈 때는 거친 곳을 따라서 미세한 곳에 이르고, 선정에서 나올 때는 미세한 곳에서 거친 곳으로 나와야 한다.

몸의 조화, 호흡의 조화, 마음의 조화 등 세 가지는 낱낱이 다 들어가고 머물고 나오는 세 가지 모습이 있다. 때문에 차이가 있게 된 것이다.

夫初欲入禪調身者 行人欲入三昧調身之宜若在定外 行住進止 動靜運爲 悉須詳審 若所作麤猥則氣息隨麤 以氣麤故 則心散難錄 兼復坐時煩獷 心不恬怡 身雖在定外 亦須用意逆作方便 後入禪時 須善安身所得

여기에서는 처음으로 선정에 들어가려고 할 때 몸을 조화하는 모습에 대해 말하고 있다. 수행자가 처음 선정에 들어갔다가 나오려면 우선 반드시 신체를 알맞게 조화해야 한다. 그래야만이 선정에 들어갈 수 있다.

즉 아직 선정에 들어가기 이전, 선정 밖에 있을 때 이 몸의 행 주 좌 와로 이루어지는 사위의(四威儀)의 사이에서 이 모든 행동을 반드시 자세히 살펴 몸에 알맞도록 조화를 해야만 한다.

만일 하는 행동이 모두 거칠면 몸에서 나오는 호흡과 기운까지도 따라서 거칠어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마음은 산란하여 수습하기 어려워지는데, 마음이 산란하면 마음을 전일하게 쓰기가 어렵다. 따라서 좌선을 할 때에도 마음속에 번뇌의 시끄러움이 일어나 고요하고 편안하지 못하게 된다.

이렇다면 선정에 들려는 마음은 번뇌의 시끄러움에 방해를 받게 된다. 때문에 수행자라면 몸이 비록 선정에 들지 않았을 때라도 반드시 그 방편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알고 행하여 몸이 거칠게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

이는 "걸어도 선이고 앉아도 선이고 말을 하거나 말이 없거나 움직이거나 고요하거나 이 모두에서 몸이 편안하다" 고 한 말에 해당된다.

■중앙승가대 교수
cafe.buddhapia.com/community/song

쉽게 풀어 쓴 불교 기본교리

## 선심소(善心所)

② 무탐심(無貪心)

'무탐심(無貪心)'은 모든 중생들이 무시이래의 탐욕심을 대치하며 번뇌의 오염과 집착을 없애 주는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탐욕 없는 마음'은 오랜 탐욕으로 생겨난 잘못된 습기를 정밀하게 살펴 탐욕의 마음이 다시는 발동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금지하고 끊는다는, 즉 수행 의지적인 측면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없다(無)'는 것은 단순히 자체로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올바른 의지를 통해서 없앤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외부와 동떨어진 따로의 독립적인 개체로서 사유물(私有物)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과는 달리 근원적인 이치의 측면에서 본다면 나의 몸은 원래 천지만물과 하나의 자체로 그 기맥이 소통합니다.

이러한 이치를 두고 불교에선 '삼계일심(三界一心)'이라는 단 한 마디의 말로 그 실상의 이치를 갈파하고 있습니다. 이치가 그렇다면 자신인 개인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천지만물과 하나화 된 경지에서 우리의 육신을 관찰하고 일체의 개인적인 탐욕심을 버린다면, 천지와 동일한 이치로서 자득의 경지에서 각자의 모습이 자기의 처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랜 탐욕으로 생긴 잘못된 습기**
**올바른 의지 통해 없앤다는 의미**

이치가 이러한대도 중생들은 무엇 때문에 조그마한 자신의 형체에만 구애되어 허망한 탐욕과 집착심을 일으킴으로써 본래 밝은 자성해탈의 모습을 질곡 속박으로 망하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형체는 외면상 객관적인 사물과 주관적인 나 자신으로 따로 분류된 듯 하나 근원적인 자성의 보편성이라는 이치에서 본다면 원래 사물과 자신은 피아(彼我)의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중생의 탐욕심이 이 같은 이치를 등지고, 육신만을 사욕으로 집착하고 그것에 구속된다면 반드시 본성의 이치는 질곡으로 속박되어 본래 진실한 자성의 이치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것이 모든 삼계생사의 끝없는 순환의 시발점이자 그 끝을 알 수 없는 상속유전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러한 이치를 엄밀하게 살피고 그 동안 잘못되었던 무탐심에 대치되는 여덟 종류의 탐심, 즉 자체탐(自體貪) 후유탐(後有貪) 사속탐(嗣續貪) 남녀탐(男女貪) 자구탐(資具貪) 탐탐(貪貪) 개탐(蓋貪) 견탐(見貪)을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정리=張如舟


발 로 해
(특수기능성 두한족열 양말)


발로해가 오리지날 기능성!
유사품이 가격은 비싸고 품질은 떨어집니다
◉절수행 최고의 수행도우미!
(법당에서,참선,명상,성지순례,등산,운전,고시수험생)
◉양말 내부의 금강저문양과 도트에서
노폐물,독소,나쁜기운 빼는 특급비밀!
◉신는 순간 발이 따뜻해지며
매끈매끈,보들보들,보송보송 100%보장!
한국인의 희망 KBS (생로병사의비밀, VJ특공대, 감성매거진 행복한오후)출연
SBS스페셜 (0.2평의 기적)출연 BBS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출연
동아일보 한겨레 법보신문 현대불교신문 등 기사 다수
특별판매가 : 2만원 (배송은착불)
주문처 : 서울법당 ( 02 )-456-0035
부산법당 (051)-583-7886
대구법당 (053)-743-0063
인터넷한글도메인 : www.법왕정사.kr
오! 쏘스연꽃

천안기와공장 천안기와공장 천안기와공장 천안기와공장 천안기와공장

50년 이상 지붕이 절대 걱정없는
칼라 함석이 한식형 기와로 제작되었음
검은색, 녹색형은 지붕 평당 12만원,
황금색 기와 지붕 평당 17만원에 시공함
지붕 보수공사 합니다
천 안 기 와 공 장
011-9820-0112 / 041)554-0112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부처님의 말씀을.. 스님의 법문을..
황홀한 아름다운 풍경을 가슴에 담고
추억의 마음에 남기면서
잊지 못할 한순간 한순간을
작은 공간에 가득히 담아 소중히 담아
영원히 남기세요
풍경 영상과 함께..... 풍경 영상 기획 사업부
사찰홍보, 사찰행사, 자서전(다큐멘타리)
단체 사찰성지순례, 스님 강의, 법문
• 약력 : – 한국비디오 작가 연합회 정회원
– 한국디지털 비디오 영상 편집실 실장
– 방송 아카데미
– VJ특공대
– KDV 경남본부장


풍경영상기획 055)755-2695, 746-2778
※ 신문구독 신청받습니다.
현대불교신문사 경남남부지사 055)867-0776

# “쾌락 따라가면 하근기 마음 다스릴 때 상근기”



혜국 스님(금봉선원장)

## 마음에 불평 가득하면 행복 멀어져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곧 ‘깨달음’



새벽 예불을 마치고 법당을 나오니 고양이 한 마리가 내 뒤를 쫄레쫄레 따라온다. 동이 트려면 아직도 한참을 기다려야 할 만큼 짙은 어둠이 도량을 감싸고 있으니 아마도 길을 안내해주려는 심사인 것 같다. 고양이는 목탁소리를 듣고 자라서인지 희한하게도 풀을 뜯어먹는다고 하니 전생의 습에서 벗어나려 애쓰는 것이 기특하기만 하다.

혜국 스님의 처소에 들어서니 너덜너덜하게 깨어진 죽비 한 자루가 눈에 들어왔다. 누가 너를 예까지 끌고 왔느냐고 물어주기를 기다렸다. 너를 예까지 끌고 온 그 주인공을 알고 있느냐고 저 죽비로 다그쳐주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그런 선문답의 기회는 선객에게나 주어지는 것, 공부와 무연한 사람에게는 닿지 않는다.

석종사는 신라 때 지어진 고찰이지만 삼층석탑만이 그 흔적을 말해 줄 뿐, 과수원에 지나지 않았다. 길 가다가 배가 고파 국수 한 그릇 사먹고 싶은 것도 참아가면서 20년에 걸쳐 석종사 건립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였다. 석종사는 대웅전을 중심으로 해서 금봉선원과 시민선방인 보월당이 있고 그 외에도 크고 작은 전각들이 배치되어 있다. 지난 동안거 때는 31분의 스님들이 결제를 하였고, 시민선방에서도 80여명의 신도들이 결제를 하였으니 혜국 스님은 참으로 복이 많은 분이다. 건물을 번듯하게 잘 지어놓아도 선객이 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실패한 불사일 터인데, 금봉선원은 공간이 협소할 정도로 방부를 들이민다. 벌써 하안거 방부가 끝났다. 이것만으로도 혜국 스님의 덕 높은 수행을 가늠해 볼 수 있다. 혜국 스님은 세간의 이러한 평이 부담스러울뿐더러, 신문이다 뭐다해서 자꾸 바깥으로 나가면 자신의 안살림(수행)이 빈약해지기 때문에 이것 또한 멀리하고 싶단다. 혜국 스님은 석종사에 금봉선원과 시민선방을 열었으며, 부산의 홍제사에도 시민선방을 남국선원에는 무문관과 시민선방을 열었으니 화두 참선법을 열심히 전파하고 있는 셈이다. 제주도의 남국선원 불사가 끝나고 나서 혜국 스님도 일 년을 기약하고 유월 초하룻날 무문관에 들어갔다. 무문관에는 7개의 독방을 마련하여 일곱 분의 수좌들이 스스로를 가두고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혜국 스님이 무문관에 들어가자 말상좌가 바깥에서 문을 잠갔다. 작은 문을 통해 하루 한 번 공양이 들어가고 나갈 뿐 외부와는 철저히 차단되는 것이다.

“무문관의 방에는 시계도 달력도 없어요. 한 석 달쯤 지나가면 사월이 되었는지 오월이 되었는지 달을 잊어버립니다. 날마다 똑같은 날이니까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산중에서 살았으니 조그마한 창으로 날아 들어오는 향기로 세월을 알 수 있어요. 찔레꽃 향기가 나면 5월이 다 가고 있구나, 치자꽃 향기가 나면 유월이 되었구나, ‘삐~삐~삐~’하고 머슴새가 울면 1월이구나, 밀화부리가 ‘화꼴~~화꼴~~’하고 노래 부르면 4월이구나 하고 알아요. 검은 등 뻐꾸기가 ‘데뻐뻑꾹~ 데뻐뻑꾹~’ 하고 울면 5월 말이 되었구나 하고 알 수 있어요. 검은 등 뻐꾸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이제 나갈 때가 되었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스님 3일후면 나가게 됩니다’라는 쪽지가 들어오더군요.”

혜국 스님은 자연에서 멀어진 사람들을 가리켜 이미 지구에서 쫓겨난 사람들이라고 한다. 컴퓨터나 텔레비전, 핸드폰 등 기계문명에 빠져 사느라고 새소리를 들으면서도 관심조차 두지 않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기만 하다. 꽃향기를 맡고도 어느 계절인지 모르니 몸뚱아리는 대지를 밟고 있다할지라도 까뮈의 이방인처럼 지구에서 쫓겨난 이방인에 불과하단다.

혜국 스님은 단명하겠다는 말을 듣고 13살에 속가를 떠나 절에 들어와서 평생을 좌복 위에서 지내왔으며 앞으로도 좌복 위에서 생을 마칠 것이다. 그러한 스님에게 있어 선방의 의미는 각별하다.

“절의 선방만이 선방이 아니라, 우주 전체가 선방이 되기 위한 전초기지가 바로 선방입니다. 선방에서 번뇌망상을 길들이는 자세를 지녔다면 화장실이 선방이요, 설거지를 하는 부엌이 선방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런 바람을 일으키고 교육을 시키는 곳이 바로 선방이 되어야 해요.”

스님은 참선수행이 무조건 수승하다는 말씀 대신 근현대에 쏟아진 도인들–경허 스님, 만봉 스님, 경봉 스님, 전강 스님, 성철 스님 등등–을 통해 보더라도 그 수승함을 알 수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였다. 혜국 스님은 천만 불자 중 삼백만 불자라도 각 가정을 수행처로 만들어서 기도하는 만큼 참선을 한다면 참선은 일반적이 될 것이라 하였다. 또 각 가정에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10분만이라도 온 가족이 모여서 참선을 하고, 오늘 내 가족에게 한 말들이 부드럽고 온화하였는지 어떠하였는지를 돌이켜 보고 반성하기를 권하였다. 이렇게 하다보면 가정의 분위기가 변할 것이며, 나아가서는 불교가 달라질 것이며 자연스럽게 화두 참선법이 온 중생들에게 전파가 될 것이라 한다.

화두 참선은 상근기의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 하는데 어째 아무나 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허공이 옛날 허공 그대로 이듯이, 사람들의 근기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현대인들은 쾌락을 좇아가고 쉬운 길을 가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려운 길을 가겠다는 각오가 얼마나 굳건한지가 중요하지 원래 타고난 근기는 없어요. 지금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이제 내 마음을 다스려 보겠다는 생각을 가졌을 때가 바로 상근기입니다.”

내 마음이 몸뚱이의 쾌락을 좇아서 내려가는 길로 질주하면 하근기요, 맑은 정신문화를 향하여 열심히 노력하면 그것이 바로 상근기가 되는 것이다. 근기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말은 연기법과도 상통하는 말이다.

“내 몸 안에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천하 진미가 있어도 천하 황금이 있어도 불평불만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행복은 십만팔천 리는 도망간 것이지. 그런데 매사에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진다면 감사할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밤새 잠을 자고 있을 동안에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도 밤새도록 자지 않고 우리가 뿜어낸 탄소를 받아들이고 그 대신에 산소를 공급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맑은 공기를 제공해 줍니다. 아침에 깨어나면 ‘내 형제자매여 나는 어젯밤에 잠을 잤는데 당신은 나를 살리느라고 밤새 공기를 정화시켜주었습니다.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공기를 정화시켜 주고 하늘이 비를 내려주고 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우주를 지탱하는 지수화풍을 가리켜 혜국 스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라고 불렀다. “화두 드는 시간은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에게 가장 진실하게 공양하는 시간이요, 세상의 맑은 기운을 도우는 시간이며, 엔트로피의 증장을 더디게 하는 시간이다” 고 생각하면 선방에 안도록 인연 지어 준 스승님을 비롯하여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된단다. 지수화풍을 형제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마음자리, 작은 것에 아니 당연한 것에도 감사의 말을 던질 줄 아는 그 마음자리가 바로 깨달음의 자리임을 혜국 스님은 가르쳐 주셨다.

글·사진=문윤정(수필가 · 본지논설위원)

현산 선지식을 찾아서



### 혜국 스님은

1948년 제주도에서 출생. 13세 해인사로 출가하여 일타 스님을 은사로 득도. 1969년 석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 수지. 해인사, 송광사, 봉암사, 칠불사, 수도암 등 제방 선원에서 수십 안거 성만. 제주 남국선원 ‘무문관’ 및 남국선원 개원. 부산 홍제사 창건. 충주 석종사 창건. 현재는 충주 석종사 금봉선원장이며, 대한불교조계종 전국선원 수좌회 대표이다. 저서로는 〈천수경 천수신앙〉, 〈인연법과 마음공부〉등이 있다.


SHC 삼환종합양초

삼보귀의 하옵고 저희 삼환양초는 사찰에 꼭 필요한 초를 20년이 넘게 생산하고 있는 양초전문기업입니다. 꾸준한 신상품 을 개발하여 (실내용 양초 = 밀납양초, 약쑥향양초, 식물성 양초) 라는 제품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스님 그리고 불자님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TEL 031)766-0242~3 / FAX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소비자무료전화 080-0766-8888
※ 주문하시면 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 밀납양초(蜜蠟洋燭)
1 밀납초(1~4호까지 8개入 받침대 2개入)선물세트
2 밀납초금강경(7개入)선물세트
3 밀납초원기둥 7.4ϕ × 30Cm 4 밀납초돈타레 5.6ϕ × 27Cm
6 밀납초 1호 반야심경 5.9ϕ × 20Cm 연소시간 約 80시간 이상
7 밀납초 1호 금강경찬 5.9ϕ × 20Cm 연소시간 約 80시간 이상
8 밀납초 3호 반야심경 4.7ϕ × 14Cm 연소시간 約 30시간 이상
9 밀납초 4호 반야심경 4.7ϕ × 10Cm 연소시간 約 24시간 이상



■ 약 쑥향 양초
1 원기둥 7.4ϕCm × 29Cm
2 돈타레 5.6ϕCm × 27Cm
3 밀 대 4.7ϕCm × 25Cm
4 1호 5.9ϕCm × 20Cm
5 2호 5.9ϕCm × 14Cm
6 3호 4.7ϕCm × 13Cm
7 4호 4.7ϕCm × 10Cm

장엄용 양초



■ 육각초 45cm
■ 야광 호랑이(산신) 70ϕ X 35cm
■ 야광 용초 70ϕ X 35cm
■ 원기둥 마패 7.4ϕ X 30cm
등신불 마패 4.7ϕ X 19.5cm

주소창에 “양초.net” 라고 치세요~ 주소(D) 양초.net

데스크초대석

영산재보존회장 현우 스님

'영산재(靈山齋)'가 프랑스 국민들의 가슴에 꽂혔다. 한국불교의 전통 의식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영산재를 본 프랑스 국민들은 감탄사를 연발했고 의미를 알고자 질문공세를 퍼부었다. 프랑스 파리와 리옹 그리고 세리냥 등 3개 도시에서 영상재가 공연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적은 의미가 아닌데, 현지인들의 격찬과 환호를 한 몸에 받았다는 것은 '성공적인 공연'의 차원을 넘어 선다. 한국불교의 세계화에 대한 새로운 자신감을 얻은 계기였기 때문이다. 영상재보존회가 프랑스 파리 소재 세계문화의 집이 주최하는 '세계문화 상상의 축제'에 초청돼 3월 28일부터 3일간 파리 생제르맹 오디토리움에서 공연을 펼쳤다. 또 4월 1일과 4일에는 리옹의 국립오페라 극장과 세리냥 시갈리에 극장에서도 공연을 펼쳐 관객들로부터 격찬을 받았다. 영산재의 첫 해외 나들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온 영산재보존회 회장 환우 스님(봉원사 주지)을 만났다.

# "영산재 파리 공연 성황…세계화 성공적 첫 발"

**-프랑스 공연은 어떻게 이뤄졌습니까?**

작년 5월 문화관광부(당시 명칭)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으면서 프랑스 공연이라는 큰 불사가 시작됐습니다. 당시 문광부에서는 프랑스로부터 '세계문화 상상의 축제'에 초청할 한국의 공연물로 영산재를 추천한 겁니다. 그 다음 달인 6월 6일 프랑스 문화관의 관장 에스로비씨가 방한 해 봉원사에서 열리는 영산재 시연의 전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일본과 중국에서도 전통 공연을 관람했고 최종적으로 우리 영산재를 초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 지난달 26일 30명의 회원들이 프랑스로 가서 3개 도시에서 5차례의 공연을 했습니다. 또 선암스님의 영산재 사진작품 전시회도 열렸는데, 관객들에게 영산재를 이해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영산재는 상당히 긴 의식인데 공연은 어떻게 진행 됐는지요?**

무대에서의 공연은 순수 의식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관람객이 한국 불교의식에 생소한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지요. 그래서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유자인 구해 스님의 주도로 90분 분량의 의식으로 구성했습니다. 도량석과 홍고 입장(예불) 등 모두 16가지의 의식을 간소하게 꾸며 영산재의 시각적 아름다움과 음악적 요소들을 최대한 살려냈습니다. 리옹과 세리냥 두 공연은 70분 정도로 더 간소화 했습니다. 비록 전 바탕은 보여줄 형편이 안 되었지만 영산재의 맛을 충분히 살린 공연이었습니다.

**-프랑스 국민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우리 교포나 교포2세들도 관람 했을 텐데요.**

먼저 프랑스 사람들의 관람 자세에 우리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아주 정숙한 분위기에서 진지하게 관람했고 공연이 끝난 뒤에도 바로 극장을 빠져나가지 않고 삼삼오오 모여서 공연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적극적인 사람들은 무리지어 공연단을 찾아와 공연내용에 대해 질문을 쏟아내기도 했어요. 물론 일일이 다 설명을 해 주었는데 매우 진지하게 듣고 이해하는 모습을 보며 그들의 문화적 수준이 참으로 높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포들이나 교포 2세는 한결같이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크게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도 영산재를 접하는 것이 처음이지만, 모국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은 대단했습니다.

**-영산재는 내용을 이해하기 쉽지 않은 종교의식인데 프랑스인들에게 어떻게 이해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영산재의 깊은 의미를 다 설명할 수도 없었고 이해시키려는 것이 무모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문화의 차이를 한 두 번의 공연으로 극복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나 프랑스 국민들은 영산재가 갖는 시각적인 화려함 속에 생과 사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공연 후 받은 질문의 대부분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공연을 본 사람들은 영산재가 망자(亡者)가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하고 살아 있는 자에게 축복을 기원하는 의식이란 점만은 이해를 했다고 봅니다.

**-영산재보존회는 영산재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번 프랑스 공연이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파리공연에 귀한 손님이 많이 오셨는데 그 중에는 유네스코 문화유산국 릭 스미스 국장과 관련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스미스 국장과 직원들은 상당히 진지하게 공연을 관람했고 만족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본격적인 등재 추진작업이 진행되면 그들은 영산재를 귀중한 인류의 문화유산으로 평가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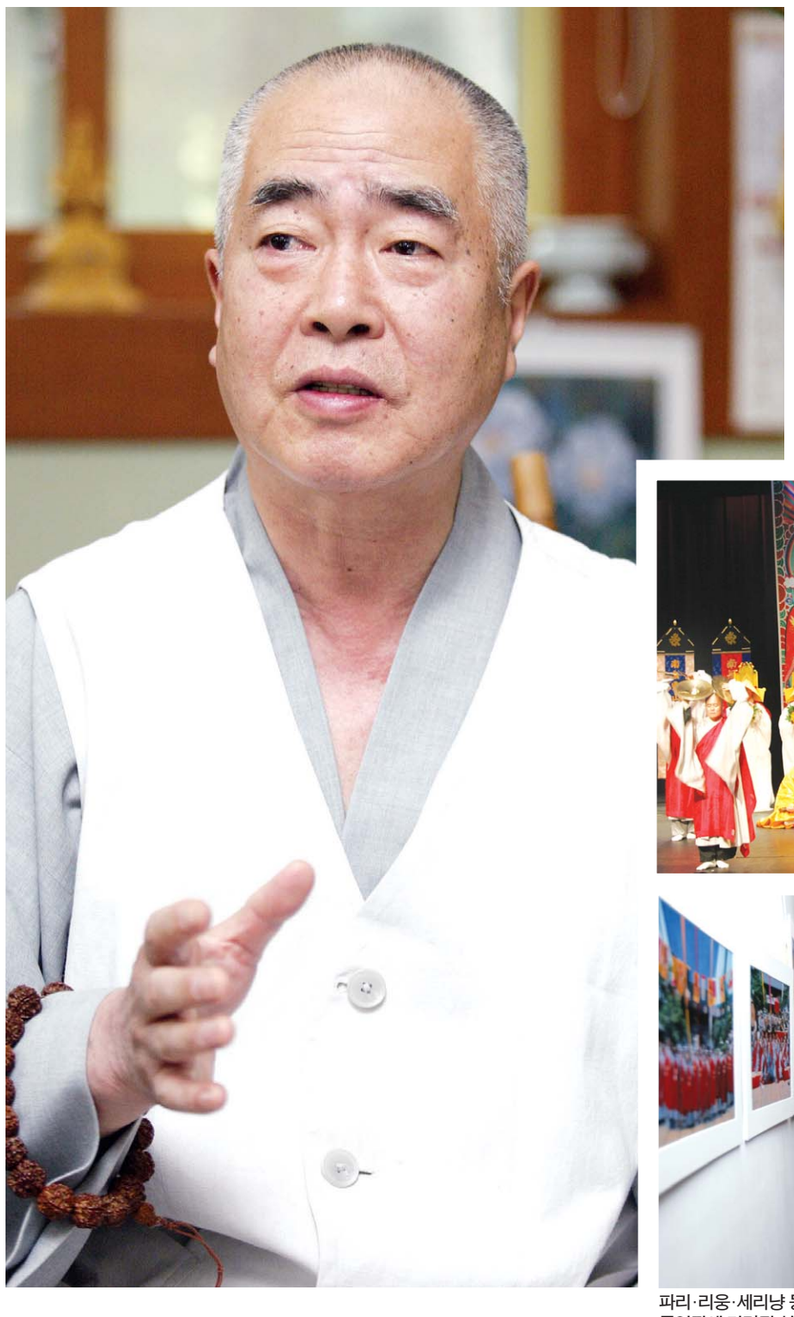
**-영산재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보존회가 준비해야 할 것들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도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영산재를 이해시킬 수 있는 자료들의 정리가 급선무입니다. 영산재의 근원과 의미 변천과정 등 관련 사료들과 시연법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것을 각국의 언어로 번역해 소개하지 않으면 영산재의 세계화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나라에서의 공연도 계획된 것이 있는지요?**

영산재의 먼 뿌리는 중국입니다. 그런데 현재 중국에는 영산재의 전통이 단절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국 불교계가 영산재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복원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중국 측에서 한국의 영산재 공연을 요청했습니다. 아마 중국에서의 공연은 이뤄질 것 같습니다. 이번 프랑스 공연은 영산재의 세계화를 위해 첫발을 내디딘 계기였습니다. 매년 6월 6일에 봉원사에서 봉행하는 영산재 시연에 올해는 더 많은 외국인들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영산재 관련 자료축적과 서적 발간 사업 등을 추진하며 세계화를 위한 작업도 단계적으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글=임연태 부국장 사진=박재완 기자







파리·리옹·세리냥 등 프랑스 3대 도시에서 펼쳐진 '영산재' 공연장면(위 사진)과 공연장에 마련된 선암 스님의 '영산재 사진전'. 사진제공=선암 스님

파리·리옹·세리냥 공연
프랑스 현지인들 큰 환호
교포들도 "자부심 느껴"

세계문화유산 등재 위해
관련 사료 등 체계적 정리
각국 언어로 번역 급선무


유기농 황토삼백초 POWER BRAND



초여름 꽃 주위의 잎 3개가 어느날 갑자기 백색으로 변해 '삼백초'라고 이름 붙여졌으며 또 꽃이 희고, 잎이 희고, 뿌리가 희다고 '삼백초'라고 한다. 백색으로 변했던 잎이 한달정도 있다가 다시 본래의 초록색으로 변하는 신비스러운 식물로 우리몸을 정화하는 신비의 '정화초'라고 불리고 있다.

이처럼 탁월한 효능 때문에 멸종의 수난을 겪어온 삼백초를 (주)천둥소리 김상목 원장의 피나는 노력으로 황토 삼백초로 다시 태어나 그 생명력과 특화된 자원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현재 (주)천둥소리에서는 황토 삼백초를 먹기 편하도록 제품화 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하고 있다.

(주)천둥소리 055)945-2976

전국대리점 · 대구 : 010-2531-4785 · 인천 : 011-336-5843 · 대전 : 010-7752-6009
· 대전 : 042-536-8852 · 전주 : 010-5706-1002 · 부산 : 017-556-8311

국우해당식 · 국우해당차 · 황토삼백초 웰빙 · 황토삼백초차 · 황토삼백초 패밀리 · 황토삼백초 주출액 즐거운 하루

옥석공예사

불상. 석탑. 건축. 자연석. 석물. 납골당



수십여 년의 불사경험을 바탕으로 불교문화를 계승하고, 정진하는 자세와 장인정신으로 원만한 불사의 주춧돌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덕 큰스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옥석공예사 대표 임상균 합장
경기도 양주시 회정동 60-2
031)859-5689 / 011-353-3622

봉 불기 2552년 부처님 오신날 행
고무신코 만 행 화

조각무명



사부대중 선 물

특 무 명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자연색

사계절단화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검정



• 가격 : 90,000원
• 규격 : 220-255mm
• 색상 : 회색, 검정색

3-1 끈



• 가격 : 90,000원
• 규격 : 220-255mm
• 색상 : 회색, 검정색

3-1 밴드

■ 문의 및 주문전화 : 02)733-5715,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합장

NAVER 통합검색 만행화 검색
인터넷쇼핑몰 만행화 많은 방문 바랍니다

◆ 본사, 전시장 : 서울 종로구 공평동 143번지 402호 (종각역 2번 출구 100m거리)

# '~하지 말아야' 할 10가지 사항 지켜야

오늘의 禪語

⑮ 무자화두 참구법〈上〉

무자화두를 참구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서,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무자화두 참구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무자화두 십종병(無字話頭十種病, 무자화두를 참구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할 열 가지 사항)> <무자화두 십종간병(無字話頭十種揀病, 무자화두를 참구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것을 구별하는 열 가지 방법)> <무자화두 간병론> 또는 <구자무불성화 간병론(狗子無佛性話揀病論,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고 하는 화두를 참구할 때의 주의사항)>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통칭하여 '무자화두 참구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무자화두 참구법은 화두를 개발한 대혜 스님이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 후 원나라 때 선승 몽산(蒙山) 화상과 고려시대 보조국사 지눌, 그리고 그의 제자 진각국사 혜심 등 여러 선승들이 계승했고, 박산무이 선사의 <참선경어>에는 열 가지 외에도 화두를 참구할 때 주의해야할 사항으로서 50여 가지 이상이나 열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화두참구방법은 모두 다 이 '무자화두 참구법'에 의거한 것입니다. 물론 이 무자화두 참구법은 무자화두 뿐만이 아니라 모든 화두에 적용되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 선원에서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화두참구법은 잠시 보류해 두고 가장 중요한 원전인 '무자화두 참구법'의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이 '무자화두 참구법' 열 가지는 대부분 대혜 스님이 살았던 시대 즉 서기 1100년대를 전후한 시기에 있었던 중국 선원(참선자)의 고질적인 병폐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려 천 년 전에 있었던 문제점을 -물론 이것은 엄격하게는 대혜 스님과 간화선의 입장에서 본 문제점임-, 그것도 구어체로 된 한어(漢語)를 오늘날 우리의 언어로 그 뜻 분명하게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불과 200년 전 우리의 언어도 오늘날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판에 천 년 전 중국인이 썼던 말을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이 '무자화두 참구법' 열 가지는 대부분 상징적으로 "~~하지 말라"고만 되어 있을 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아마 당시의 사람들은 그 시대에 있었던 일이므로 더 이상 보충설명을 하지 않아도 다 이해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행히 보조국사 지눌(知訥, 1158~1210)의 제자인 진각국사 혜심(慧諶, 1178~1234) 스님이 지은 <구자무불성화 간병론(狗子無佛性話揀病論)>에는 비교적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한 두 곳은 무슨 말인지 잘 이해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가능한 근사치에 가깝도록 해석해 보았습니다.

**천년 전 대혜 스님이 개발 몽산·지눌 선승 등에 의해 계승**
**부연설명 없이 10가지 금기사항만 기록 정확한 해석 불가**

① 무(無)를 '있다' '없다'는 '무'로 헤아리지 말라(不得作有無會 : 不得作有無之無).

어떤 스님이 조주 선사에게 물었습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주 선사는 "무(無, 없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일체중생은 다 불성을 갖고 있다(悉有佛性)"고 했는데, 조주 선사는 "없다"고 했으므로 구자무불성(狗子無佛性) 화두를 놓고 개인적 또는 여럿이 모이면 '있다' '없다'는 논의가 무성했습니다. 알음알이 즉 분별심에서 나온 이런 논의방법으로는 무자화두를 타파할 수 없기 때문에 '있다' '없다'는 식으로 판단하거나 헤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질없이 유무의 견해를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역시 망상의 일종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② 유무를 초월한 '참된 무(眞無의 無)'라고 헤아려서도 안 된다(不得作眞無之無卜度).

'무자'에 대하여 '있다(有)' '없다(無)'는 식으로 헤아리지 말라고 한다면, 이 '무'는 유와 무를 초월한 참된 무(無), 절대적인 무(無), 또는 유무의 상대성을 초월한 '진무(眞無)의 무(無)'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진무의 무(無)'라는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③ 심오한 이치가 들어 있는 '무(無)'라고 생각하지도 말라(不得作道理會).

무에 대하여 유나 무, 또는 '진무(眞無)의 무'라고 생각하지도 말라고 한다면, 분명 이 무자화두 속에는 무언가 알 수 없는 현묘(玄妙)한 도리, 또는 심오한 이치가 들어 있는 '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무자화두 속에 심오한 도리가 들어 있을 것이라는 추론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④ 의식(알음알이)으로 분별하지도 말라(不得向意根下思量卜度).

앞의 설명과 같이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대부분 사람들은 '무얼까' '무얼까' 하고 골똘히 생각하게 됩니다. 갖가지로 머리를 굴려서 분별하고 의식으로 헤아립니다. 알음알이를 총 동원하여 "이걸까?" "저걸까?" 하고 분석하게 되는데 그 역시 올바른 참구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별심에 지나지 않으므로 혼자 제멋대로 헤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 윤창화 민족사 대표

## 신행게시판

**●한국정신과학학회 4월 자유토론 '나는 누구인가'**=한국정신과학학회가 4월 18일 저녁 8시 한국정신과학학회 사무국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주제로 4월 자유토론을 개최한다. 자신이 경험한 다양한 수행체험과 함께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자문, 초상형상을 비롯한 하고 싶은 이야기 등을 자유롭게 풀어놓을 수 있는 자리이다. 한국정신과학학회 이애주 회장, 우희종 서울대 교수 등이 자유토론에 참여해 토론한다. (02)554-5701

**●반나라마 '꽃길따라 자유의 걸음으로'**=반나라마가 대구 국채보상공원에서 4월 20일 오전 10시부터 행선, 자비관, 문화공연 등을 체험하는 '꽃길 따라 자유의 걸음으로'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걷기수행대회는 대구(016-502-6294)와 함께 부산 김해 지역은 다보산 반나라마(055-331-2841)에서도 열린다. 다보산 반나라마는 오전 7시 30분 시작된다. 지도법사로는 붇다빠라(반나라마), 우학(대관음사 회주), 남도(보림사), 능행(정토마을) 스님이 나선다. 신청비 3000원.

**●호두마을 주말 수행**=천안 호두마을 위빠사나 명상센터가 4~6월 수행일정을 공개했다. 4월 18~20일, 25~27일, 5월 3~5일 능해 스님의 지도로 초보자 주말수행이 마련된다. 5월 9~14일, 20~29일, 31~6월 14일 김열권 법사와 빤디따 비왐사 사야도의 지도로 집중수행이 진행된다. (041)567-2841

**●홍원사 위빠사나 명상수행**=서울 홍원사가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위빠사나 명상수행을 진행한다. 위빠사나 수행의 의미를 짚어보고 마음챙김(알아차림)의 방법, 수행의 요소 등을 통해 위빠사나 수행방법을 가르친다. 봄 가을에 한번씩 집중수행 프로그램도 마련할 예정이다. (02)2658-3100

**●한국불교대학대관음사 53선지식법회**=한국불교대학대관음사가 4월 29일 오전 11시 옥불보전 대법당에서 53선지식 대법회를 개최한다. 법사는 불자탤런트 강부자씨다. (053)474-8228

**●조계사 보문사 봉정암 성지순례**=서울 조계사가 4월 28일 강화 보문사, 4월 30일~5월 1일 봉정암으로 성지순례를 떠난다. 강화 보문사 동참금은 3만원, 봉정암 동참금은 5만5000원이다. (02)732-2187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5-3
전화 010-6230-2113 · ☎ 02)512-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깨달은 여인들의 수행법

# '위 없는 깨달음' 얻은 우바이

⑮ 공실도인(空室道人)

<나호야록(羅湖野綠)>은 송나라 임제종 양기파의 효영중온(曉瑩仲溫) 스님이 1155년경 나호에 머물 때 지은 책이다. 출가생활하면서 보고 들었던 말씀과 행적, 여타 기록들을 소개하고 자신의 견해를 붙인 선어록이자 승보사(僧寶史)이다. 이 책에는 선사와 거사들의 일화가 중심이 되어 있지만, 비구니와 우바이 등 출·세간과 성별을 초월한 다양한 도인들의 행적이 소개되어 있다.

이 가운데 우바이 시절 공실도인(空室道人)이라 불리며 선기(禪機)를 자랑하다 뒷날, 출가하여 가부좌한 채 열반한 유구(惟久) 스님의 구도기를 소개하면 이러하다. 공실도인은 용도각(龍圖閣) 범순(范珣)의 딸로서,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슬기로워 고요히 참선하는 것을 즐겼다. 예장(豫章) 분령(分寧) 채수로 부임하는 아주버니를 따라 운암사의 사심(死心) 선사를 찾아뵈었는데, 한마디 말끝에 요체를 깨닫고 게송을 지어 사심 선사를 찬탄하였다.

**운암사 사심 선사 한마디에 요체 깨달아**
**서축원서 비구니 되어 가부좌한 채 입적**

"소양의 사심 선사/ 신령한 근원 매우 깊어/ 귀로는 색을 보고/ 눈으로 소리 듣는다/ 범인은 명철하고 성인은 혼매하며/ 뒤로는 부귀하나 앞으로 가난하여/ 중생에 이익 되고 만물을 제도하니/ 쇠를 녹여 황금을 만드는데/ 단청의 겉모양은 옛 것도, 지금 것도 아니로다."

사심 선사가 그녀에게 물었다.

"'죽은 마음(死心)'은 참이 아닌데 어디에다 찬양하는가. 죽은 마음을 찬양한다면, 죽은 마음이란 형상이 없다. 허공을 찬양한다면, 허공은 자취가 없다. 형상과 자취가 없는데,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만일 말을 할 수 있다면 친히 사심(死心)을 보리라."

공실도인이 응대하였다.

"죽은 마음은 참이 아니요, 참은 죽은 마음이 아닙니다. 허공이란 형상이 없고 묘유(妙有)는 형체가 없습니다. 기절했다가 다시 소생하면 친히 사심을 볼 수 있겠지요."

이에 선사는 미소를 지었다.

영원(靈源) 선사는 공실도인이라는 법호를 지어주었는데, 이때부터 그녀의 이름이 총림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녀가 금릉에서 살 때(1111~1117년), 원오(圓悟) 선사는 장산사의 주지로 있었고 불안(佛眼) 선사도 그곳에 있었다. 거기서 기연이 맞아 두 선사가 칭찬하였지만, 그녀는 마치 말을 못하는 사람 같았다. 도(道)의 운치는 매우 담담하였으나 바른 견해를 드러낼 때는 치밀하고 엄격했다. 그의 게송 중에 <법계관(法界觀)>을 읽고 쓴 구절이 있다.

"사물과 나는 원래 둘이 아니니/ 삼라만상이 거울에 비친 상처럼 똑같구나/ 밝고 밝아 주체와 상대를 초월하고/ 분명하고 분명하여 진공(眞空)을 깨쳤네/ 한 몸에 많은 법을 지님은/ 제석천의 법그물에 얽힌 듯 한데/ 겹겹이 쌓인 끝없는 뜻은/ 움직임과 고요함에 모두 통하구나."

또한 그녀는 보령사에서 목욕탕을 마련하고 문 위에 글을 지어 붙였다.

"한 물건도 없는데 무엇을 씻는단 말인가. 티끌 하나라도 있다면 그것은 어디서 생겨났을까. 오묘한 이 하나를 말해내야 모두가 목욕할 수 있으리라. 옛 신령스런 이는 등을 문지를 줄만 아는데, 보살은 언제 마음 밝힌 적 있었던고. '때묻지 않은 곳(離垢地)'을 깨닫고자 하면 온몸에서 흠뻑 땀을 빼야 하리라. 물은 때물과 때를 한꺼번에 없앤다 해도 여기에 이르러 또 한번 씻어야 하리라."

뒷날 고소산 서축원(西竺院)에서 삭발을 하고 비구니가 되어 유구라는 법명을 받았으며, 송 선화(宣和) 6년(1124) 가부좌한 채 입적하였다. 효영 스님은 그녀를 이렇게 평했다.

"공실도인은 명문 집안에서 태어나 부귀에 얽매이지 않았고, 미련없이 월상녀(月上女: 유마거사의 딸)를 뒤따라 '위없는 깨달음(無上菩提)'으로 달려나갔다. 또한 비구니로서 철마(鐵磨: 위산 선사와 선문답했던 유철마 비구니) 스님과 쌍벽을 이루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도 법력이 비범하였으니, 가을서리 같은 매서운 지조가 없고서야 이렇게 그럴 수 있었겠는가."

김성우 객원기자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전라도 : 010-2311-0157
경상도 : 011-327-7697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양지국악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승무북, 모듬북·장고·징·꽹과리


◆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릅니다.
◆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 합니다.
◆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 갑니다.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발, 다리, 허리가 불편하십니까?
귀의 삼보하옵고
무자년 한 해도 불보살 님의 가피가 항상 함께 하시길 발원 합니다.
사부대중의 발로 인한 몸 건강을 생각,
발명 특허를 획득한 지압깔창을 보급합니다.
하루종일 서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한 희소식!!
초극세사 · 실리콘 · 동 99% 삼위 일체 소재로 발냄새 제거, 무좀 예방!!
장인정신으로 수작업으로만 만들었습니다.
만행화 대표 박해훈 합장

특허 10-0806337호
NAVER 통합검색 만행화 검색
인터넷쇼핑몰 만행화 를 검색해 보세요
지압 · 동 깔창

초극세사
실 리 콘
동 99%
가격 15,000원
• 사이즈 : 230-280
▸ 본사 · 전시장 : 서울 종로구 공평동 143번지 402호 1호선 종각역 2번출구 100미터
▸ 문의 · 주문 : 02)733-5715
011-9000-5715
▸ 계좌 : 우리 178-08-109613 (예금주 : 박해훈) 합장


석가모니불 양류관음 천수천안
本佛 조성에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재기능 3568호 임병배 합장 011-799-40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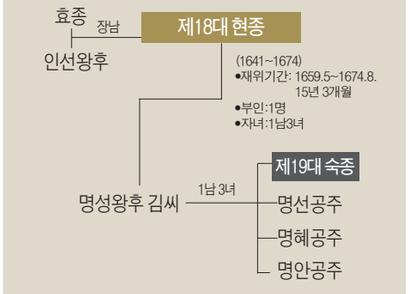
산신님 나한님
성불조각미술원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2번지 공방

# 신하들 예송논쟁에 구석으로 내몰린 왕권




18대 현종과 원비 명성왕후 – 숭릉
현종 1641~1674(34세)
재위 1659.5(19세)~1674.8(34세)

**제18대 현종 가계도**






국상시 복장문제는 효종 때부터 현종 때까지 서인·남인의 주도권 싸움으로 부각됐다. 사진은 희릉의 제향 모습.

사람은 태어날 때에/ 입안에 도끼를 가지고 나온다/ 어리석은 자는 말을 함부로 함으로써/ 그 도끼로 자신을 찍고 만다. <숫타니파타, 657>

조선 왕 중 유일하게 남의 나라에서 태어난 왕, 그 흔한 후궁 하나 두지 못하고 정비 1명뿐인 왕이 현종이다. 현종은 아버지 봉림대군이 어머니 풍안부부인과 함께 청나라에 볼모로 있던 시절에 심양의 심관에서 태어났다. 출생부터 파란만장하다.

다섯 살 연(현종의 이름)이 부모를 따라 귀국한 것은 1645년(인조23)이었다. 소현세자가 급서하자 봉림대군이 세자에 책봉되고 연은 왕세손에 책봉되었다. 효종이 즉위하자 세자가 되고 1659년 부왕의 뒤를 이어 18대 왕으로 등극했다. 즉위식은 화려했으나 재위기간 내내 귓전을 두드리는 방망이질에 시달렸다.

현종시대는 신하들의 목소리가 대전을 찌렁찌렁 울린 시대였다. 왕권을 구석에 밀쳐버리고 신하들의 예론정쟁이 창처럼 치솟아 나라를 흔들었다. 효종이 죽자 인조의 계비 자의대비(장렬왕후 조씨)가 몇 년간 상복을 입어야하는가 하는 것이 논쟁의 중심이 되어 국력을 오로지 거기에 쏟았다. 서인의 송시열, 송준길은 효종이 차남이므로 당연히 기년상(1년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인의 허목과 윤휴는 효종이 비록 차남이지만 왕위를 계승했으므로 장남과 다름없기에 3년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과는 기년상을 주장한 서인의 승리였다.

## 서·남인간 정권 주도권 둘러싼 이념논쟁 심화
## 과격한 명성왕후 기에 눌려 후궁조차 못들여

1673년 효종비 인선왕후가 승하하자 복상문제가 다시 쟁점이 되었다. 이번에도 서인측은 효종이 차남이란 점을 강조하여 대공설(9개월)을 내세웠고, 남인측은 인선왕후가 비록 둘째 며느리이긴 하지만 중전을 지냈으므로 큰며느리나 다름없다고 기년설(1년)을 내세웠다. 현종은 장인 김우명과 그의 조카 김석주의 의견에 따라 남인 측의 기년설을 받아들여 자의대비로 하여금 기년 복상을 하도록 했다. 서인과 남인의 1승1패다.

논쟁은 표면적으로 왕실의 장례 문제인 것 같지만 예를 최고의 덕으로 여긴 성리학의 문제다. 더 깊은 속내는 율곡학파인 서인과 퇴계학파인 남인 간의 정권 주도권을 둘러싼 이념논쟁이다. 또한 효종의 왕위 계승에 대한 정당성을 묻는 문제다. 신하들의 입김이 그만큼 셌다는 것이다.

현종조는 신하들 목소리 못지않게 또 다른 목소리가 있었다. 중전의 목소리가 당파를 형성한 신하들과 합세했다. 현종비 명성왕후 김씨는 지능이 비상하고 성격이 과격했다. 거친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명성왕후의 아버지 김우명은 학문에 관심이 없는 위인이었다. 진사시만 치고 강릉(康陵, 명종 왕릉) 능참봉을 거쳐 종9품인 세마(洗馬)직이었는데 현종 즉위로 딸이 중전이 되니 하루아침에 청풍부원군에 봉해져 정1품 대우를 받았다. 김우명은 서인이건 남인이건 뒷거래를 해오면 결탁했다. 용감하고 탐욕스런 인물이었다.

명성왕후 역시 그 아버지의 그 딸이었다. 궁중 일을 처리할 때 인자한 면모가 없었다. 현종은 30대 펄펄한 나이였지만 후궁 하나 들이지 못했다. 기록은 없지만 짐작은 간다. 현종이 죽고 아들 숙종의 등극 이후에는 공공연히 조정의 정무에까지 관여하여 서인들 편을 들다가 남인들의 반발을 샀다. 숙종의 총애를 받던 장희빈을 내쫓는데 앞장서기도 했다. 장희빈의 집안이 남인과 가까웠던 것이 이유 중 하나다. 숙종 1년에 '홍수의 변'이라는 해괴한 사건이 일어났다. 홍수(紅袖), 즉 붉은 옷소매란 궁녀를 가리킨다. 복창군, 복성군이라는 왕족이 숙종의 궁녀를 건드려 아이를 낳은 사건이다. 두 죄인은 궁녀와 함께 의금부에 하옥되고 사형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다음 날 돌연 두 죄인은 풀어주고 궁녀만 사형에 처하라는 어명이 떨어졌다. 조정 대신들이 반발한 것은 당연하다. 대신들이 내전에 달려가 보니 어리둥절한 광경이 펼쳐졌다.

숙종이 방 밖에 꿇어앉아 있고 방안에선 방바닥을 치며 요란한 대성통곡이 울려 퍼진다. 겁에 질린 대신들은 할 말을 잃었다. 방안에서 악을 쓰며 통곡한 이는 명성왕후였다. 결국 두 죄인은 유배 보내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다. 종친을 죽일 수 없다는 명분으로 아들(숙종)을 협박한 것이다. 대단한 여인임에 틀림없다. 이름이 비슷한 26대 고종의 비는 명성황후(明成皇后)다. 그녀 역시 함량이 만만치 않다.

현종은 남인과 서인의 극단적인 예론정쟁에 시달리다가 1674년 34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떴다. 명성왕후는 10년 더 살다가 1683년 42세를 일기로 세상을 하직했다. 현종은 죽어서도 편치 못했다. 왕이 죽으면 곧 실록 편찬 작업에 들어간다. 현종실록 편찬 작업은 1675년 5월에 시작되었지만 도중에 정권을 장악했던 서인이 몰락하고 남인이 조정을 장악하자 일시 중단되었다. 1677년 왕(숙종)의 독촉이 있자 편찬 작업에 참여하는 인원을 늘리고 묘사유파법(오전 7시에 출근하여 오후 7시에 퇴근하는 법)이란 걸 만들어 급히 진행하여 3개월 만에 초고를 완성했다. 초고를 바탕으로 4개월 뒤에 인쇄를 완료했다. 논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1680년 경신대출척으로 남인이 대거 숙청당하고 서인이 조정을 장악하자, 앞서 편찬된 '현종실록'이 왕의 독촉으로 불과 3개월 만에 급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류가 많고 미흡한 구석이 많다고 주장했다. 숙종은 이러한 건의를 받아들여 실록개수청을 설치하고 개수 작업을 시켰다. 그래서 3년만인 1683년 '개수 현종실록'이 완성되었다. 현종은 참으로 어지럽고 분분한 인생을 살았다.

성리학이 가장 첨예한 시대이니 불교적 발상과 논리는 끼어들 틈이 없는 혹독한 시대였다. 그러나 그들의 논리는 결국 이타(利他)가 아닌 이기(利己)를 위한 치열한 도구였을 뿐이다. 숭릉은 동구릉 능역 중 가장 왼쪽 호젓한 곳에 있다. 살아생전 온갖 논쟁에 휘둘려 편한 시간 갖지 못했으니 죽어서는 조용히 지내시라는 배려일까. 왕이 대신들의 입김에 질질 끌려 다녔으니, 안타까운 군주였다.

숭릉은 조선왕릉 중 유일하게 정자각에 팔작지붕을 얹었다. 사대모화, 성리학이 절정을 이루던 시대이니 전래의 맞배지붕 정자각이 아닌 중국 양식을 흉내낸 것이다. 우리 고유의 정자각은 지붕 양쪽 옆면을 단정하게 정돈한 맞배지붕 형식이다. 검약, 검소, 단아함이 느껴지는 모습이다. 그러나 숭릉의 정자각은 지붕이 불거져 나온 팔작지붕이다. 맞배지붕 양 옆으로 지붕을 덧달아 놓아 하늘 위에서 보면 여덟 팔(八)자 모양이어서 팔작지붕, 팔각지붕이라 부른다. 거기다가 정자각엔 익랑(문의 좌우에 잇대어 지은 행랑)에 기둥이 하나 더 붙어 있다. 능호인 숭(崇)자 역시 모화숭배자들이 작명한 것 같다.

글=이우상(소설가 asdfsang@hanmail.net),
사진=최진연(사진작가)




서울대 규장각 소장 조선왕조실록 영인본 일부.



숭릉 전경.

### 숭릉(崇陵)은

조선 18대 현종(顯宗)과 원비 명성왕후(明聖王后, 1642~1683) 김씨의 쌍릉이다. 동구릉 능역 안 가장 왼쪽 언덕에 있다. 왕과 왕비릉 모두 병풍석 없이 난간석 만으로 연결되었고 능침 앞에 혼유석이 각각 놓여 있다. 동구릉=사적 제193호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산2–1 면적 191만5891㎡(57만9557평).

"이름대사전"
• 대법원 선정 한자만 사용하여 이름 풀이까지 되어 있고,
• 320여개의 성별로 삼원,수리,음령 오행을 맞추고
• 성씨별로 2000~3000개의 이름들로 구성
• 개명,작명,법명,상호 등에 바로 사용할 수 있음.
• 정가 : 50,000원

"효타비결서"(상,하권)
• 일년이면 최고의 프로가 될 수 있는 비서.
• 한글 전용으로 누구나 쉽게 독학할 수 있음
• 정가 : 50,000원

"신수 비결"
• 2008년의 운세를 각 개인별로 감정
• 정가 : 20,000원

효타암 주지 원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 (손선미)
부산시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위치 : 금사동 동일고무밸트 옆

"승가건강비법 신비의 나무"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갖가지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재 분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 (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에 특효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 (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약품은 아니며 체질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경기도 양평군 용문산 도솔암
전화번호 : (031)775-1285 자수 대진 합장

필름

# 불자생활정보 | 전면광고 | 21

▷ 문의 : TEL 02)2004-8219,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parkwonbum@yahoo.co.kr
▷ 가격 : 1Box(4.4×4.4) 4만원, 1Box( 9×4.4) 8만원 ▷ 계좌 : 농협 053-01-269088 (주)에이치비엠씨
▷ 원고마감 : 매주 월~수요일(입금을 하셔야 광고 게재가 가능합니다)

전통사찰 등록
문화재 등록
법인 등록
"비법인 설립"
(서류대행)
성산개발
011-9476-9001

사찰행사
천도재 · 49재 · 수륙재
점안식 행사에 바라무 · 나비무
살풀이 · 지전무 · 극락무
장엄하게 집전 해 드립니다
영남범음범패 무형문화재 제9호 전수자
010-4870-8359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유명 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상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02)374-9886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원인없이 아프신분 영험
궁금증 즉시 해결
수국사 원성 합장
02)2603-2992
011-340-5963

전통불교 문화예술대학
문화재9호 영산작법무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사찰행사 문의
영산재 천도재 49재 점안식
011-9317-6686 (부산)
금정사 대명 합장

역학 개인지도
명리 철학 배워도 영가를 못 빼내고
조상을 못 찾는분 (스님 · 무속 · 일반)
물상으로 영가를 배워
재를 지낼 수 있도록
명리철학을 1~2개월 완성
(실제 감정 위주)
051)333-3258
011-591-5277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자격취득안내
◦포교사 분야 : 상담포교사,역학상담사
유아놀이포교사,불음법회포교사,주술포교사
풍수지관포교사,국악연주포교사,장묘관리포교사
◦법사분야 : 상담법사,교법사,상담지도법사,
아동지도법사, 불음지도법사,염불지도법사,
장례지도법사,국악지도법사
◦대법사분야 : 교학사,종학사,종사,대사,선사,율사
(법인등기 제1969호)
한국불교지도자연합회
011-412-8040

대한전통불교 문화예술원
부산 영산재 제9호 작법무 교육도량
학인수시모집(범음,범패,바라,나비춤)
사찰행사,49재,천도재,점안식,구병시식
051)515-5222
010-3928-0006
무량사 무상 합장

이혼녀보호소
㈜ 오갈데 없는 이혼녀를
보호 해 드립니다
㈜ 복잡한 이혼문제
도와 드립니다
031)753-8484
011-354-8484

역학, 전생요법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빙의천도
3.일반과정,속성과정(출장지도)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서울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
비룡정사 제행스님

제2회 금강경 및 참선법회 모집
• 후원구조 :
천일기도 및 연등접수
문의:055)972-3843
지리산 삼화사

적천수 · 사주명리학 개인지도
명리학의 경전,적천수 10간론
적천수 핵심원리적용,적중률 90%이상
(용신잡는법)(통변)실전위주 책임지도
대운 · 년운의 정확한 운세대입
수년을 공부해도 실전,통변을 못하는분
적천수를 (아는)자만이 (천기)를 안다
신생아작명,모든 운명을 감정해 드립니다
한국 적천수 명리교육원
042)255-1186
010-6730-1186

계룡산 손바닥 토종선인장
영하 20~30도 노지에서도
얼어죽지 않는 강인한 생명력
성인병 예방에 신이 주신선물
(분양안내)
019-9765-8052
공주시 계룡면 관음기도도량 원각사
•효능:잇몸 염증, 당뇨, 퇴행성 관절염, 심한 가려움증,
아토피염, 쑥쓰림, 위염, 심한 변비등 탁월한 효과

大方廣佛華嚴經
대 방 광 불 화 엄 경
목판본 백질 한정본 판매
화엄경(80권)
사 교( 7권)
법화경( 7권)
목판본 한지한장본으로 제본, 법당
부처님 복장장엄용,강본으로 사용
011-545-7252

보살선방
• 1인1실 : 방1, 주방, 거실, 욕실
/방1, 주방, 욕실
• 부부실 : 방2, 주방, 거실, 욕실
절에서 수양하며 기도하고
불교공부하면서 노년을 보내실분
(일부시주금 내시고 종신재)
불광사 · 불광대학
053)656-6766

강원도 양양 휴휴암 (영험도량)
[매일출발] 조계사 앞.
오전 7시 출발 (1호선 종각역 하차)
2호선 잠실역 4번출구 시계탑 앞
(7시 30분 출발)
지장재일, 관음재일, 철야기도 오후 4시 출발
▷왕복회비 : 2만원
02)857-2205
010-6352-3307(불명:성도일)

강원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스님이
되고자 발심한
초심자를 모집합니다
묵조선 명상선원
종무소 02)464-8305

백련 종근 분양
백련 종근 분양
(충남 금산)
011-675-1288

출가의 뜻을 둔
남 · 여
행자 모십니다
(화왕산 삼성암)
011-872-3899
055)521-0018

기도하면서
함께지내실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경남 고성)
011-9507-9892

주방일을 엄마같이
맡아주실 불자님을
찾습니다
청주지역 호스피스 요양원
011-9732-8562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053)614-4526

부전스님
원합니다
(50대중반 비구승임)
010-7134-0043

조용한 암자에서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처사님
모십니다
055)863-4143
011-392-6885

사주운세 10초 내 맞추면
통장입금이나 찾아오세요
명리학 [사주첩경통달 이석영저자]
명리학 질문 10초내 답변
(만세력 책없이 5초 이내에 두뇌로 일주 통달, 양력)

100일기도
부전스님
구합니다
011-591-8228

비구 부전스님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주)
011-744-1650

부전스님
모십니다
성실, 건강하신분
(부산 가야동 대원사)
051)891-7255
051)891-1051

비구,비구니
모십니다
(모든 제 의식 가능한 스님)
제 의식 봉행할 때만 오셔 도 됨
부산 근교 스님 환영
051)502-6569

육임 수강생 모집
「육임 수강생 모집」
■ 육임을 기초에서 백법까지 과정을 함께 공부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 동영상과 직강을 동시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 기초를 익힌 다음에는 720 국수자료로 그때그때 알고자하는 질문에 답으로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풀이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신간안내 "육임이 보인다"
육임공부를 보다 쉽게할 수 있는 강의록이 출간되었습니다.
새로 출간된 "육임이 보인다"로 공부하시면
보다 간결하고 한눈에 알수 있도록 각 점단마다
국수 설명이 나와있습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쓰지 않은 시간법으로 초사를
말할수 있도록 강의록에 수록 되었습니다.
공 념 학 당
■ 상담문의 : 02)793-7333
■ 홈페이지 : www.saju79.com(강의 홈페이지)
www.unsemaru.com(운세상담 홈페이지)
■ 사 무 실 : 서울시 용산구 보광동 35-45호
■ 계좌번호 : 국민은행 026-21-0792-969(예금주 : 박옥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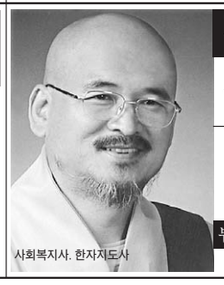
역 학 공 부
• 사주 + 궁합 + 택일 + 작명(초급) 매 화요일 18: 30
• 전문가 과정 : 금요일 18:30 이선종 교수
• 주역, 풍수, 관상: 수요일 18:30 수강생 무료 수강 원장 전용원 박사
인터넷 동영상 강의 :사주+궁합+택일+작명(전과정 완성)=45만원
www.kbs.cc 풍수, 관상, 육효, 자미두수, 수상/수료증 자격증
한국역학협회 관일학원 월간역학교육원
동대문운동장역 4번 출구 도보 2분. 전화 1688-1137

한국(영남)불교대학 신입생모집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구미도량 동시모집
▶ 가장 거창하고 가장 실속있는 불교대학! 조계종 인가 신도전문교육기관!
● 화요일 저녁반, 목요일 오전반, 금요일 오전반 / 주1회 공부
● 학력, 연령 제한없음 ● 會主 우학스님(불교TV 및 불교라디오 법문) 직강
● 입학하시는 분들께 새법요집,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 대구큰절 | 경산도량 | 칠곡도량 | 구미도량 |
|---|---|---|---|
| 053)474-8228 | 053)816-8228 | 053)313-8228 | 054)443-8228 |

※ 행자(예비스님)모집 - 문의 : 010-2488-8228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영남)불교대학 大관음사
<대구 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대방등 대집경 특별강좌
● 강좌내용 : 28숙 ● 대상 : 승려에 한합니다
● 위치 : 전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02)926-1259 / 011-741-0867


사회복지사. 한자지도사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학 인 모 집
명리학을 처음 공부하고자 하는분들의 마음은 누구에게
배워야 할것인가를 결정하기가 정말 힘든일이지요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
문의 051) 867-8438
부산시청 뒤 거제리청과시장에서 양정쪽 150m 삼화탕 앞 송광정사

간 건강해야 장수할수 이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
를 열어줍니다.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깨끗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감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 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에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주문하시면 (생산) 달여 드립니다. 참 다슬기 농축액은 주문(생산) 달여들이며 주문시 기간은 3일~4일 걸리오니 참고하시고 주문해 주세요!
상담 (055)963-9583
문의 (055)355-5626
산마을 토종(민속농원)

꼭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위하여
어떤 기도로 어떻게 성취 하는가?
대충해도 되는 사람이 있고
해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
"기도의 비밀"은 불쌍함에서 벗어나 행복으로 가는 길, 삶의 절망에서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사람을 성공으로 끌어 올릴 수 있고, 질병으로 고통 받는 것을 내쫓고 막대한 부를 쌓고 장애물을 극복하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며, 세상살이 장벽에 부딪혀 오갈 때 없는 자신을 스스로 보듬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여, 잘되는 사람은 더 잘되는 길 안 되는 사람은 되는 길로 현제와 미래의 운명을 바꾸는 마음과학이며,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소원성취 기도 법이다.
"비밀의 열쇠"는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은 이미지를 품기만 해도 그와 비슷한 형태를 불러온다. 욕망은 원하는 것들을 연결해주고, 기도는 그것을 끌어당긴다.
이 책에는 비밀을 활용해 건강과 부와 행복을 거머쥔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끌어당김법칙"을 공개하오니 기도 성취를이루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담 지음
신국판 | 292쪽 | 15,000원
"기도의 비밀"?
국민은행 562101-01-033348 | 관음정사 02-943-8573
• 찾아오시는길: 4호선 길음역 3번출구 – 정릉 청수장가는 버스 – 훼미리마트 3거리 – 중앙하이츠아파트 – 관음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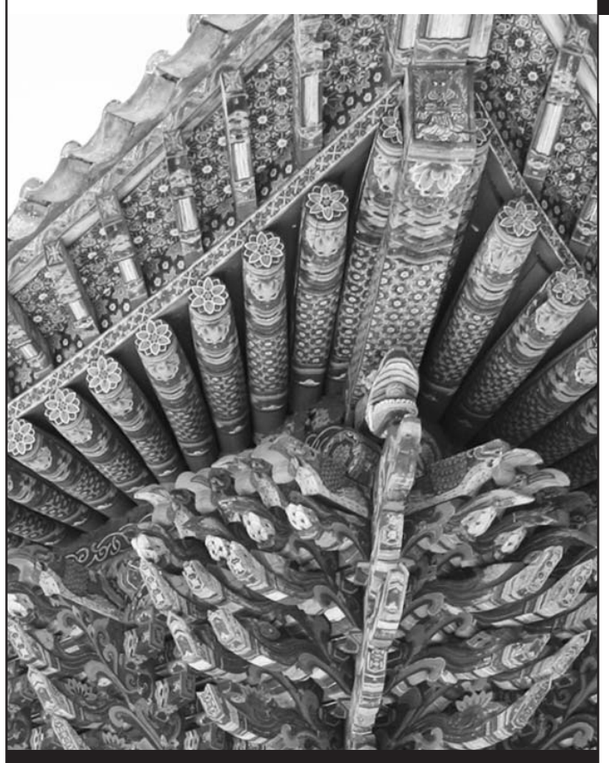
레이키(Reiki · 靈氣)가
왜 화제인가?
레이키(Reiki · 靈氣)는 배우기만하면 누구나 바로 氣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레이키는 이미 전세계 50~60개 나라에 보급이 되어있고 전세계의 수천만명이 체험을 하고 있는 우주생명에너지(氣) 활용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수 많은 성직자와 일반인들이 배워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1.동서양식 레이키 교육
◆개인교육 : 교육기간 2~3일, 교육비 70만원
◆단체교육 : 교육기간 2일(매월 1회 · 토, 일요일)
교육비 55만원
동서양식 레이키는 세계의 여러갈래의 레이키를 융합한 것입니다.
2.카루나 레이키 교육
◆개인교육 : 교육시간은 4~5시간 정도, 교육비 30만원
카루나 레이키에는 소리파동요법, 약식제령법이 있습니다.
3.지도자 소개(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 회장)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의 운영자인 저(박희준)는 20여년간 번역가, 저술가로 활동해 오다가 1997년 이후 일본 등 외국에서 여러가지 레이키를 배워와 지도하고 있는 우리나라 레이키의 개척자입니다.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 (회장 박희준)
인 터 넷 : www.Reiki.co.kr
자매홈페이지 : www.영혼실재주의협회.com
주 소 :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피어선빌딩 809호실
전 화 : 02)720-5719, 720-5682
팩 스 : 02)720-5720
핸드폰 : 010-8392-2557

정토불교법사대학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본 정토불교법사대학에서는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불교의식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교육안내
◆개강일자 : 2008년 5월 6일(화) 오후 3시 (목탁 지참)
◆교육시간 : 매주 화요일, 수요일 오후 3시 ~ 5시
◆통신교육 : 지방 거주자 (교재, 교육자료, 테이프 우송)
교육내용
(1)송주편 (도량석, 조.석 종성)
(2)예경편 (상단예불, 조석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례, 사성례, 신중단 등)
(3)헌공편 (삼보통청, 중단퇴공, 불공시식, 지장, 관음, 신중청 등)
(4)제의식편 (천도재, 49재, 시다림, 기제사, 명절제사, 방생의식 등)
(5)시식편 (관음시식, 화엄시식, 구병시식 등)
교육기간 단기 속성 3개월 과정
신청방법 전화접수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수강신청서. 사진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의식방법을 현장실습 위주로 집중 지도함.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지도함.
정 토 불 교 법 사 대 학
서울시 중랑구 망우 1동 403-15 (3F)
TEL 02)2208-6097, 6098

#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 5cm 50.000원
  규격 5× 7cm 70.000원
  규격 5×10cm 10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88 (주)에이치비엠씨
- TEL 02) 2004-8215 / 02)732-1522 (直)
  FAX 02) 737-0696
- 원고접수기간 : 매주 월 – 수요일
  · e-mail : onlymaum@paran.com

##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 사찰 및 토굴 안내

- 위치 : 삼랑진역 10분 거리
- 총평수 : 110,000㎡(3만3천평)
- 종교용지 1350평 + 밭 550평 + 임야
- 법당 : 15평, 요사채 : 20+20평
- 120년 역사(기도도량 최고)
- 정남향 좌우 청룡백호 현무의 자태 완벽한 산세
- 양도가 : 4억원

무릉선원
- 위치 : 마산 철서 ● 대지평수 325평
- 건물 약30평(등기필)
- 법당 20평, 요사, 방2, 다락실1 기타 창고 및 화장실
- 주방 및 욕실 최신시설
- 정남향 전망최고 뒷산 접
- 양도가 : 1억5천만원

사찰전문 부산 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 051)863-6622
※부산근교 사찰부지 및 사찰, 임법당, 토굴 다량확보

## 사 찰 안 내

| | | |
|---|---|---|
| ●위치 : 부산 | ●위치 : 부산 | ●위치 : 부산 |
| ●법당 : 21평 | ●법당 : 50평 | ●법당 : 24평 |
| ●요사 : 20평 | ●요사 : 100평 | ●요사 : 50평 |
| ●부지 : 190평 | ●부지 : 135평 | ●부지 : 290평 |
| ●가액 : 7억 5천 | ●가액 : 15억(조정가) | ●가액 : 5억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 사찰터 확보

- 위치 : 남해군 삼동면
- 총 평수 : 260평(실평 308평)
- 황토건물 : 31평
  현재 창고 : 100평
- 가액 : 2억원(절충가능)
- 창고 별도 양도가능

011-844-4037

##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 강북구 우이동
- 삼존불, 후불, 신중탱화 방2, 상담실, 주방 최고급 시설
- 금 부처님, 목불 좌대
- 보증금 1천만원, 월70만원 시설비 4천만원

011-9725-3196

##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 구포
- 2층 건물 중 2층 50평
- 최요지. 법당, 방2, 주방1
-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2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2800만원

011-591-5277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양평군
- 대지 : 600평
- 법당 : 100평(1,2층)
- 요사채 : 50평
- 산신각 8평(1,2층), 창고 1 법당 시설완벽
- 가액 : 8억원 (상담 후 절충가능)

011-477-0671

##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동구 팔공산자락 (동화사 근교)
- 대지 : 138평
  법당 20평, 요사채 10평
- 삼존불 모셔져있음
- 가액 : 2억 6천만원

## 대구 시내, 근교 사찰터

- 가액 : 2억 5천 ~20억
- 평수, 금액 다양함 (사찰 양도하실 분 소문없이 해결 해 드립니다)

019-534-7239

## 사찰(급)안내

- 신비의 바다 보배의 진도 (전남 진도군 내)
- 대지 : 약 2500평
- 법당, 산신각, 요사채(식당 겸) 전기보일러, 산세수려함
- 가액 : 3억 5천만원 (답사 후 절충가능)

011-9928-0005

##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충남 천안(아산 신도시 앞) 아산KTX, 천안IC10분 거리 아파트 3만세대 입주예정
- 약 70평, 7층 건물중 2층
-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2000만원, 월 75만원 시설비 : 문의 후 협의가능

041)565-9111

## 기도도량 안내

대둔산 도술봉 약사용궁도량
- 총 560평, 대지 125평,
- 법당(조립식), 칠성(조립식), 산신(허공), 용궁, 약수, 연못 요사채, 거실, 주방, 방4, 화장실2, 다락1
- 굿당(조립식), 선낭(조립식)
- 사정상 급 안내
- 가액 : 2억5천만원(절충가)

041)753-8433
011-9211-4219
꼭 보실분만 연락바람

##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상가 아파트 밀집 최요지
- 평수 : 45평
- 방2, 법당, 공양간, 시설완비
- 즉시법회 및 숙식가능
- 보증금 2천만원, 월50만원 시설금 절충가

055)337-8600
011-834-8545

##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곤양면 (백호부대 옆)
- 가액 : 2억6천
- 국도 인접, 곤양IC에서 3분거리 약 1600㎡
- 조립식 건물(가든 겸할 수 있음) 건평 : 약 180㎡
- 요사채 18㎡, 화장실 12㎡, 수목보일러실 12㎡

011-588-8317

## (움막)토굴안내

- 위치 : 울진
- 홀로 정진하실 분
- 토지는 양도안됨
- 전기, 전화없음 구들방 2칸
- 걸어서 2시간, 차로 20분
- 가액 : 300만원
- 꼭 필요하신 분만 연락요망 전화상담 5일간만

010-4905-5697

##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울산광역시 중구청 앞
- 평수 : 40평
- 보증금 2000만원, 월30만원 시설비 2000만원

010-6269-6600

##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칠곡 (구미시에서 5분거리) 인근에 신도시 개발중
- 평수 : 740평
- 대웅전,삼성각, 요사채, 종무소
- 가액 : 4억 5천
- 실사용면적 1,000여평

011-9598-3399

##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영동
- 평수 : 210평
- 법당 20평, 요사 30평 (실내는 아파트식)
- 과실수 골고루 있음 돌탑
- 심야전기, 에어컨 완비
- 가액 : 1억3천만원

011-491-2347

##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문현동
- 대지 200평, 건평80평, 양옥
- 법당 20평
- 아미타불 삼존불, 지장호신불 108불, 신장, 산신, 아미타후불탱화
- 요사채 60평 : 큰방1, 작은방5
- 사찰전자 비품 일절
- 보증금 천만원, 월70만원
- 정원, 잔디, 연못 설치 시설비 답사 후 절충

010-8877-7913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경주시 조양동
- 법당 목조 18평, 종각, 요사채 40평 총 880평(대지 380평)
- 가액 : 4억5천만원(시설비 포함) 전세도 가능
- 심야 전기 보일러 있음

011-875-3513

##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 강동구 길동
- 5층 건물중 3층
- 평수 : 30평
- 시설완비
- 보증금 1000만원, 월90만원 시설비 800만원(절충가능)

011-9773-6059
02)470-0472

##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소천면
- 임법당 1, 공양간 1, 컨테이너방 2개
- 산신불 모셔져 있음
- 스님 기도하기 최적합
- 물좋고 조용한 산사 산약초, 텃밭 있음
- 가액 : 3천만원

010-4660-5388

## 사 찰 안 내

- 위치 : 합천
- 평수 : 1530평 법당15평, 요사채 40평
- 화장실, 샤워실 별도 지하수, 심야보일러 설치
- 법당 앞에 연못과 조경 편안하고 포근한 산자락에 위치한 기도도량
- 가액 : 1억 5천

010-9690-2236

##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제주시 외도 1동 부영2단지. 2천세대 대단지 앞
- 굿당으로 최적지
- 법당 15평, 요사완비
- 주차공간 300평 및 채소밭으로 활용가능 시설비품 집세 합 700만원

017-393-1127

## 10년된 포교당 양도합니다

- 위치: 서울 불광동 시외버스터미널 옆 시장주변
- 원불 350불

02)386-9939

## 포교원 양도 안내

- 위치 : 서대전 경남아파트 부근
- 평수 : 50평(2층)
- 전세 : 2500만원(월세없음) 시설비 : 1100만원

010-5438-2358

##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아산시
- 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 대지 : 6500평
- 가액 : 6억원(절충가능) 꼭 필요하신 분만 연락요

011-269-7208

##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경북 구미시
- 평수 : 약 40평(2층 독채)
- 법당, 방3, 현대식 입식부엌
- 보증금 300만원/월20만원 시설비 500만원 (각종 집기 일체 인수)
- 입주 즉시 법회가능
- 운영하실 스님은 꼭 연락바랍니다

010-8801-3989

##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경주시
- 평수 : 111평
- 건물 : 법당, 요사채, 산신각 공양간 등 4채 방5개 마당에 5층 석탑 있음
- 가액 : 1억 5천5백만원 사정상 시세이하 계산함

010-3007-5611

## 제주 암자 안내

- 위치 : 제주시 오라동 공항에서 10분 거리
- 대지 : 194평 마당에 연못 있음
- 임법당 30평(법당 15평) 공양간 25평
- 가액 : 3억 8천만원

018-590-3583

## 사 찰 안 내

천하절경 명당터 천연계곡접
- 위치 : 강원북부 영서지방, 서울에서 1시간 30분소요
- 1만여평 부지 중 대지 3000여평 전각10여동, 30억 이상의 가치
- 사찰연혁 3백여년
- 가액 : 17억원

010-6304-5998

## 사찰하기 좋은 터

- 평수 : 1601평
- 지리산 천왕봉이 안대로 보이는 위치 (함양 병곡)
- 현재 1간 토굴 있음
- 가액:1억6천만원

010-6307-1162

##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경기도 안산시 본오동
- 평수 : 약20평
- 보증금 300만원, 월30만원 시설비 1천만원(절충가능)

010-3868-2438

## 사 찰 양 도

- 일단 와보실것을 희망 (백문이불여일견)
- 위치: 대전시
- 개원한것은 7년정도
- 2층건물에 2층 50평
- 보증금 1천만원 월 45만원 시설비: 1천5백만원

042)633-8497

## 20년 전통 사찰 전세 급 안내

- 경기도 포천시 시내권 내
- 2층 한옥
  1층 : 큰방3, 거실 및 주방
  2층 : 법당, 삼존불, 산신각
- 주차장 및 텃밭 있음 즉시 법회가능
- 전세 3500만원 시설비 900만원(절충가능)

010-5289-0075

##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김해시 동상동
- 평수 : 45평(3층)
- 보증금 300만원 월 42만원 시설비 500만원

011-9552-3976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 대지 : 1,206㎡(약366평)
- 임야 : 130㎡(약40평)
- 요사 : 198.24㎡(약60평)
- 대웅전 : 109.44㎡(약33평)
- 삼성각 : 30㎡(약9평)
- 실사용평수 : 약 600평
- 7층석탑, 정남향, 산세수려
- 가액 : 답사 후 협의요

011-9143-0098

## 명당 암자터 별장지 안내

- 위치 : 충북 영동
- 영동역에서 3분거리, 버스 도로접
- 앞에는 금생수가 흐르고 북바위가 둘러싸여있는 복터
- 평당 5만원 : 1100평 평당 15만원(대지), 200평, 300평, 500평

010-3545-9992
043)732-2756

##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서울 강남 논현동 (7호선) 2번출구. 평수 : 30평
- 2층법당, 영가단, 거실, 주지실, 공양간, 세면실
- 보증금 2천만원, 월150만원 시설비 1,500만원 (꼭 필요하신분 절충가능)

011-506-4661
011-545-5060

##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경기 경계 원도봉산
- 시지 약 300평, 별채 20평 신축건물 임법당 45평,
- 경내 7층석탑, 관음석불, 심야보일러
- 1호선 망월사 전철역에서 5분거리
- 지하수, 상수도 공기 청정하고 조용하며 산세 수려함

016-337-9518

## 사 찰 중 개

| | |
|---|---|
| ●위치 : 경기 | ●위치 : 서울산아래 |
| ●부지 : 1,000평 | ●대지 : 국유 300 |
| ●법당 : 30평 목조 | ●법당 : 45평기와 |
| ●요사 : 30평 | ●요사 : 25평 |
| ●가액 : 10억 | ●가액 : 9억 |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소개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 (특급)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 교통 : 삼랑진IC 7분, 밀양 25분 거리(2차선 도로 포장)
- 부지 : 5200평(종교용지 1050평)
- 법당 : 대웅전(목조 5포9포 단청) 25평, 지장전 20평, 관음전, 삼성각
- 요사 : 설송당(목조) 18평, 자양당 43평, 요사 52평
- 환경 : 수려한 산속 지장기도도량, 좌청룡 우백호 명당
- 가액 : 시세 저렴 직거래 상담 후 결정

창건주 건강문제로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055)356-6887 (야)
010-3865-3415

## 사 찰 임 대 안 내

- 위치 : 경기도 광주 곤지암 도척면(시내 10분거리)
- 부지: 대지 300평, 시유지100평 (주차장)
- 건축:요사채 35평 (요사채 일부 임법당 사용중)
- 삼존불 신중님 칠성님 산신탱화
- 엠프 집기 비품 일체 구비
- 산세경관 수려하고 교통편리
- 몸만 들어오셔서 절운영하실분 적합
- 전세 9천만원–1억 (절충가능)

011-9038-6531

## (특)사찰안내

- 위치 : 경기도 신도시 부근
- 부지 : 680평(실제 1300평이상 활용) 납골당 가능
- 대웅전 20평, 요사채 2(100평, 20평), 창고 2동
- 도시 속 노송 우거진 풍치 수려한 절 두개의 신도시(차로 5분) 서울(차로 25분) 교통요지 포교와 신행의 최적지, 시설좋음
- 창건주 건강문제로 부득이 좋은인연 기다립니다
- 가액 : 주택가격이 평당 500 ~ 1천만원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가격, 내방 후 결정

010-5290-3709

##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북 구미시
- 108평(건물 3층 전체사용), 옥상 사용가능
- 법당 : 삼존불, 약사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약사관음탱화, 지장호신불 78불, 각 에어컨2대
- 스님 서재방1, 종무실1, 대중공양실1, 방사 2칸
- 후원 5평, 시설 모두 A급
- 현재 불교대학 운영중
- 보증금 및 시설비 5천만

010-4802-5288

## 주택 암자 안내

- 위치 : 강릉시 주문진 소돌 아들 바위 부근 바닷가 5분거리, 주문진 해수욕장
- 텃밭, 집 2채
- 전세 3천500만원 (기한 5년까지 가능) 양도가 6천 500만원(보전 등기 가능)

## 사찰전세 안내

- 위치: 강원도 정선 ●요사채 50평
- 산세좋고 경관수려, 대산입수가 용이하고 산신각과 용궁이 유명함 ●전세 5,000만원

011-9918-5251

## 사 찰 안 내

- 위치 : 마산시 진전면
- 대지 600평, 법당 25평
- 삼존불, 요사채 30, 20평 ●마당, 연못
- 마산,진주,고성,통영,함안30분거리
- 가액 : 3억(융자가능)
-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바람

010-3996-2035

## 최고의 시설, 최적의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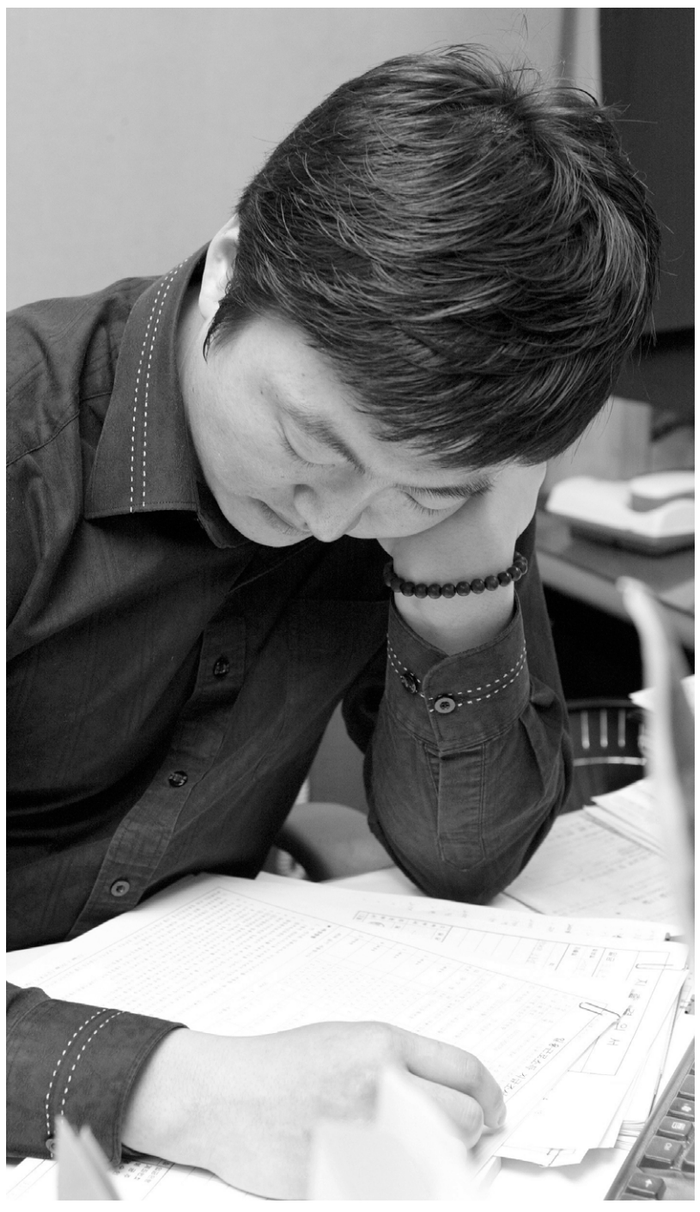
- 위치 : 경북 대구 바로 옆 경산시 중심가 교통의 중심가, 주차장 완비
- 5층(엘리베이터) 옥상사용
- 삼존불 탱화, 약사여래불 탱화, 신중탱화
- 평수 : 80평(법당 40평 마루)
- 방3개(주지실, 사무실, 주방) 후원
- 시설비 3000만원, 월70만원 급 사정으로 저렴하게 양도함

010-2051-6705

불자정보 계속

# 봄나물·운동으로 나른함 이기자

## 봄철 '춘곤증'의 원인과 극복요령



직장인 이정석(28·서울)씨는 요즘 부쩍 회사에서 조는 일이 많아졌다. 온 몸이 물먹은 솜처럼 무겁고 나른한 것이 이유 없이 피곤하고 졸립다는 것이 이씨의 호소. 점심 식사 뒤에 어김없이 찾아오는 졸음을 아무리 이겨보려 애쓰지만 이씨는 거의 매일 직장 상사로부터 꾸지람 듣는다. 식후 몸이 나른해지면서 피곤을 느끼는 것은 어느 계절이나 같지만 유독 이씨처럼 봄만 되면 심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춘곤증'이라 불리며 봄만 되면 졸음과 무기력이 심해지는 이유와 극복 요령 등에 대해 알아본다.

**# 규칙적인 생활과 영양섭취 등으로 극복**

춘곤증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 소중한 몸 한의원 여동현 원장은 "봄철 보약을 먹는 이유 중 하나가 허해진 기운을 쉽게 보충하기 위함이다. 봄철에는 인삼, 황기, 백출 등의 약재를 써 기운을 북돋는 것이 좋다. 이와 함께 규칙적인 생활습관과 운동, 과일 · 야채 등 충분한 영양섭취, 술 · 담배를 절제한다면 춘곤증 극복과 건강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권한다. 또 "사계절 일정한 활동을 하는 젊은 사람들보다 겨울이면 바깥 출입을 줄였던 노인들이 봄에 외출을 늘이며 건강에 무리가 오는 경우가 많다"며 노년층의 각별한 봄철 건강관리도 강조한다. 다른 전문가들도 "봄철 비타민 소모량은 겨울보다 3~10배 많다"며 영양상의 불균형과 불규칙한 생활습관 등이 춘곤증으로 나타나는 것이라 말한다.

두릅에는 비타민 등 무기질도 풍부하다. 두릅의 특유의 향은 마음을 편안히 해줘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좋다. 특히 두릅의 사포닌 성분은 혈액순환을 도와 피로회복에 도움을 준다.

**# 오후 토막잠과 적당한 운동도 큰 도움**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위해서는 기상시간과 취침시간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나친 음주와 커피는 숙면을 취할 수 없게 해 규칙적인 생활에 방해되니 삼가한다. 오전에는 주로 머리 쓰는 일을 하고 오후에는 사람 만나는 일 등으로 생활패턴을 짜는 것도 피곤을 줄이는 요령이다. 낮잠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참을 수 없이 졸음이 쏟아질 때 억지로 잠을 참기보다 10분이라도 토막잠을 자는 것이 하루를 활기차게 보내는데 도움이 된다.

적당한 운동도 춘곤증을 이기는 방법이다. 여 원장은 "적당한 운동은 폐활량을 증대시켜 신진대사를 돕는다"고 말한다. 춘곤증에는 맨손체조와 전신을 풀어주는 스트레칭, 산책 등 가벼운 운동이 좋다. 의욕만 앞서 무리하게 운동하거나 잠들기 전 과격한 운동은 불필요한 긴장감을 유발해 수면을 방해하므로 삼가고, 땀이 날 정도로 운동 한 뒤 전신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체조로 호흡을 고르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타민C 등 영양소 섭취 · 규칙적 생활습관 도움**

**졸음 쏟아질 땐 참지 말고 10분이라도 토막잠을**

**#춘곤증에 좋은 봄나물**

봄나물에는 비타민C 등 봄철이면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가 풍부하다. 피로회복과 면역력 증강에 도움 되는 비타민 C는 특히 봄나물 등에 많이 들어 있다. 대부분 봄나물은 소화를 도와 위와 장을 튼튼하게 하고 간에 쌓인 독소를 풀어주며 피와 정신을 맑게 한다. 특히 쑥, 원추리, 취나물, 두릅, 달래, 냉이 등 봄나물은 입맛도 돋워주고 혈액순환을 도와 원기를 회복하는데도 좋다.

단백질은 졸음을 쫓고 당분은 졸음을 부르는 성질이 있다. 때문에 낮에는 단백질이 많은 육류를 먹고, 밤에는 당분이 다량 함유된 곡류나 과일 등을 섭취하는 식이요령도 필요하다. 냉이는 야채 중 단백질을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다. 냉이는 주로 초고추장에 무쳐 먹기도 하고, 된장찌개에 넣어 향긋한 맛을 즐기기도 한다.

차가운 성질로 체내의 나쁜 기운과 열기를 없애주는 쓰바귀는 잠을 쫓는 효과가 있어 춘곤증에 도움이 된다. 끓는 물에 살짝 데쳐 초고추장에 무쳐 먹는 쓰바귀 무침은 쓰고 신 맛이 강해 식욕을 돋우는데 좋다.

**춘곤증 이기려면**

- 가벼운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자.
- 너무 졸리면 오후 10분 정도 낮잠 시간을 갖자.
- 술 · 담배 · 커피 등을 줄이자.
- 봄나물 · 신선한 과일 섭취를 늘이자.
- 충분한 휴식으로 스트레스, 피로는 제때 해소하자.




## 26. 봄철결막염

봄철에는 꽃가루나 겨우내 쌓인 먼지 때문에 알러지 결막염이 많이 발생한다. 알러지 결막염의 가장 좋은 치료법은 원인물질을 회피하는 방법이다.

봄철에 어김없이 악화되는 계절성 알러지 결막염이라면 꽃가루가 심하게 날리는 날은 외출을 피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그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다. 그래서 최근에는 알러지 결막염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약물로 관리를 하는 추세이다.



**꽃가루 많이 날릴 땐 외출 자제**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 씻어야**

예전에는 알러지 결막염 치료를 위해 알러지 반응 유발물질인 히스타민을 억제하는 항히스타민 안약을 사용했다. 하지만 이런 약물은 이미 알러지 증상이 시작됐을 때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작용하므로 평상시 눈 관리에는 한계가 있었다. 최근에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알러지 유발물질의 분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알러지 반응을 미리 예방하는 기능을 갖춘 안약들이 많이 나왔다. 이러한 약물들은 장기간 사용해도 약물남용에 의한 부작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봄철 알러지의 경우 알러지가 심해지기 전 2~3월부터 초여름까지 장기간 증상과 상관없이 안약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눈이 건조해지면 알러지 유발 물질의 농도가 높아져 증상이 훨씬 심하게 된다. 때문에 인공누액을 같이 사용하면 효과적이다. 알러지가 전혀 없는 눈이라도 눈이 건조하면 마치 알러지와 같이 가려움증을 느끼게 되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감별 진단도 필요하다.

우리나라와 같은 온대지방에서 봄철에 청소년기에 주로 발생하는 봄철 각결막염이라는 질환도 있다. 봄철 각결막염은 일반적인 알러지 결막염보다 훨씬 심한 형태로 각막염까지 동반하고 심한 경우 일시적으로 시력이 감소하기도 하는 질환이다.

일반적인 알러지 안약으로 치료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전문기관에서 세심한 치료가 필요하다.

봄철 증가하는 눈 질환으로 알러지 외에 황사로 인한 눈 질환도 많다. 황사에 포함된 각종 미세먼지와 중금속은 그 자체가 알러지를 유발하기도 하지만 이와 무관하게 그 자체의 독성으로 자극성 결막염, 각종 세균감염, 눈 표면의 상처 등이 유발되기도 한다. 따라서 황사가 심한 날에는 외출을 피하는 것이 좋다. 콘택트렌즈 착용자는 가급적 렌즈를 착용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소에 눈이 건조하다면 인공누액을 좀 더 자주 점안하는 것도 요령이다.

외출이 잦은 봄철에는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유행성 결막염도 증가한다. 유행성 결막염은 심한 충혈과 눈 분비물이 특징이다. 전염력이 매우 높아서 직접 접촉한 경우 90% 이상이 발병한다. 공기 중 바이러스를 통해 감염되는 경우는 없고 바이러스가 손에 묻은 상태에서 눈을 비비거나 만질 때 눈으로 전파된다. 일단 감염되면 약 1주일 정도 잠복기를 거친 후에 발병한다. 잠복기 중에도 외부로 전파가 가능하다.

따라서 멀쩡해 보이는 경우에도 잠복기에 서로 전파가 가능하므로 전염 경로를 잘 모를 때도 많다. 따라서 외출 후에는 손을 반드시 씻는 것이 좋다.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은 손으로 눈을 비비지 않는 것이다.

외출이 잦아지는 봄철, 눈 건강에 대한 올바른 정보로 우리 눈을 보호하자. (02)755-0055

■ 김준헌(소중한눈 안과 원장)


**675호 | 불자정보**

TEL 02) 2004-8215
732-1522(直)
FAX 02) 737-0696

**서울 도심 포교원**
- 위치 : 영등포역 5분 거리 (영등포로터리 번화가 위치)
- 법당, 주방 등 살림가능 5층 건물중 4, 5층 사용(38평)
- 삼존불, 산신전, 지장전
-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70만원 시설비 4천2백만원
- 유동인구가 많아 역학스님, 보살님 최적

010-4474-4446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김해시 장유면
- 대단지 아파트, 상가 밀집지역
- 평수 : 45평(3층 건물중 2층)
- 최신식 현대시설의 <지장도량>
- 법당, 공양간, 방2, 주차장
- 전세보증금 1천만원, 월55만원 시설비는 현장 확인 후 절충

011-852-847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망미동 지하철역 도보 2분거리
- 도로변 2층(단독)
- 법당, 주방(大), 방3개, 욕실2개
-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조절가) 시설비 350만원

011-9342-9794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 광진구 화양동
- 3층 건물중 2층, 3층(각 24평) 2층 요사채, 3층 법당
- 즉시법회가능
- 가액 : 1억5천만원 (보증금, 시설비 포함)

010-8028-0660

**사 찰 안 내**
- 위치 : 밀양 무안 운정리 노리실 석불암
- 대지 : 450평, 법당 50평, 요사채 : 20평

055)356-5322
051)254-3016
016-832-5114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구 남구 대명동 (대구대 앞 대로변)
- 법당 42평 (5층 건물중 2층)
- 삼존불, 108호신불 방1,주방,샤워실(비품일체 양도)
- 가액 : 시설비 1,200만원 보증금 500만원, 월45만원 급한 사정으로 저렴하게 양도함

010-5013-2526

**포교당 터(임법당) 안내**
- 위치 : 경북 칠곡군 왜관읍 낙동강변
- 대지 232평, 신축건물 60평(3년)
- 현재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주변경관이 사찰로 운영함이 좋을 듯 싶고 포교당으로도 적합함
- 심야전기시설, 주차시설 완비
- 가액 : 현 시가액에 맞지않은 3억2천만원에 인연맞는 분께 양도하려함

011-803-7448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횡성 IC 10분거리 이내
- 평수 : 5,800평
- 법당 3동, 요사채 5동, 창고 1동
- 가액 : 22억

010-4445-5179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성북구 정릉동 청수장 (국립공원 주차장 내)
- 임법당 50평 주차장 완비 즉시법회가능
- 가액 : 1억 3천 5백만원 (전세, 시설비 포함)

010-4532-7920

**(급)사찰안내**
- 위치 : 경남 의령군 자굴산(문수사)
- 총평수 : 약1700평
- 허가면적 : 약 550평
- 건물 : 요사채, 산신각 약100평 현재 공사중에 있는 사찰로서 스님의 건강악화로 급하게 안내하오니 인연이 맺는데로 양도함
- 현재 공사비 약 4억 소요

055)572-0405
011-9850-820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전 태평동 시장입구 (아파트 밀집지역)
- 평수 : 40평(3층)
- 삼존불, 후불, 신중, 칠성, 산신탱화, 미륵불, 동불 5자
- 방2, 주방, 실내화장실, 에어컨 및 모든시설 완비
- 보증금 2천만원, 월30만원 시설비 2천만원(가격절충)

042)525-5355
018-456-6339

불기 2552년(2008년) 무자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 특집광고 접수 안내**

귀의삼보 하옵니다.
불법홍포를 위해 정진하시는 대덕 큰스님 이하 사부대중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현대불교신문을 관심 있게 지켜보아 주시고, 물심양면 도움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머리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불기 2552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온 누리에 부처님의 법 향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봉축 특집 신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함께하는 축하광고 지면**을 마련하였사오니 무루 동참해 주시어 부처님의 법음이 더욱 밝아지도록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정진의 자세로 더욱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아 래

- 제 목 : 2008년 봉축 특집 축하광고
- 내 용 : 축하말씀, 단체 및 사찰명, 임원진, 사진, 주소, 연락처 등
- 크 기 : 크기에 따라 선택 가능
- 마감일 : 2008년 4월 28일(월요일)
- 접수처 : 현대불교신문사 영업부 및 지사지국

※전화 주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고 크기별 샘플 보내드립니다.

| | |
|---|---|
| 본 사 | 02)732-1522 |
| 부산지사 | 051)632-0064 |
| 대구지사 | 053)768-8008 |
| 충청지사 | 043)732-5560 |
| 경남남부 | 055)746-9778 |
| 경남동부 | 055)353-1196 |
| 경남서부 | 055)355-7472 |
| 광주전남 | 062)384-3009 |
| 전 북 | 063)910-5199 |
| 영주지국 | 054)634-3429 |

현 대 불 교 신 문 사

# 선종불교 역사에 큰 발자취 남긴 평민거사

중국불교의 거사들 〈8〉

## 남조(南朝)의 거사불교❷-부대사(傅大士)

양무제(梁武帝) 집권시기에 수많은 명승과 거사들이 활약했다. 그 가운데 부대사는 후대에 달마(達摩) 선사 · 지공(誌公)과 함께 양대(梁代) '삼대사(三大士)'로 칭해질 정도로 유명하다. 이는 '양무제와 달마 선사의 문답'을 인정한다는 전제로부터 나온 것이라 명확한 역사적 사실은 아니지만, 부대사(497~569)는 남조를 대표하는 거사로서 후대 중국불교, 특히 선종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부대사의 본명은 부흡(傅翕)으로 호는 선혜(善慧)이다. <속고승전>에서는 본명을 부홍(傅弘)이라 칭했다. 선혜(善慧)대사, 어행(魚行)대사, 쌍림(雙林)대사, 동양(東陽)대사로도 알려져 있지만, 일반적으로 부대사라 불린다. 거사는 동양군(東陽郡) 오상현에서 대대로 농사를 짓는 가정에서 출생했다. 거사가 16세 되던 해 유묘광(留妙光)과 결혼해 보건(普建), 보성(普成) 두 아들을 낳았다.

거사는 어려서부터 학문에 뜻이 없었으며, 특별히 애착을 갖는 일도 없이 항상 고기를 잡으러 다녔다.

### 양무제와 담론 통해 '쉬지만 멸하지 않음' 도리 설파

### '부대사보지금강경찬' 집필…금강경 이해 단서 제공

그런데 거사는 고기를 잡고난 후 담아놓은 통을 물에 담그면서 "갈 고기는 가고, 남아있을 고기는 남으라"고 말해 그것을 인과의 소치로 돌리니, 사람들이 모두 어리석다고 비웃었다. 거사가 24세 때, 숭산(嵩山)에서 온 서역승려가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숭산타(嵩山陀)'라고 칭했다. 어느 날 숭산타가 거사를 찾아와 "나와 너는 비바시불(毘婆尸佛) 앞에서 함께 서원했다. 현재 도솔궁에는 나와 너의 의발이 여전히 있는데, 너는 도대체 언제 돌아갈 것인가"라고 물었다. 망연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사에게 숭산타는 여러 가지 교의를 가르치며 자신의 머리 위로 둥근 광채를 띄우는 등 상서로운 모습을 보였다. 그제서야 거사는 숙세의 인연을 돈오했다. 거사가 웃으면서 말하기를, "대장간 화덕에는 순수한 철이 많고, 좋은 의사에게는 환자가 많습니다. 중생을 제도함이 급한 일이거늘, 어찌 도솔궁의 즐거움을 생각하겠습니까"라고 말하니, 숭산타는 송산(松山) 아래 쌍림수(雙林樹)에서 수도하라고 일렀다. 거사는 바로 그곳에 암자를 짓고 머물렀다. 숭산타가 거사에게 일러준 자리는 후에 쌍림사가 창건돼 수많은 고승들을 배출했다. 거사가 송산 아래 머물자 산의 정상에는 둥근 황운(黃雲)이 맴돌았고, 사람들은 송산을 '운황산(雲黃山)'으로 바꿔 불렀다. 거사가 부인과 함께 낮에는 농사짓고 밤에 수행하기를 7년째 이어가던 어느 날이었다. 선정에서 석가 · 금속(金粟) · 정광(定光) 세 분 여래가 거사의 몸 위에 방광하는 모습에 거사는 자신이 이미 수능엄(首楞嚴)의 정경(定境)을 얻었음을 알았다.

이후 거사는 스스로 '쌍림수 아래 당래 해탈한 선혜대사(善慧大士)'라는 호를 짓고 법을 설했다. 거사의 설법에 사부대중이 모여들자 군수가 요언(妖言)으로 민중을 미혹시킨다고 누명을 씌워 감옥에 가뒀다. 거사가 옥중에서 몇 십일 동안 아무것도 마시거나 먹지 않으니, 사람들이 더욱 거사를 받들게 됐고, 결국 군수는 거사를 방면했다. 법회는 더욱 확대됐고 사람들은 그를 '대사(大士)'로 받들었다.

이때가 거사가 31세 되던 양나라 대통(大通) 원년(527)이다. 그 해 거사가 있던 곳에는 커다란 흉년이 들었다. 거사는 모든 재산을 보시해 구제에 나섰다. 거사의 부인은 막일을 해 구제에 보태던 중 거사에게 "자신을 팔아 중생의 고통을 해소해달라"고 청했다. 거사는 부인을 5만전에 팔아 그 돈으로 굶주림을 건지는 대법회를 열었고, 이에 감동한 인근의 수많은 부호들이 재산을 희사했다. 이 사실을 안 부인을 사갔던 사람은 부인을 돌려보냈다.

이때부터 거사는 미륵불의 화신으로 알려졌다. 천태산(天台山) 혜집(慧集) 스님이 거사에게 법을 물으러 와서 며칠 동안 참문하다 크게 깨치고는 거사의 제자가 되기를 청했다. 당시 혜집 스님은 37세로 거사보다 6세가 많았다. 이후 혜집 스님은 거사의 문하에서 많은 역할을 수행한다. 거사의 명성이 커지자 운황산 쌍림에 귀의하는 제자들도 늘어났다. 그 당시 양무제는 수많은 명승들을 모셔 법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거사는 전혀 초청받지 못했다. 이에 그의 문도 100여명은 현령에게 부대사를 양무제에게 추천해 줄 것을 권했지만, 현령은 그들을 모두 내쫓았다.

대통 6년(534) 정월, 인연의 성숙함을 알고 부대사는 양무제에게 '치국삼책(治國三策)'의 내용을 올렸다. 같은 해 12월 양무제는 거사를 수도로 초청했다. 이로부터 거사는 대동(大同) 5년(539), 6년(540) 3차에 걸쳐 양무제의 초청을 받아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1년 동안 수도에 머무르며 양무제와 만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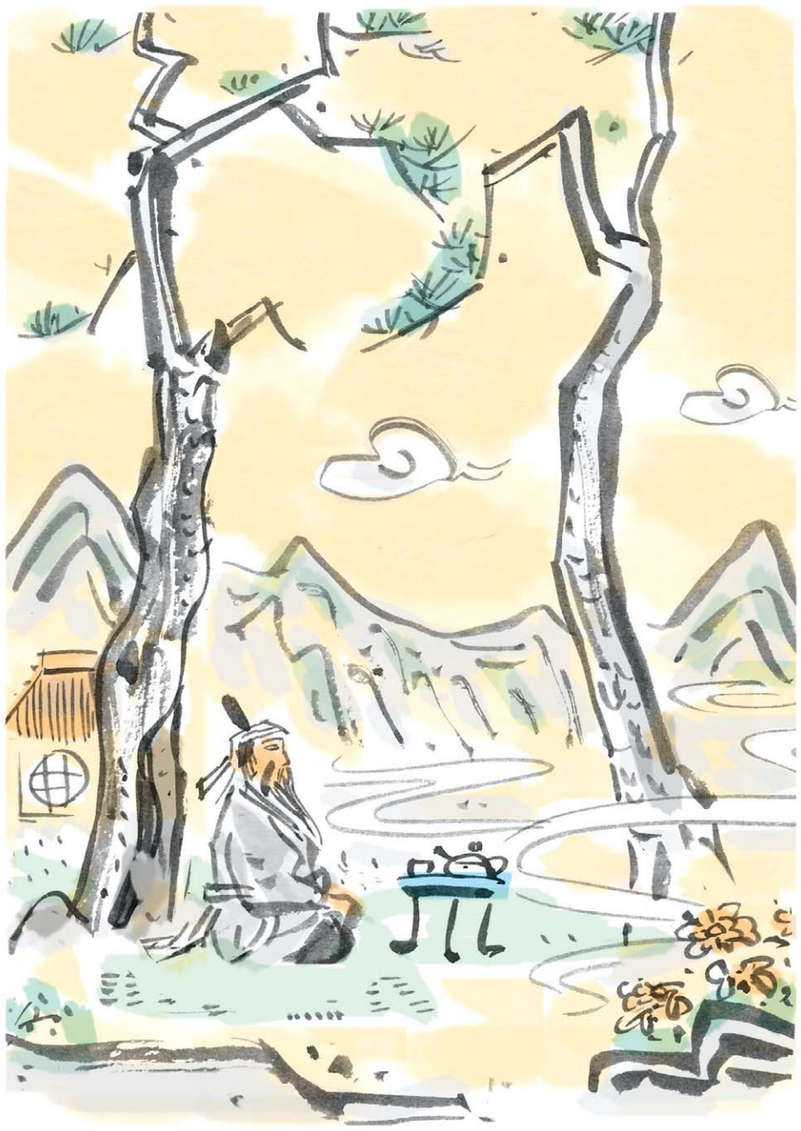


그림 · 김홍인

거사가 양무제를 처음 만날 때였다. 양무제는 거사에게 예를 표하지 못하게 하고 스승을 물었다. 거사는 "종래 따른 바도 없고, 스승이라고 할 바도 없다. 받들만한 것도 없었다"라고 말했다. 거사를 인정한 양무제는 종일 담론을 벌였다. 이후 거사는 <금강경> 강설을 맡았다. 법좌에 오른 거사는 자를 어루만지다가 책상을 내리치고는 내려왔다. 옆에 있던 지공(誌公) 화상이 양무제에게 "이해하셨습니까?"라고 묻자 양무제는 "알지 못했다"라고 답했고, 지공 화상은 강설이 끝났음을 대중에게 알렸다. 이는 <벽암록>67칙에도 실려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지공 화상(418~514)은 부대사가 18세이던 해에 이미 입적했다. 입적한 지공 화상이 등장하는 것은 '양무제와 달마 대사의 문답'과 같이 역사적 사실로 보기 어렵다. 팽제청이 지은 <거사전>에는 부대사가 직접 양무제에게 묻는 것으로 되어 있고, 주시은의 <거사분등록>에는 지공 화상의 이름 대신 '성사(聖師)'로 표기했다. 부대사와 관련된 여러 자료에서 위의 일화가 보이는 것으로 볼 때 일화 자체는 사실로 보인다.

거사는 양무제와 3차례 만난 후 실망했다. 거사가 볼 때 양무제의 불교신앙에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음을 간파했기 때문이었다. 양무제와 두 번째 만났을 때부터 거사는 바로 '쉬지만 멸하지 않음'의 도리를 양무제에게 설파했다. 양무제에게 불교의 진리에 접근하려면 형식에 치우친 불사(佛事)가 아닌 참다운 마음에서 비롯돼야 한다는 은근한 충고를 하는 있는 것이다. 양무제는 거사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대동 6년(540), 마지막으로 양무제를 대면했을 때, 거사는 양무제에게 자신이 있는 운황산 쌍림을 사찰로 조성해도 좋은가를 물었다. 양무제의 재정적인 도움을 받아 '쌍림사'를 창건했다. 이렇게 창건한 쌍림사는 거사의 원력으로 역사에 남는 사찰이 됐다. 수대(隋代)에는 '천하에서 세 번째, 절강에서 첫째'가는 사찰로 불렸고, 송대(宋代)에는 황제가 정한 '오산십찰(五山十刹)' 가운데 8번째로 손꼽혔다.

거사는 쌍림사 창건 후 운황산에 은거했다. 그러나 태청(太淸) 2년(548), 후경(侯景)의 난이 발생해 민생은 다시 도탄에 빠지게 됐다. 그에 따라 거사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털어 중생들의 괴로움을 해결코자 했다. 유한했던 재산이 안타까웠던 거사는 '법시(法施)'로서 인간 세상에 경종을 울리고자 '소신공양(燒身供養)'을 결정했다. 먼저 '불식(不食)'으로 제를 올리며, 소신공양을 준비했다. 이 사실을 안 문도들이 모두 몰려와 울면서 서로 대신 소신하겠다고 청하며 거사에게 세간에 더 머물기를 간청했다. 어쩔 수 없이 거사는 문도들의 청에 따라 세간에 머물기로 했다. 입적하기 전까지 거사는 청빈하게 살며 모든 재물을 중생 구제에 돌리도록 했다.

대건(大建) 원년(569)에 이르러 거사는 세상과의 인연이 다되었음을 알고 <환원시(還源詩)> 12장을 지었다. 그해 4월 24일 보건 · 보성 두 아들에게 "신중하게 참회하고 수행하라"는 유언을 남기고 73세로 입적했다. 거사는 입적 전 제자들에게 화장해 유골의 반은 산 정상의 탑에 안치하고, 반은 집안의 탑에 두도록 분부했다. 태건(太建) 5년 진(陳)의 선제(宣帝)는 서릉(徐陵)에게 거사의 비문을 짓도록 했는데, 현재 비는 존재하지 않지만 다행히 그 비문은 전래한다.

거사는 많은 작품들을 남겼다. 그 대부분은 4권으로 이루어진 <선혜대사어록>(만속장경 120권 수록)에 담겨 있다. 그 가운데 <행로난> 20편과 <심왕명>은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애독하고 있다. 이외 <송사(宋史)> 권205 <예문지>에 <부대사보지금강경찬> 1권 등은 <금강경> 이해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거사가 중국불교에 미친 영향은 이루 다 논할 수 없을 정도로 심원하다. 천태 · 화엄 등 각 종파뿐 아니라 선종에 있어서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특히 선종에 있어서는 후대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선사 어록에 부대사 명칭과 일화들을 게재할 정도로 그 영향이 크다. 또한 양무제와는 달리 평민출신 거사인 부대사의 행적은 후대 전체적인 중국거사불교에 가장 전형적인 귀감이다.

■ 김진무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


가장 편안한 신발 성불화 인기!

성불화 카필라 신발



▲성불화 남여공용

카필라는 석가모니 부처님 탄생 국가이름

이다.

신발내부에는 신소재를 사용해 겨울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찬공기를 차단해 대단히 따뜻하고 여름에는 발냄새까지 흡수해 외부로 방출하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으며 신고, 벗기 편하게 원터치 신발끈으로 되어있다.

최고급 천연방수 "뉴벅" 사용

디자인면에서는 불자님들의 평상복에도 잘 어울리고, 스님께는 승복색상에 맞게 품격있게 제작하고, 최고급 천연방수가죽 뉴벅을 사용해 세련되어 종교를 떠나 타종교인들도 신청하고 있다. 또한"카필라"를 신고 만행할때 악귀와 잡귀를 미리쫓고 좋은 인연과 귀인을 만나게 만트라를 넣은것이 독특하다. 성불화"카필라"는 남여 공용으로 225mm부터 280mm까지 싸이즈별로 제작되어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받아 신을 수 있다.

가격 88,000원

• 문의: 080-775-7575

농협: 935-12-355423 박정미

불자님 평상복에도 세련!
스님 승복 색상에 맞춰 품격!

국내 기능성신발 메이커인 삼양에서 스님과 불자님들을 위한 신발 성불화 Ⅱ "카필라"를 생산판매하고 있어 성불화 I 에 이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성불화"카필라"브랜드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왕세자를한 인도의 고대국가 이름이며 과학적인 설계로 신발의 무게를 획기적으로 가볍게 하고,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장시간 보행에도 피로감을 감소하게 제작된 기능성 신발

추운 겨울, 더운 여름을 거뜬히 이겨냅니다!

산양삼 직판 특별할인공급

지리산 산양삼 먹어보면 느낌이 확 옵니다.

산삼은 노루나 멧돼지 새 등이 산삼씨앗을 먹고 다른곳에 배설하여 싹이나 자라는 것이고 산양삼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산속에 산삼의 종자를 뿌려놓고 자연상태에서 10~20년을 기다린후 채취한다.

인삼은 삼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 2~3년만 지나도 손가락 굵기로 크지만 민족의 영산 지리산에 위치한경남 함양군에 있는 지리산산양삼은 울창한 수림속에 잔볕이 드는 산삼이 자라는 토양과 같은 조건에서 자라므로 10년이 지나도 손가락 굵기정도밖에 자라지 않으며 토양속 무기질을 영양으로 흡수하기 위해 잔뿌리가 잘 발달되어 있다. 그동안 삼이 좋은줄 알면서 높은 가격 때문에 선뜻 구입하지 못한 분들께 지리산 산삼영농조합에서 직




가로 특별공급하고 있다. 공복에 생삼을 바로 먹어도 좋고 다려먹어도 좋은 산양삼입니다. 많은 애용바랍니다.

- 자주 나른함을 느끼시는 분
- 연로하신 부모님
- 일이 많아 업무에 시달리는 분
- 손, 발, 몸이 찬 주부
- 추위나 더위를 많이 타는 분
- 공부로 늘 힘든 수험생
- 몸이 약한 아이들
- 체력소모가 많은 운동선수

※삼령, 생산자, 원산지가 표시된 산양삼 증명서가 동봉됩니다.

※시중 유사품에 주의하시고 겨울철이므로 통신으로 직판만 합니다.

■8년산 3뿌리 ~~300,000원~~ 200,000원
■8년산 6뿌리 ~~600,000원~~ 300,000원
■12년산 1뿌리 ~~200,000원~~ 150,000원

가족, 부모님, 고마운 분께 산양산삼은 평생 잊지못할 건강선물이 될 것입니다.

문의 1566-3378
지리산산삼영농조합
농 장 (055) 963-3375
농협 1285-02-028081 임지영

오늘도 기분 좋은 안심참옻! 「천하무적」

옻 옻가네 토종참옻



- 몸이 무겁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구요?
- 한국 식품연구원 개발
- 서울대학교 안전성 검사

옻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거나 먹을 수는 없겠지요?

옻은 한번만 먹어도 몸이 따뜻해지고 속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옻이 좋은줄은 알지만 옻탈 걱정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 누구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과학적인 연구와 현대기술로 새롭게 개발된 참옻제품이 출시되면서 술을 자주 드시는 분이나 몸이 무거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분들로 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몸이 따뜻해지고 속이 편안 …

전통식품 현대화를 위한 농림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식품연구원(정부 출연기관임) 성기승 박사 외 8명이 3년간 연구 개발한 기술로서 서울대학교 수의학과에서 안전성 검사실험을 완료하였다.

몸이 무거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거나 술, 담배를 자주하시는 분, 운동 또는 공부로 힘든 아이들, 조금만 움직여도 만사 귀찮아 하는 분은 일주일만 먹어도 자신이 직접 느낄 수 있다고 한다. 남녀 누구나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본 제품은 일반형과 더욱 진하게 만든 고급형이 있다.

언론보도자료

"인정받은 만큼 더욱 더 노력 하겠습니다."

- MBC 고향은 지금 – 옻 안타는 참옻 최초 개발
- KBS 고향의 아침 – 참옻은 몸을 따뜻하게 한다
- SBS 한선교 정은아의 좋은아침 – 옻 탈 걱정 없는 참옻 개발
- 2003.11 한국경제 – 참옻 식품을 아십니까?
- 2003.11 동아일보 – 옻 안타는 참옻
- 2003.10 스포츠투데이 – 참옻 부작용 걱정마. 난 먹어!
- 2003.11 스포츠조선 – 부작용 없는 옻, 안전성 완료
- ▶2006.6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잘쓰면 약이 되는 옻 건강법 협찬
- ▶2006.8 20 KBS 싱싱일요일 – 계절의 보석 옻 협찬
- ▶2006.10.31 KBS 무한지대큐 – 협찬

구입땐 꼭 확인을 …

농림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식품연구원에서 3년간 연구 개발한 본 제품의 원료는 일반시중 제품보다 신뢰성이 뛰어나 많은 고객분들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일반형] [고급형]



• 내용량 : 1박스(80mℓ ×60포) 2개월분 • 1병(1.5ℓ)

상담문의 : 옻가네 참옻농원
무료전화 : 080-838-33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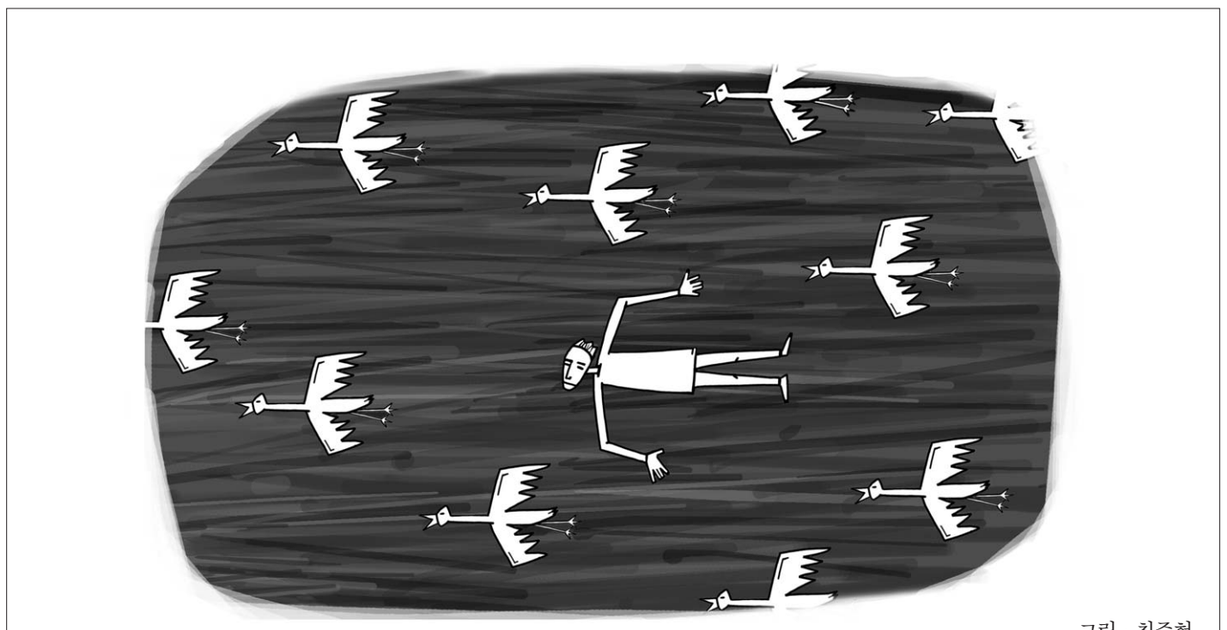
# 내 생명이 아까우면 남의 생명도 아까운 줄 알아야!

항상 법당이 좁아 추워도 바깥에서, 이렇게 날이 뜨거워도 바깥에 계시게 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디로 가는지, 또 현재에 뭘 어떻게 하고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똑바로 알아야만 되겠기에 이렇게 항상 도반으로서 한도량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질문하기 전에 한마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사생, 사생 하는데 사생(四生)을 어떤 의미에서 사생이라고 합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사생이라는 뜻을 똑바로 아시고 그 사생의 천차만별로 있는 문제들을 자신들이 잘 직감하고 행동으로 취해나가야만 되겠으니까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생이라는 것은 태로 낳는 거나, 알로 낳는 거나, 화해서 낳는 거나, 질척한 데서 낳는 거나, 이 낳는 것이 습한 데 사는 생명들도 천차만별이고 알로 낳아서 사는 생명들도 천차만별이고 또 화해서 낳아서 사는 생명들도 천차만별이고 태로 낳아서 사는 생명들도 천차만별이란 말입니다. 그 천차만별 가운데에 영혼이 깨끗하게 밝고 정갈하게 사는 영혼들이 얼마나 될까요.

영원한 자기의 근본 불성 자체가 바로 자기를 이끌어 가는 건데, 불성이 있기 이전 영혼이라는 자체가 깨끗해야 되는데 깨끗하지 못한 사람도 많고, 또는 이 육신이 튼튼하고 정상이어서 불구가 아닌 분들도 영혼이 아주 불구가 되신 분이 있고, 몸은 불구나 영혼이 아주 불구가 아닌 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과거로부터 불구로 나오게 되는 인연을 맺었기 때문에 불구로 태어났을 겁니다. 하지만 불구가 된 자체로 인해서 자기의 자책감으로, 어떠한 문제가 닥쳐서 눈물을 흘리고 뼈저리게 울면서라도 자기가 불구라는 걸 자책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보는 것도 정확하게 볼 수 있다 이 소립니다. 자기가 제일 밑에 섰기 때문에 말입니다. 위가 됐으면 잘 보질 못할 텐데 밑에서 보기 때문에 판단을 잘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육신이 멀쩡한 분들도 마음이 불구가 돼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절룩발이고 이렇게 된 분들이 많거든요. 그건 뭐냐하면 모습이 그렇게 돼서 그런 게 아니라 마음 자체가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 벌써 영혼은 아주 불구죠. 그래서 따지고 본다면 육신 불구가 영혼도 불구냐, 그렇지 않으면 육신이 정확한 사람들이 영혼이 불구가 된 사람들이 많으냐 이런 걸 비유를 해볼 때에 이 몸이 불구된 사람일수록 더 영혼은 깨끗하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그 깨끗한 영혼으로 인해서 차원에 따라서 모습이 주어지고 삶이 주어지고 또 복도 주어지고 그러는 것인데 영혼을 그렇게 불구인으로 만든다면 우리는 지금 불구로 사는 사람들보다도 더 형편없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림 · 최주현

그러니 우리가 침착하게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우리 인간만 그런 게 아니라 사생들이 다 그래요. 날아다니는 새들도, 육지에서 사는 짐승들도, 물에서 사는 고기들도 또 질척한 땅에서 사는 생명들도 다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 안 하려야 안 할 수 없는 것이 우리는 필연적으로 이 마음의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마음을 똑바로 가지고 말입니다. 누가 그렇다고 해서 돈을 벌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저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또 사랑을 하지 말아라 이런 것도 아닙니다. 단 사랑을 하되 자비로 해라. 여북하면 자비라는 것을 '비' 자를 무슨 '비'자로 썼습니까? 슬플 '비'자로 썼죠? 그러나 가엾어서 내 아픔같이 생각하고 가엾어서 내가 너를 건지겠노라. 너를 건지는 데는 내가 네가 돼주마. 이 마음이 마음 속에 들어가주지 않는다면 건져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서산 대사 얘기를 또 응용해야 되겠습니다. 서산 대사가 날으는 새도 떨어뜨렸다, 이렇게만 듣지 마세요. 서산 대사 마음이 새가 됐단 얘깁니다. 새가 됐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내려앉는 거죠. 그것뿐이 아니죠. 부처님께선 사생, 그래서 자부라고 그랬는데 사생인연을 다 맺어서 그렇게 일대사의 인연을 해놨기 때문에, 둘이 아닌 까닭에 자부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생들의 과정을 면밀하게 지금 밝은 세상이니까 다 보고 사시죠. 사생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또 우리들의 삶이 어떠한가. 차원이 다르고 모습이 다르다 뿐이지 삶의 과정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 생명도 둘이 아니요, 바로 마음도 둘이 아니요, 부모 자식이 돼서 형제가 돼서 삶도 또 둘이 아니라. 애통해하고 껍데기가 돼서 자기가 자식을 위해주는 것도 다 똑같고. 그러나 이 법의 부모는, 여러분이 다 법의 부모를 가지고 계십니다. 불성이라는 것이 법의 부모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수억겁 전으로부터 진화해서 형성시켜 나온 장본인이니까요. 이 모습이라는 건 한철 살다가 망가지면 그냥 다시 바꾸는 것뿐입니다. 바꾸는 데는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바꾸어지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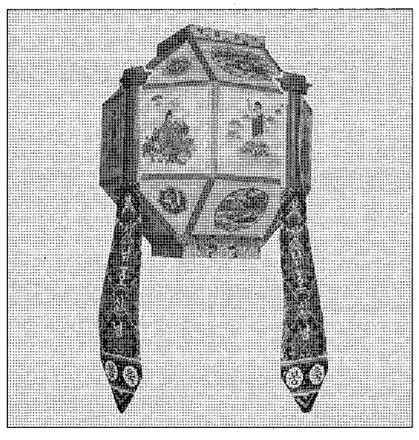
그러니 오늘 아무렇게나 살다 뭐 죽으면 고만이지 이러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하나, 각자 하나씩만 잘못돼도 좋은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가 잘못되면 단추 잘못 끼는 거와 같아서 죽 내려가면서 다 잘못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집안에 안 되면 한 분이라도, 또 전부 다라면 더더욱 좋고요.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는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많이 생깁니까.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가는 거는 누구나가 다 있는 겁니다만 부모를 두고 자식이 그냥 별안간에 죽는 거와 부모도 자식들을 두고서 별안간에 죽는 거 이게 끔찍한 일입니다.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짐승들도 그렇게 해놓고 자식을 못 잊어서 그 죽은 자리를 몇 번이고 가서 울고 그립니다. 그게 사람과 뭐가 다릅니까? 내가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요, 내 몸 이것도 한철 살다가 버릴 집인데 우리가 뭘 그렇게 남의 거를 걸터듬어서 이렇게 살아야만 되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가는 거 억지로 잡지 말고, 나한테 닥치는 거 마다하지 말고 모든 거를 흡수해서 나 아님이 없이 해라. 아무리 아랫사람이 강하고 뻣뻣해도 내가 고개를 먼저 숙여준다면 상대방에서도 그냥 숙여준다. 내가 웃사람이라고 숙여주지 않는다면 아랫사람도 겉으로는 숙여줄지 모르나 안으로는 전혀 숙여줄 줄 모른다. 이게 진리의 원 근본이죠. 진리에 살고 진리에서 죽고 진리에서 배우고 이러는 것이 불교가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에 어느 회사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다 유통이 돼서 살아나가지만 첫째, 융통성있게 내 머리를 숙여서 말을 내 속에만 넣고 탁, 자세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말을 안 하면 그냥 그건 오해가 생기는 거고, 그러한 문제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자식과 부모 사이도 그렇고 부부 사이도 그렇습니다. '남편들이 나가서 일하는데 여자가 알면 뭘 해?' 이러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러고는 안에 들어오면 화가 나니까 얼굴이 찌푸려지고 웃지 않고 그렇게 되면 "여보, 왜 그럽니까? 뭐 어쩝니까?" 하면 "몰라도 돼!" 이러거든요. 그러니깐 안에서는 그런 걸 다 모르고 오해가 생기고 감정이 생기고 이러니깐 마음으로 뒷받침을 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잘되겠습니까?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이런데 내가, 이러니까 마음이 괴로워서 그래." 이렇게 해주면 "어머나, 그렇구나. 저거 어떡하든지 잘돼야지." 하고 마음으로다 항상 기도하는 것처럼 마음을 써 주는 것이 한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서도 이렇게 의합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자식들한테도 선은 이렇고 후는 이런데 가족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 그래도 한달에 서너 너덧 번은 가족 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다 털어놓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그것이 화합도 도모할 뿐 아니라 서로 일하는 데 마음이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오면서 뒤를 받들게 되는 겁니다. 이건 몸으로 뛰고 무슨 말로 하고 이래서만이 뒷받침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마음으로 하는 것에 여러 식구가 한마음이 돼준다면 그냥 이거는 100%를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식도 아버지가 하는 일 모르고 아버지가 자식 하는 일도 모르고 부부지간에도 모르고 이러니까 나가서 혼자 뛰고 혼자 근심 걱정 하고 이러다보면 몸이 망가지고 하는 일도 잘 안되고, 안에서는 안에 대로 오

☞26면으로 계속

이제 연등에 번잡한 풀칠이 필요없습니다!!

우리불교 전래의
**조립식 팔각등**

**가격 동결 단행!!**

어려운 사찰의 경제에 도움을 드리고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가격을 동결하였습니다.

★ 제작이 간편한 등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날장으로 풀발이 하던 등제작이 「한번의 공정으로 아름답고 멋 스러운 등」이 3분내에 완성.

★ 야외장엄용
「특수 이중 합지방식에 코팅 처리」를 하여 이슬에 젖지 않음은 물론 견고성을 지니고 있어 「행사 수일 전부터 사찰의 축제분위기 장엄」에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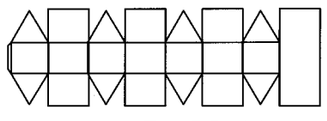
★ 운반 및 보관 용이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하도록 고안.

▣ 단 한번의 공정으로 3분내 완성



★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고려시대 연등회, 팔관회의 고증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청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하여 봉축의 의미와 중생의 불심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디자인.

★ 경제적인 가격
종래의 복잡 다원화된 유통 구조로 인한 높은 가격을 배격한 「사찰을 위한 경제적 가격」

▣ 펼친 상태 [골조 및 인쇄겉지 합지 방식]


현우기획
전화:(043)877-6464 팩스:(043)877-8239 핸드폰:016-552-9360
(043)877-8236 ▪우체국 013706-01-003311 예금주:(주)국민피앤텍
▪농 협 415051-51-000057 예금주:(주)국민피앤텍

천기누설을 가장 많이 한 책

귀신에 관한 최고의 참고서
**빙의의 시대**




지은이/ 일광(逸廣)
신국판/ 312쪽/ 9,500원

*정신병의 70%이상은 귀신에 의하여 생기는 병이다. 귀신처리만 정확히 하면 정상인이 된다.*
*무당이 되기 전에 앓는 신병(神病)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 무당하기 싫은 분,*
*귀신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신기가 있어 고생하시는 분, 어딜가도 답을 못 찾으신 분,*
*원인모를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스님이나 무당으로부터 귀신이 몸에 있다고 하여 고민하시는 분은*
*반드시 이 책을 읽고 상담하여 주세요.*

출생의 비밀 윤회는 왜 하는가?
여성상위시대와 빙하기는 왜 오는가?
150년후 일본은 침몰하고 없어진다!
전국에서 이름있는 도사를 모셔 조상의 묘를 썼는데 왜 발복이 없는가?

우리출판사 Tel. 02-313-5047
전국 서점에서 판매 중

# 진리에서 살고 진리에서 죽고 진리에서 배우는 것이 불교

☞25면에서 계속

해를 사고 그냥 뛰다가 병이 들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모두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부족한 게 아니라 자비가 부족해서요. 우리가 결혼을 해도 사랑만 가지고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조건이 다 맞아서 자비가 돼야 결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대한 문제들이, 이 사생에 관한 건이 같이 더불어 이렇게 전부 살고 있으니 그 모두가 소중하다. 내가 살아보니까 모두가 소중하지 않습니까? 내 생명이 아까우면 남의 생명도 아까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어떤 때 가만히 보면 이 방생이라고 한다는 그것이 고기를 그냥 산 채로 잡아다가 그렇게 팔아먹으려고 놓으면 또 사다가 거기다 넣어요. 넣으면 넣는 그 즉시 또 그물질 해서 또 잡아다 놔요. 그게 방생이 아니라 지옥고를 당하게 만들어 놓는 거란 말입니다. 방생이 얼마나 할 데가 없어서 그런 방생으로 하겠습니까? 차라리 그냥 놔두는 게 낫죠.

고기 방생이라는 게 언제서부터 생겼느냐 하면 옛날에는 산사에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면 지렁이 뭐 미꾸라지 소라 등이, 하여튼 가재 게 붕어 할 것 없이 늘비했습니다. 뜰 안에 그냥 늘비했어요. 그러니까 물도 없는 데서 모두 죽을 테니까 그릇을 가지고 그걸 담아서 강에다 넣어준 그런 이치상 생긴 것입니다. 물이 없는 데 있는 고기를 물 있는 데 갖다 넣는 게 방생이지 어떻게 물 있는 데서 사는 걸 잡아다가 고생을 기껏 시키고는 죽는 것도 많고 그런데다가 또 잡아다 놓고 또 건지고, 이게 방생입니까, 어디? 그건 방생이 아니죠. 그건 오히려 죽이는 것만도 못하죠. 이, 사람 방생도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가 대의적으로 본다면 이런 문제들이 전부 참 여러분이 도와주셔서 잘 지내고 있는데 그런 반면에 아주 모르게 보이지 않게 고생하는 분들이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해서 만나고 인연이 되면 그런 걸 조금씩이라도 우리 형세에 따라서 도와주면 그게 방생이에요. 물 없이 사는 거 물 있는 데다 갖다 넣어주는 것도 방생이고요. 또 옛날에 제비 다리 해줬다는 것처럼 아, 가다가보면 다리가 부러져서 못 나는 거 감아서 치료해서 날려보내는 것도 방생이고요. 그런 게 진실한 방생이지 어떻게 그게 방생입니까? 그렇게 방생이 잘못돼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다 요즘 텔레비전에서 들으니까 외국 두꺼비를 갖다가 방생을 해가지고 그렇게 됐다는데 그게, 그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왜 한국에도 많은데 외국에서까지 사다가 넣어가지고 그 야단입니까?

하여튼 어느 누구든지 겸손하고 둥글고 너무 욕심차리지 마시고, 그저 나한테 닥치는 것만 가져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새 그렇게 야단법석하죠? 과거의 역사를 본다 해도 그렇죠. 그거 뭐 때문에 저렇게 고생들을 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아, 뭐 때문에 대통령을 하고 예전에 왕을 하고 그래가지고선 그 난리가 나고 칼부림이 나고 죽고 이렇게 사느냐는 얘기죠. 세상에 돈을 주고 하라고 그래도 나 같으면 안 할 텐데 말입니다. 하하. 그렇게 해가지고 있는 걱정, 없는 걱정 또 자기 영혼도 다 더럽히고 자식들 대까지도 더럽히고 그냥 대대손손이 그게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신성한 이름을 남기기 이전에 그런 이름을 남긴다면 그건 치욕적이죠.

우리가 평범하게 지극하게 참, 자비하게 살 수만 있다면 그 얼마나 좋습니까? 짐승들이나 날아다니는 새들도 그 추위를 당해도 참고 봄이 올 때를 기다리면서 고생이 돼도 인내를 하고 사는데 우리 사람으로서, 고등동물로서 그런 인내가 없이 질서없이 무분별하게 산다면 우리는 사람 될 가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이 마음공부라는 거를 해야만 되는 거죠. 자기 마음의 근본으로 인해서 육신이 움죽거리고 사는 거니까, 우리가 육신부터 나오고 마음이 나온 게 아니라 바로 내 영원한 나의 근본 때문에 내 육신이 형성됐으니까 말입니다. 알고 본다면 아주 지극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있어도 또 육신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부처님 육신은 하난데, 하도 마음이 다른 육신들한테 그냥 모두 들어가서 자기가 돼봤기 때문에, 허허허. 그분은 구더기가 돼도 상관없고 어떠한 게 된다 하더라도 자기는 상관없다고 말씀하신 거와 같습니다. 전부 나 아님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자비하게 모두 평등하게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평등한 것이 똑같아서 평등한 게 아닙니다. 생명의 근본은 평등하지만 이 모습으로서 굴리는 데는 평등치가 않습니다. 천차만별이지요, 용도에 따라서 그 천차만별로 돌아가는 그 융통성을 다 가지고 계시니까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대단하신 분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사생자부가 돼라' 해서 사생자부의 과정을 가르치기 위해서 뼈 한 무더기를 놓고 그렇게 가르쳤단 말입니다. 수없는 과정을 거쳐올 때 억겁, 천겁, 만겁을 거쳐올 때 자식이 되고 부모가 되고 또는 형제가 되고, 이렇게 했다가 잠깐 또 진화돼가지고 또 다른 부모가 되고 다른 자식이 되고 또 거기서 부모가 되고 이렇게 해 올라오기를 헤아릴 수 없이 거쳐 올라왔다 이겁니다. 그랬으니 생각할 때는 지금 육신의 부모만 부모가 아니라 전체가 내 부모 아닌 게 없고 전체가 내 자식 아님이 없고 그냥 순간 모습을 바꿔서 자식이 돼서 나오고 순간 바꿔서 또 부모가 되고 이렇게 하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가 있든 없든 하늘이 무너지든 땅이 솟든 간에 눈도 깜짝하지 말고 이 내 주인공이라는 자체는 이름이지만 그 이름으로 인해서 근본 불성을 돕기 때문입니다. 그 불성만이 내 몸을 움죽거리게 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보디가드가 되고 해결사가 돼주고 모든 거를 다 그렇게 해준다는 걸 딱 믿어야지 딴 데를 믿었다간 만날 속고, 만날 걸리고, 맞고 치욕적인 일을 당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라면서 아주 진정한 자기의 보디가드는 자기한테 있다는 거, 진짜 자기의 해결사는 자기한테 있다는 거, 그 거를 꼭 믿으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질문자1(여):**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질문이 두 가지 있어서 왔습니다. 한 가지는 질문이 아니고 제가 애원을 드리러 왔습니다. 뒤에 있는 이 애기가 동생 애기거든요. 그런데 얘가 계속 가출을 하고 있거든요, 초등학교 육학년인데요.

**스님:** 그런 거는요, 날마다 11시부터 이렇게 여러분이 오십니다. 그때 말씀을 하세요.

**질문자1(여):** 그때 말씀드리고 그래서 스님이 관하라고 가르쳐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안되고 그래서 동생은 제가 스님 한 번 더 찾아 뵙고 스님한테 말씀드려라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스님한테 말씀드리기조차도 창피스럽다고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 제가 어쩝니까, 언닌데.

**스님:** 그 말이 왜 이렇게 안 들립니까?

**질문자1(여):** 그래 동생 애긴데 동생은 애가 나가면 저한테 전화해서 울면서 그러거든요. 애 또 나가버렸다고요. 나가면 밤새고 들어올 때도 있고 아니면 그 다음날 새벽에 들어올 때도 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스님 친견하고도 안되고 또 동생이 재를 올린다 그래서 재도 올렸거든요. 그런데도 안되고 이러니까 저도 동생한테 어떻게 가르쳐줄지를 모르겠습니다, 스님.

**스님:** 이거 봐요.

**질문자1(여):** 예.

**스님:** 동생이라고 그랬어요?

**질문자1(여):** 동생 애기….

**스님:** 나중에 얘기하세요. 그런 건 한두 마디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고도 또 말로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질문자1(여):** 그리고 스님, 두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젯밤에 꿈을 꾼 거를 제가 스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스님:** 내가 한마디 묻겠어요.

**질문자1(여):** 예.

**스님:** 어디서 사십니까?

**질문자1(여):** 대구서 왔습니다.

**스님:** 여기, 그럼 대구에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질문자1(여):** 제가 나온 지는 삼 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스님:** 삼 년이 넘었는데 말씀하시는 것 들으니까 상당히 미흡하신데요.

**질문자1(여):** 중간에 게으름 많이 피웠습니다.

**스님:** 삼 년이 되면 뭘 합니까? 예?

**대중:** 잘 안 들립니다.

**스님:** 뭐? 그러면 나중에 얘기하세요.

**질문자1(여):** 그러면 스님, 어제 밤에 꿈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스님:** 아니 꿈이 무슨, 지금도 꿈입니다, 이거! 하하. 이따가 시원하게 말씀하시고 가세요. 그렇게 하세요.

**질문자2(남):** 스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왕십리에서 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마음공부를 하게 된 거는 작년 8월부터입니다. 신촌에 있는 만덕사란 절에서 청년 불자들이 모여갖고 공부를 하는 모임인데요, 여기 선원에 계시는 스님이 지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작년 8월부터 마음공부를 알게 되고 지금 와서는 많은 체험을 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불교신자로서의 보람을 조금씩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님께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좀 외람되지만 제가 여기 선원에 나오면서 스님에 관해서 두 가지의 상반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또 하나는 여자 문젠데요, 첫번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여기 선원에 다니게 되면서 제가 여기까지 질문하게 되는 것 자체도 저의 뜻이 아니고 한마음 주인공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선원에 나오다 보니까 제가 대행 스님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나쁘게 생각되는 점이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스님께서는 방법면에서 실제로 그렇지 않으시지만 많은 제자들과 그리고 저희 신도들을 함께 이끌어주시는 걸 보면 실제로는 크나큰 권위와 카리스마를 갖고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좀 외람되지만 사교 집단의 교주와 같은 느낌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면 스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이 자기 속에 있는 주인공을 믿고 의지하라고 하니까 그런 걸 생각할 때는 또 그런 마음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마음이 항상 스님한테 같이 있습니다. 두번째는 여자….

저기 다름이 아니라 제가 얼마 전에 한 여자를 알게 됐는데요, 마음이 참 이쁜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비록 다르더라도 상대편의 마음을 따라서 같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여자를 알게 됐는데 사실은 제가 그 여자를 알게 되고 나서 주인공한테 항상 관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전까지는 마음에 있는 여자가 나타나면 저 여자만이 된다, 다른 여잔 안 된다, 그리고 그 여자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 이러한 집착과 조급함을 가지고서 제 생각만 따라갖고 조급하게 다가감으로써 마음의 상처를 입은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주인공한테 맡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너무 쉽게 되면 재미없지 않느냐. 좀 너무 잘되게도 하지 마라. 적당히 좀 어렵게 해라.'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마음공부를 할 수 있는 평생의 동지로서 가족을 한번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스님께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그 여자가 저한테 맞느냐 안 맞느냐, 맞으면 맞게 그리고 저한테 어울리지 않으면 어울리지 않게 한마음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호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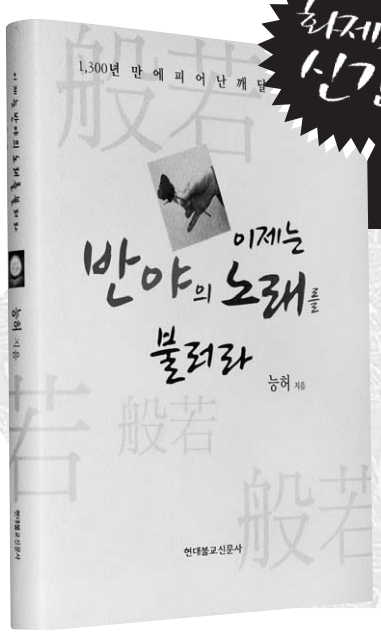
※위 법문은 1997년 4월 20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디로 가는지**
**또 현재에 뭘 어떻게 하고 살아가는지를 뚝바로 알아야!**


▶ 전국 서점 또는 '온라인 여시아문'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02)737-0695

"덕산탁발화(德山托鉢話)와 파자소암(波子燒庵)의 두 공안을 다 통과했으니 내가 인가를 안할 수가 없어 눈 밝은 사람은 어디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당당한 대장부라네. 자네는 재가자로서 1,300년 만에 확철대오의 꽃을 피운 것이네" - 정일대선사

바라밀선원장(능허)의 구도여정 그리고 깨달음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온 까닭은?




최제의 신간

1,300년 만에 피어난 깨달음의 꽃
이제는 반야의 노래를 불러라

능허(能虛)거사 지음
현대불교신문사 발행
양장본 / 238쪽 / 값 12,000원
바라밀선원 전화 055)314-0116,8

*불교의 진면목은 채움이 아니라 비움에 있으며*
*배움이 아니라 배울 수 없음에 있으며*
*가르침이 아니라 가르칠 수 없음에 있으며*
*언어 문자가 아니라 언어 문자가 끊어짐에 있으며*
*지식이 아니라 지혜에 있으며 앎이 아니라 깨침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화경에서는, 불법은 생각이나 분별로는 이해할 수 없으며*
*오직 견성 성불한 부처만이 알 수 있음을 설했던 것입니다.*
*모든 부처와 조사가 한 법도 사람에게 주심이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종요로이 스스로 믿고*
*스스로 긍정하며 스스로 보고 스스로 깨닫게 할 뿐입니다.*

- 법문 중에서

*어디선가 찬바람이 불어오는데, 낙엽 하나가 내 발 앞에 떨어졌다.*
*바로 그 순간, 우주와 내가 둘이 아니었다.*
*큰스님께서 "보려고 하면 힘들다"고 하신 뜻이 하나로 통해지면서*
*눈길에 벌렁 누워버렸다. 밤하늘 밝은 달을 쳐다보니 고향땅에 도착한 것이*
*분명했다. 온몸에 땀이 흘러도 모르고 있다가, 찬바람에 땀이 식어지자*
*추위가 닥쳐왔다. 그제서야 번쩍 정신이 들었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혼자 중얼거렸다.*
*"이제는 천하에 부처님과 조사들도 나를 두 번 다시 속일 수 없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힘차게 소리를 질렀다.*
*"조주여! 천 년 사림살이 오늘 나에게 들켜 버렸구나!"*

- 본문 중에서



불자 세상보기

황진수
한성대 교수

# 총선이후의 과제

4월 9일 치러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는 몇 가지 특징을 갖는다.

첫째, 국민의 관심을 끌지 못한 선거였다. 투표율 46%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이는 대의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경종(警鐘)이다. 국회의원 당선자가 지역주민의 대표라는 상징성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50% 미만이 투표했고 50%미만 득표할 경우 4명중 1명만의 지지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심지어 20명의 후보는 30%의 지지로 당선되었다. 그러면 왜 이리 투표율이 낮았을까. 양대 정당이 후보 공천을 늦게 했다는 점, 선거쟁점이 없어 시들해진 분위기, 그리고 정치권에 대한 일반적인 불신 분위기 때문일 것이다.

둘째는 보수진영의 대거진출과 민주화세력의 몰락을 들 수 있다. 보수진영은 한나라당 153석, 자유선진당 18석, 친박연대 14석, 보수계 무소속 18석등 도합 203석을 차지했다. 이는 지난 17대 민주화세력, 진보진영이 차지했던 171석을 능가하는 숫자이다. 이는 '잃어버린 10년'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의석 과반수를 넘기긴 했지만 안정적 국정운영을 충족시킬 수 있는 158석에는 미치지 못했다. 앞으로 통합민주당은 물론 자유선진당, 친박연대등 야당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한나라당의 일방적 독주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대한민국 국민은 참 현명하다는 생각이 든다. '역사는 순환하는가(아놀드 토인비)' 아니면, '역사는 진화하는가(E.H.카아).' 우리나라의 정치 핵심세력이 산업화 중심의 보수 세력에서 진보와 민주화를 내세운 386세력으로 좌회전 진행하더니 다시 보수 세력으로 우회전을 했다. 이것은 국정운영의 축이 개인 호주머니(복지)보다 나라살림(성장)에 무게를 둔다는 의미를 함축한다.

셋째, 이명박 정부에 대한 견제구(牽制球)를 통합민주당이 아닌 이회창(충청), 박근혜(영남)가 맡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충청도의 정치성향은 여야 골고루 나눠주는 합리적 구도였는데 이번에는 자유선진당 일색으로 나타났다. 충청도 민심이 반란을 일으켰는가, 뿔이 났는가. 또 영남권의 민심은 공천불만에 따른 박근혜 동조론이 크게 작용했다. "저는 속았습니다. 국민도 속았습니다"라고 울먹이면서 말하는 박근혜의 목소리에 영남권의 민심은 정서적으로 동감했고, 이명박 정권의 실세 몇 사람이 낙마했다. 이러한 정치적 흐름은 500만표 이상으로 압승한 이명박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오만하지 말고,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라'는 국민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넷째, 이제 3김(金)시대가 막을 내렸다는 것이다. 특히 호남에서 '선생님'의 입김이 먹히지 않았다. DJ의 3남 김홍업이 낙선을 한 것은 호남의 정서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YS의 아들 김현철은 공천신청조차 못했고, JP의 흔적은 바닷가 모래위의 글씨처럼 희미하다.

그러면 앞으로 정국의 방향은 어떻게 짜야 하는가. 이명박 정부가 선거공약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민적 화합을 해야 한다. 그리고 '오만과 편견'으로 가득찬 노무현 정권의 경험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독주하지 말아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앞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정과제가 많다. 한미 FTA비준 및 체결문제, 금융산업의 개편 문제, 청년실업의 문제, 북핵문제를 비롯한 북한과의 관계설정문제, 양극화문제 해결 등 수 없이 많다.

또 한반도 대운하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대운하를 만드는 것에 많은 국민이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5년 임기에 불과하지만 잘못 판 대운하의 재앙은 영원할 수도 있다. 국민들이 심각한 토론을 거친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 이명박 정부의 실용경제, 실용복지, 실용외교를 보여 주어야 한다. '무소의 뿔'처럼 가기 위해서는 국민을 설득하고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 "선생님, 여기있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59 초등학생의 배려하는 마음과 용기

## 빨간 지갑의 유혹

초등학교 4학년 때였다. 집안 형편이 어려웠던 정양은 참고서 하나 제대로 사기가 힘들었다. 예쁜 학용품들은 더욱 그림의 떡이었다. 어린 마음에 갖고 싶은 것도 많고 예쁜 물건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 부럽기도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반의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지갑을 보았다. 순간 눈에 확 들어왔다. 정양이 평소 좋아하던 만화 캐릭터가 들어있는 빨간색 지갑이 너무 좋아보였다. "저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끌리며 '아, 저 지갑 갖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부모님께 사달라고 말도 꺼낼 수 없다고 생각하니 기가 죽었지요."

점심시간이 되었다. 문득 아까 그 아이 자리로 눈을 돌렸는데 뜻밖에도 그 지갑이 보이는 것 아닌가. 점심 먹고 책상 위에 그냥 두고 나간 것 같았다. 정양은 가까이 가서 좀 더 보고 싶어졌다. 마침 교실엔 거의 아무도 없었고 각자 자기 일하느라 바빴다. 정양은 그 애 자리로 가서 지갑을 들고 잠시 살펴보았다. 그리고는 지갑을 들고 자리로 와서 자신의 가방에 넣어버렸다. "남의 것을 가진다거나 훔친다는 개념이 확실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쁜 것을 보아서 내가 가진다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또 그 애가 놔두고 나갔으니까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수업이 시작될 무렵 그 지갑주인 아이가 울음을 터트린 것이다. "선생님, 지갑이 없어졌어요. 난 어떡해요." 그 애는 엉엉 울었다.

## 제가 했어요

담임선생님은 놀라 "어디에 두었니? 언제 마지막으로 보았니?" 하고 물었다. "분명히 여기 책상 위에 두었어요" 그러자 옆의 아이들도 "맞아요, 우리도 보았어요" 했다. 담임선생님은 심각해졌다. "그럼 누가 가져갔다는 말이냐. 이럴 수가 있나"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남의 것을 가져가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설명하며 화를 내었다. 정양은 선생님 말씀을 들으며 가슴이 떨려왔다. 그렇게 잘못된 일인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선생님은 우선 모두 일어나서 바닥에 혹시 떨어져 있지 않은지 살펴보라고 했다. 그리고도 발견되지 않으면 전부 밖에 나가게 하고 모든 아이들 가방과 소지품을 검사하겠다는 것이었다. 다들 바닥과 주위를 찾아보느라고 야단이 났다. 정양은 점점 무서워졌다. 분명히 검사하면 내 가방에서 나올 텐데, 이 일을 어쩐다! 어쩔 줄 모르던 정양의 눈에 옆짝 홍군의 가방이 보였다. 정양은 자기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서 홍군의 가방에 넣어버렸다. 홍군도 그것을 보았다. 홍군은 정양을 보고 "너 왜 그러니?" 하고 물었다. 정양은 너무 무섭고 당황하여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울어버렸다.

홍군은 잠시 생각하더니 "선생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큰소리로 말했다. 교실이 일시에 조용해지며 홍군을 주목하였다. 홍군은 자기 가방에서 그 지갑을 꺼냈다. 그리고는 앞의 선생님께로 들고 가는 것이었다. 정양은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이제 난 죽었다. 난 도둑이다. 끝장이다' 하는 생각만 들었다. 앞으로 나간 홍군은 선생님께 지갑을 드리며 "죄송합니다. 아까 지나가는데 책상위에 지갑이 있었어요. 빨간색이 하도 예뻐서 잠깐 보려고 가져왔는데 그만 가방에 넣어버린 것 같아요. 가져갈 생각은 없었어요" 하고 말했다. 선생님은 지갑 찾은 것이 너무 반가웠는지 "그러면 되나. 아무리 잠깐이지만 남의 것을 말 안하고 가져가면 안 돼. 그래도 금방 말해주니 잘했다" 하고 곧 상황을 끝내버렸다.

## 배려하는 마음이 진짜 보시

그 일은 정양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다. 홍군은 잘못하면 누명을 쓸 뻔 했는데도 자기에게 원망하는 마음도 없이 정양을 감싸주어 아무도 모르게 해주었던 것이다. 당시는 잘 몰랐지만 철이 들면서 생각할수록 그의 마음이 고마웠다. 진한 감동으로 마음에 다가왔다. 홍군과는 연락이 끊어졌지만 그 사건은 정양을 딴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다. 남의 어려움과 아픔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 것이다. 중고등시절 정양은 반에서 '천사표'라고 불릴 정도로 다른 친구들을 감싸고 배려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

대학생이 되어서도 봉사활동에 누구보다도 열심이다.

"불교학생회를 하면서 육바라밀의 하나인 보시를 배웠을 때, 아, 홍군 그 친구가 나에게 해 준 것이 진짜 보시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정양은 홍군으로부터 어떤 비싸고 좋은 물건과도 바꿀 수 없는 마음의 선물을 받은 것이다. 아상이 가득하고 존중과 배려가 아쉬운 시절에 한 초등학생이 보여준 남을 생각하는 마음과 용기가 참 아름답고 감사하다. 일부 부끄러운 어른들에 대해서 더욱 참회하는 마음이 들게 된다.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 불자의 눈

### 종지종통에 충실한 종도 되자

조계종이 4월 11일 중국 장시성(江西省) 난창(南昌) 우민사에 도의 국사 구법기념비를 제막했다. 우민사가 있는 곳의 옛 지명은 홍주이고 절 이름은 개원사였다. 6조 혜능 선사의 법맥을 이어 우리나라에 남종선을 전한 도의국사가 구법한 곳이다. 조계종의 종조인 도의 국사의 구법지에 비를 세움으로써 조계종의 정체성이 6조 이래로 전승되어 온 남종선에 있음을 다시 표방한 것이다.

물론 조계종은 선만을 주장하는 종단이 아니다. 여러 수행법을 포용하고 원융과 조화의 종단을 주창한다. 다만, 종단의 뿌리가 선불교에 닿아 있음을 역사적으로 입증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구법비를 세웠다. 우리는 조계종의 구법비 제막에 각별한 의미를 두고자 한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종지종통에 충실한 종단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종단의 정체성은 곧 종단 구성원인 사부대중의 정신과 행동양식의 근간이다. 종단은 멀리 역사적 전거를 더듬어 종단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자 애쓰는데 종도들이 종단의 뿌리를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선(남종선)만이 조계종의 근본인 것은 아니지만 수행과 신행의 내용에 앞서 종도로서의 기본자세가 올곧아야 종단도 바로 선다는 점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조계종은 지금 포살 결계 관련 법을 공포하고 수행가풍을 확립하려고 애쓰고 있다. 불교가 현대화 사회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럴수록 종지종통에 충실한 종도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 '자리이타' 새기는 봉축기간

서울을 비롯한 전국 도시에서 봉축 일정이 발표되면서 세상은 바야흐로 연등 물결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올 봉축 표어는 '수행정진으로 세상을 향기롭게'다. 달리 말하면 보살도의 실천을 다짐하는 봉축기간이 되도록 노력하자는 뜻이다. 우리시대 불자들에게 가장 요긴하게 요구되는 것이 '자리이타'의 정신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는 바로 위로 진리를 구하고 아래로 중생을 구제한다는 보살의 정신에 다름 아니다.

수행에 대한 관심이 고양되고 있는 상황을 두고 혹자는 '세상살이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그러나 그것이 주된 이유는 아닐 것이다. 명상이나 요가에서 참선 염불 등 다양한 수행에 몰입하려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은 지식사회에서 지혜사회로 옮아가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자연스러운 현실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수행에 대한 관심과 함께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는 불자들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스스로 닦은 몸과 마음을 이웃에게 회향하는 아름다운 문화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시대적 흐름이 '수행정진으로 세상을 향기롭게'라는 표어에 담겨 있는 셈이다.

봉축행사는 축제다. 축제는 즐거워야 하고 그 즐거움은 보다 가치 있는 삶으로 승화되어야 한다. 봉축행사가 갖는 근본적인 의미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전국에서 열리는 다양한 행사와 연등축제가 자신과 이웃의 행복을 길어 올리는 신명나는 축제가 되길 기대한다.


#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번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1-8413


필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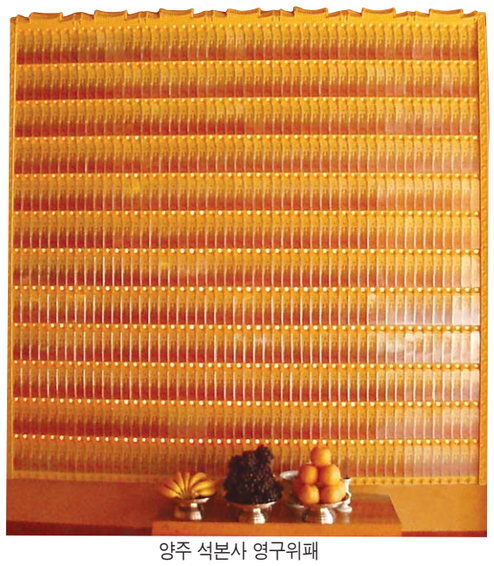
# 아름다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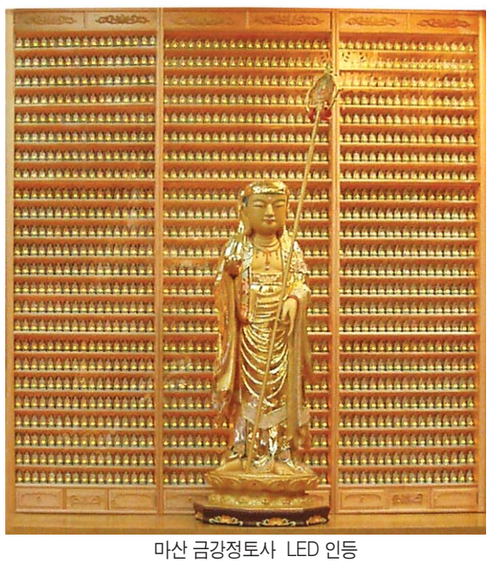
미래의 소중한 꿈을 담아 삼보공양을 찬덕연등이 함께 합니다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수원 팔달사 영구위패


양주 석본사 영구위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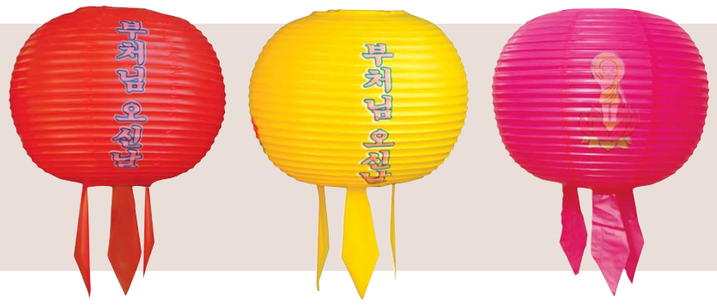

마산 금강정토사 LED 인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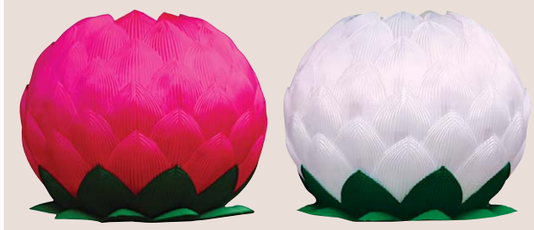

공 단 등





칼라(보카시)연등





오색공단등


영 가 등




사찰명 인쇄 시 30일 전에 전화신청 해 주십시오.

**연등 작업 현장**

※ 원하시는 사찰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해 드립니다.


▷연등 설치 작업


▷신갈 대덕사 연등 설치 모습


▷대구 파계사 원통전 천장 전기공사 및 연등 시공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전선시공


▷연등 설치 후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132-1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 2008년 중국베이징올림픽기념 중국의 세계 문화유산 "사해보녕" 문화 사절단

## 2004년 유엔 교육과학문화 조직 국제유산 UNESCO "중국 세계문화유산"





**사해보녕** "금윤법계-묘음비천-구주일통-홍수묘명" 4장으로 구성이 되어있다.

1. 금윤법계-불문숭경, 자기향연, 천수천안, 신령구사로.....
   *미와선이 암흑세력에 맞서서 싸우며 정의는 최종적으로 승리 할 것 이라는 진리를 애기한다.
2. 묘음비천
   귀신을 쫓아낸 후 인간의 산천이 더욱 아름답게 풍요로움을 느끼고 사람의 생활이 성결 해짐을 나타냄.
3. 구주일통
   팔기의장, 고무열화, 풍요수하를 통하여 예술을 통하여 민족의 화합, 국가의 강성을 애기함.
4. 홍수묘명
   불광보조, 정의산장, 초원래객, 숭속동라등 4장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 이 부분은 양관찬란, 만리무운, 음악명괘 희경열렬으로 되어있는데 무용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와 무용으로 축복을 올린다.

- **중국전통 오페라경극**
  경극은 대략1830년대 청나라 도광(道光) 황제 때에 여러 가지 지방극이 북경에서 융합되어 발전한 것으로 백팔십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1790년 청나라 건륭(乾隆) 황제의 80세 생일 때 조정에서는 전국 각지의 유명한 희곡작가들을 북경에 불러 경축 공연을 하게 하였다.
- **공연시간**
  A Time = 60분 B Time =100분
- **국제문화교류협회 / 도우 초청연혁**
  2006 스리랑카 국립무용 초청 2007년 네팔왕실 무용 초청

▪ 초 청 : 한국국제문화교류협회 / 도우

▪ 홈페이지 : www.108.or.kr (자료동영상을 찾으십시요)

중국문화예술단 공연은 2008년 4월 15일 ~ 7월 15일까지 행사를 진행합니다.
중국문화예술단 공연을 유치하고자 하시는 사찰, 단체는 문의를 하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문의전화 : 011-1714-8851(24시간) ▪ 후 원 : 불교상조회